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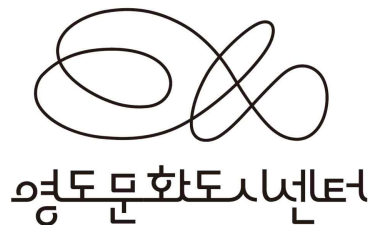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 개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 개발

(사업명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 를 위한 영도 모델 개발)

2021. 12.



제 출 문

영도문화도시센터 귀하

본 보고서를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 를 위한 영도 모델 개발 ” 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책임연구

이초영 (별일사무소 대표이사)

■ 연구기획

고운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

■ 공동연구

배은석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용란 (별일사무소 위촉연구원)

■ 연구보조

조서정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차

I. 연구 개요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절차	16
가. 연구 범위	
II. 영도구 현황	19
1. 인구 현황	19
가. 영도구 인구 현황	
①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의 부산시와 영도구	19
② 부산시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21
③ 영도구 전출인구의 다수는 20·30대	21
④ 전국과 부산시보다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영도구	22
⑤ 타 자치구에 비해 고령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23
2. 사회복지 현황	25
가. 영도구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5
② 영도구 노인 인구 현황	25
③ 영도구 장애인 등록 현황	26
나.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① 사회보장 일반	26
② 노인시설	27
③ 장애인 시설	28
④ 아동청소년 시설	28
⑤ 유관단체 현황	29
다. 복지기관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① 종합사회복지관	30
② 노인복지관	36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37
라. 영도구 사회복지 예산	
① 영도구 재정공시	38
② 영도구 사회복지·보건 예산	39

3.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현황	40
가. 문화기반시설 현황	
① 영도구의 문화기반시설은 절대적 수가 부족, 접근성 측면에서도 재해석 필요	40
② 미술관이 없으나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문화기반시설 수와 종류가 고른 편	41
③ 주민들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 문화기반시설의 지리적 편중을 극복하려는 노력 필요	41
나. 커뮤니티 자원 현황	
① 커뮤니티형	43
② 커뮤니티 플랫폼	44
③ 커뮤니티 콘텐츠	44
④ 커뮤니티 공간	45
Ⅲ. 사회적 고립의 이해	46
1. 사회적 고립의 개념	46
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론	
① 사회적 관계 또는 관계망 관련 이론	46
나. 사회적 고립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다. 고립에 대한 자발성과 비자발성	
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	
마. 사회적 고립 또는 배제 관련 요인들	
바. 최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슈들	
① 고립된 대상 범위의 확장	50
③ 자립과 고립에 대한 재해석	50
2.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사회적 고립 완화	52
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 배경	
① 커뮤니티케어의 정의	52
②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배경	52
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비전과 과제	
① 비전과 목표	52
② 4대 핵심과제	53
다.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고립 완화	
3. 커뮤니티케어의 현황 및 사례: 부산 사례를 중심으로	57
가. 부산광역시 북구 사례	
① 주요 대상	57
② 핵심 영역 사업	57
③ 대표 사업	58
④ 문화예술적 접근 전략 사례	59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례	
① 주요 대상	61
② 핵심 영역 사업	61
③ 대표 사업	62
④ 문화예술적 접근 전략 사례	62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례	
① 주요 대상	63
② 핵심 영역 사업	63
4. 시사점	65
가. 사회적 고립에서의 ‘자발성’	
나.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커뮤니티’	
다. 부산시 사례에서의 ‘생태계’	
라. 고립된 공간의 단순 이전에 대한 극복	
IV. 문화예술 분야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고립	67
1. 문화예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고립	67
가. 발전하는 시대, 인구사회구조와 문화예술환경의 변화	
① 과학기술의 진보와 개인화	67
②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가 초래한 사회적 고립감	68
③ 팬데믹이 야기한 고립의 확산과 예술의 가치	69
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	
다. ‘문화안전망’ 으로서의 문화정책 부상	
라. 現 정부의 비대면 환경에서의 문화예술정책	
2. 고립 해결의 기존 방식	78
가. 공적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사례	
① 문화나눔	78
② 문화예술교육	84
③ 문화재단의 문화복지사업	87
나.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사례	
① 명랑컴퍼니, ‘명랑마주꾼’ 프로젝트	91
② 피터아저씨 밴드, ‘아현동 쓰리룸&언뜻가게’	92
③ 우리동네청년회, 2030 반찬나눔모임 ‘반쪽’	93
④ 행복발굴단, ‘청년머슴’	94
다. 민간-공공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사례	
①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STAY.G’	95
② 양천구 ‘나비남(나非男)’ 프로젝트	97
③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99

④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1인가구 공동체 공동부업 지원사업’	100
3. 시사점	101
가. 고립의 경험에 따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재인식	
나. 삶의 안전망으로서의 통합적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요구	
다. 예술가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예술 활동의 다각적인 모색 필요	
V. 영도 내 사회적 고립에 관한 개념도 연구	104
1. 연구 방법	104
가. 개념도 연구법	
2. 연구 절차	106
가. 개념도를 위한 준비	
① 연구참여자 선정	106
② 초점질문	107
③ 기초조사	108
나. 아이디어 생성과 최종 진술문 통합 및 편집	
① 연구참여자 인터뷰 및 최초 진술문 작성	108
② 최초 진술문 통합·편집	109
③ 최종 진술문(수정 진술문) 통합·편집	112
④ 전문가 평정 및 자문	112
다. 진술문의 구조화	
① 진술문 분류, 명칭 부여	112
② 중요도 평정	112
라. 개념도 분석	
① 다차원 척도분석, 위계적 군집분석, 중요도 평정	113
마. 개념도 해석	
① 차원명, 군집명 정하기	113
바. 개념도 활용	
3. 연구 결과 : 기초조사	114
가. 프로그램 참여자	
① 인구학적 특성	114
② 고립의 객관적 수준	115
③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경험	120
④ 일상 경험	122

나. 복지사·간호직 공무원	
① 인구학적 특성	125
② 주민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식 정도	126
4. 연구 결과 : 개념도 연구	129
4-1. 고립 요인에 대한 집단별 개념도	
가. 주민이 생각하는 고립 요인에 대한 최종 진술문	
① 주민의 다차원척도 분석	130
②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개념도	134
나. 복지사·공무원이 생각하는 고립 요인에 대한 최종 진술문	
① 복지사·공무원의 다차원척도 분석	137
②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141
4-2.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집단별 개념도	
가. 주민이 생각하는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최종 진술문	
① 주민의 다차원척도 분석	144
②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개념도	148
나. 복지사·공무원이 생각하는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최종 진술문	
① 복지사·공무원의 다차원척도 분석	151
②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155
4-3. 고립 요인의 개념도에 나타난 집단별 인식 비교	
4-4.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개념도에 나타난 집단별 인식 비교	
4-5. 고립의 요인,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중요도	
가. 고립 요인의 내용별 중요도	
① 주민 집단	161
② 복지사·공무원 집단	164
나.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내용별 중요도	
① 주민 집단	166
② 복지사·공무원 집단	169
5. 시사점	171

VI.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173
1. 지역사회 측면	174
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의 자치(마을)계획 내 ‘고립감 완화를 위한 돌봄기능’ 계획 수립	
나. 촘촘한 안전망으로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위험 가구를 발굴	
2. 복지·보건 측면	178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화예술 분야 실무분과 구성	
나.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 방안 수립	
다. 마을복지계획을 통한 주민주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라. 커뮤니티케어에서 돌봄활동가의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인의 돌봄활동 지원	
마. 지역사회 통합돌봄 생태계(공유공간)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문화예술 측면	183
가. 지역 매핑을 통한 커뮤니티 자원의 지속적 연결로 돌봄사각지대를 완화	
① 플랫폼 주체	185
② 플랫폼 공간	185
③ 지역예술생태계	185
나. ‘문화적 프로브’ 접근으로 실제 고립 위험을 대처하고 일상 활동 디자인	
① 문화적 프로브(Cultural Probes) 방식을 활용하여 고립 위험의 주관적 경험 파악	186
② 개인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필요	187
다. 예술의 치유적 속성을 담은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① 예술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필요	187
② 초기 단계부터 심리 건강에 대한 전문적 개입 필요	188
③ 돌봄 인력의 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및 예술가의 재교육 필요	189
4.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 제안	190
가. 문화예술형 민관 돌봄 통합시스템	
① 1안. 민관협력형 문화예술 돌봄	190
② 2안.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191
③ 3안. 민간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191
나. 개인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된 문화돌봄 공간 필요	
다. 부산시 외로움 조례 내 예술 처방 프로그램을 명시	
라.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의 모든 참여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 필요	
5. 마무리	194
* 참고문헌	195

표 차례

[표 1] 전국 및 부산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2017년~2021년 11월)	19
[표 2] 전국 및 부산시 인구 증감률(2017년~2021년 11월)	20
[표 3] 부산시 자치구별 고령인구비율(2021년 11월 기준)	21
[표 4] 영도구 연령대별 순이동(2017~2020년)	22
[표 5] 부산시 자치구별 1인가구 비율(2016년~2020년)	22
[표 6] 부산시 자치구별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2016년~2020년)	23
[표 7] 영도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20)	25
[표 8] 영도구 65세이상 노인 인구 현황(2020)	25
[표 9] 영도구 장애인 등록 현황(2019)	26
[표 10] 사회보장관련 기관 현황(2018)	26
[표 11] 유형별 동별 아동 노인복지관련 기관 현황(2018)	27
[표 12] 유형별 동별 아동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현황(2018)	28
[표 13] 유형별 동별 아동·청소년복지관련 기관 현황(2018)	28
[표 14] 유관단체 현황(2018)	29
[표 15]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사업	30
[표 16]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	31
[표 17]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	32
[표 18]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	33
[표 19]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	34
[표 20] 영도구노인복지관 본관 사업	36
[표 21] 영도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37
[표 22] 2021년 영도구 공통공시 총괄표	39
[표 23] 2022년 영도구 기능별 세출총괄표	39
[표 24] 인구 십만명당/면적당 문화기반시설 현황	40
[표 25] 부산시 자치구별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현황	41
[표 26] 영도구 내 문화기반시설 명단	42
[표 27] 문화향유권 및 문화접근권과 관련된 영역과 구성요소	75
[표 28] 따뜻한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	76
[표 29]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연령별 발급 이용 현황	81
[표 30]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이용 현황	82
[표 31]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분야별 이용 현황	82
[표 32] 2020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업 유형별 실적	82
[표 33] 2020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프로그램 수 및 관객 수	83
[표 34] 사회분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현황(2005~2020)	85
[표 35] 부처 간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2015~2020)	86
[표 3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 현황(2015~2020)	87
[표 37] 개념도 연구에 참여한 주민참여자 기본정보	106
[표 38] 개념도 연구에 참여한 복지사·공무원 기본정보	107
[표 39] 연구참여자 집단별 초점질문과 도움(길라잡이) 하위 질문	107

[표 40] 초점질문 1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초 진술문 주제별 분류	109
[표 41] 초점질문 2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초 진술문 주제별 분류	110
[표 42] 초점질문 1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초 진술문 주제별 분류	111
[표 43] 초점질문 2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초 진술문 주제별 분류	111
[표 44] 프로그램 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114
[표 45] 고립의 객관적 수준(연락)	115
[표 46] 고립의 객관적 수준(만남)	118
[표 47] 사회복지사·간호직 공무원 인구학적 특성	125
[표 48]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 최종 진술문	129
[표 49]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종 군집별 진술문	134
[표 50]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종 진술문	136
[표 51]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종 군집별 진술문	140
[표 52]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종 진술문	143
[표 53]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종 군집별 진술문	147
[표 54]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종 진술문	150
[표 55]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종 군집별 진술문	154
[표 56]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비교	157
[표 57]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비교	159
[표 58]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중요도	161
[표 59]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군집별 중요도	163
[표 60]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중요도	164
[표 61]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군집별 중요도	165
[표 62]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중요도	166
[표 63]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군집별 중요도	167
[표 64]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중요도	169
[표 65]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군집별 중요도	170
[표 66]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정리	175
[표 67] 지구별 사례관리에 따른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구분	184

그림 차례

[그림 1] 전국 및 부산시, 영도구 인구 증감률 비교	20
[그림 2] 전국 및 부산시, 영도구 1인가구 비율 비교	23
[그림 3] 전국 및 부산시, 영도구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비교	24
[그림 4] 영도구 문화기반시설 위치도	42
[그림 5]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상세 목록 재구성	43
[그림 6] 커뮤니티 플랫폼 문화자원 상세 목록 재구성	44
[그림 7] 커뮤니티 콘텐츠 문화자원 상세 목록 재구성	45
[그림 8] 커뮤니티 콘텐츠 문화자원 상세 목록 재구성	45
[그림 9] 커뮤니티케어 참여 자원과 기능	54
[그림 10] 공창 어울락(어울림센터) 휴식공간 및 활동 내용	59
[그림 11] 동원 어울락(어울림센터) 신체활동 공간 및 활동 내용	59

[그림 12] 만덕 어울락(어울림센터) 전경 및 활동 내용	60
[그림 13] 덕천 어울락(어울림센터) 문화활동 공간 및 활동 내용	60
[그림 14] 남산정 어울락(어울림센터) 다도공간 및 활동 내용	60
[그림 15] 부산진구 온마을돌봄센터 문화예술 활동	62
[그림 16] 사하구 복지정거장 사업 목표	63
[그림 17] 사하구 복지정거장 참여자 이용 순서	63
[그림 18] 사하구 복지정거장 완공 후 전체모습	64
[그림 19] 사하구 복지정거장 실내 모습 _ 욕구카드, 혈압기	64
[그림 20] 사하구 복지정거장 실내 모습 2 _ 미션 박스	64
[그림 21] 헝가리 아담 모세르(우)와 프랑스 스테파네 세네살이(좌)의 발코니 공연	70
[그림 22] 코로나에 대항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	70
[그림 23] ‘원 월드: 투게더 앳 홈(The One World : Together At Home)’ 캠페인 외	71
[그림 24]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백신TFT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	73
[그림 25] 문화활동과 문화권에 근거한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74
[그림 26]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75
[그림 2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및 수혜 인원 현황	79
[그림 2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체계도	80
[그림 29] 공연나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개념	84
[그림 30] ‘착한 그물’ 사업 활동사진	88
[그림 31] 서울예술치유허브 외관 및 내부 사진	89
[그림 32] 예술치유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2017년, 2020년)	90
[그림 33] 명랑마주꾼의 다양한 ‘작업’ 사진	92
[그림 34] ‘아현동 쓰리룸’ 공연&집밥모임 사진	92
[그림 35] ‘언뜻, 가게’ 외부 사진	93
[그림 36] ‘반쪽’ 모임 포스터 및 활동사진	94
[그림 37] ‘청년머슴’ 포스터 및 활동사진	95
[그림 38] ‘STAY.G’ 1, 2층 내부 공간 사진	96
[그림 39] ‘STAY.G’ 1인가구 활력지원 프로그램 사진	97
[그림 40] ‘나비남’ 영화제 포스터, 예술교육 및 자조모임, ‘50스타트 센터’ 리플렛	98
[그림 41] ‘카네이션하우스’ 외관 및 활동사진	99
[그림 42] ‘1인가구 공동체 공동부엌 지원사업’ 모집공고 포스터 및 안산·의정부 활동사진	101
[그림 43]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동거인 수, 홀로 거주 시기	114
[그림 44]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부모, 형제자매)	116
[그림 45]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배우자(연인), 자녀)	116
[그림 46]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친족, 이웃주민)	116
[그림 47]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모임(단체)회원, 친구)	117
[그림 48]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온라인 지인, 기타)	117
[그림 49]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부모, 형제자매)	118
[그림 50]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배우자(연인), 자녀)	119
[그림 51]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친족, 이웃 주민)	119
[그림 52]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모임(단체)회원, 친구)	119
[그림 53]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온라인 지인, 기타)	120

[그림 54]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경험 (최근 1~3년 사이)	120
[그림 55]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121
[그림 56] 향후 문화예술 행사 활동 참여 의향	121
[그림 57]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122
[그림 58] 일상 경험 - 일과 / 불규칙한 이유	122
[그림 59] 일상 경험-오전(6:00~12:00)에 주로 하는 일	123
[그림 60] 일상 경험-오후(13:00~18:00)에 주로 하는 일	123
[그림 61] 일상 경험 - 저녁(19:00~24:00)에 주로 하는 일	123
[그림 62] 일상 경험 - 하루 중 외출시간	123
[그림 63] 일상 경험 - 외출하는 이유, 일주일 중 외출 횟수	124
[그림 64] 인구학적 특성 - 최근 주요 사례관리 대상자 특성	126
[그림 65] 주민에 대한 인식 - 고립 상황	126
[그림 66] 주민에 대한 인식 - 고립이 심해지고 있는 정도, 사회활동 의지	127
[그림 67] 주민에 대한 인식 - 문화예술 관련 행사(활동) 관심 및 참여 가능 정도	127
[그림 68] 주민에 대한 인식 -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정도,	127
[그림 69]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30
[그림 70]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텐드로그램	132
[그림 71]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개념도	134
[그림 72]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37
[그림 73]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텐드로그램	139
[그림 74]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141
[그림 75]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44
[그림 76]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텐드로그램	146
[그림 77]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개념도	148
[그림 78]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51
[그림 79]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텐드로그램	153
[그림 80]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155
[그림 81] 문화도시 영도 2025 추진전략 및 핵심 가치	173
[그림 82] 영도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구성체계	179
[그림 83]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	180
[그림 84] 마을복지계획과 마을계획의 차이	181
[그림 85] 공공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체계	190
[그림 86]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체계	191
[그림 87] 민간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체계	192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영도구는 부산시 16개 구 중 유일한 단일섬 자치구로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2021년 전체 예산 중 59.8%가 복지 예산으로 편성될 정도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결핍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영도구는 부산시의 자치구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서 2024년까지 영도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 격차 해소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에 문화적 결핍의 요인 및 해결방안을 찾아 장·단기적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립’을 영도구의 문화적 결핍 요인 중 하나로 주목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영도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괴리되고 단절된 주민들과의 연결점을 찾으며 고립감의 완화를 위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수, 세대 구성, 재정자립도 등에서 나타난 영도구의 결핍 요소를 ‘사회적 배제에 따른 비자발적 고립’으로 보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영도 모델 개발’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공공기관 중심의 복지제도가 가진 공급의 한계가 다다른 상황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돌봄’, 문화예술의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합쳐진 모델을 의미한다. 고립의 속성을 밝히고자, 주민과 복지사, 공무원에게 고립 요인, 고립 완화 방법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진행한 후,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를 통해 도출한 고립과 고립 완화 방법의 결과를 모델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영도 모델 개발’ 연구는 영도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공무원,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공동체, 문화도시센터, 예술가, 연구자, 활동가들이 기존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인 커뮤니티케어를 예술적 개입으로 보완하여 건강한 의존과 지지체계를 갖춘 자립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즉, 현재 지역사회에서 작동 중인 다양한 민관 협력 체계에 문화예술 관련 법령, 제도, 구조, 콘텐츠, 네트워크 등을 보완하여 실제 주민의 삶 속에서 고립을 완화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사회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 및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여 급변하는 영도구의 사회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도모한다.

2. 연구 범위 및 절차

가. 연구 범위

영도문화도시센터는 고립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주민 40명을 영도구청과 8개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연계하여 추천을 받았고, 해당 주민들과 함께 본 연구와 예술 처방 프로그램 <똑똑똑 예술가>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연구팀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정립, 기초 조사의 설문 개발, 개념도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고립 요인 및 완화 방법의 분석, 주민 연구참여자와 복지사·공무원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참관, <똑똑똑 예술가> 공동 워크숍 구성 및 진행, FGI 추진, 개념도 연구 등의 실행연구를 담당하였다. 예술 처방 프로그램 <똑똑똑 예술가>는 약 7개월 동안 시각, 문학, 도자, 음악 분야 8명의 예술가가 주민 40여 명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약 200회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와 <똑똑똑 예술가>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 연결을 중요시하여 주민, 복지사, 간호직 공무원 등의 연구참여자를 해당 인원들 안에서 선정하였고, 복지사와 간호직 공무원, 예술가들에게 주민 연구 참여자와의 연락과 동행 방문, 피드백 등의 도움을 받았다.

① 공간적 범위 및 연구참여자

- 영도구 8개동(남항동, 신선동, 동삼1동, 동삼3동, 영선2동, 봉래2동, 청학1동, 청학2동)의 복지팀과 영도구청의 도움으로 각 동의 사례관리자 중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민 40명을 추천받았다. 각 동의 간호직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총 28명의 기초 조사를 진행하였고, 연구진은 그중 13명의 주민을 직접 만나서 사회적 고립의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세웠다.
- 주민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현재 1인 생활자, 간헐적 공공근로 참여자로 한정을 지었고 연령과 성별비율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동별 비율은 고려했다. 이 결과, 영도구에 거주하는 주민 남성 6명, 여성 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진행 중, 남성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락하여 최종 주민 연구참여자는 총 8명이다.
- 복지사·공무원 연구참여자는 총 7명으로, 영도구 내의 4개의 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5명과 간호직 공무원 1명, 사회적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 1명이다. 사회복지사 5명의 경우, 연구진의 추천을 우선시하여 섭외하였고 간호직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는 주민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알게 되어 본 연구의 참여를 부탁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Ⅴ. 영도 내 사회적 고립에 관한 개념도 연구’의 ‘2. 연구 절차’에 기술하였다.

② 내용적 범위 및 연구 순서

○ 선행 연구 분석

-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의 각 영역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비자발적 고립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정책, 제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완화의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부산 지역 내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인 커뮤니티케어의 현황, 복지관에서 조성한 문화활동 공간,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 구조화 및 특정 대상자 인터뷰

- 고립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의 사례관리 단계인 인테이크 방식을 적용한 기초 설문 조사지를 설계·구조화하였고, 고립의 요인과 완화의 방법을 파악하고자 외로움, 고독, 사회적 배제 등의 관계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조사하여 개념도 연구의 초점질문을 선정하였다. 이후, 주민 40명 중 특정 대상자 8명의 인터뷰를 참관하였다.

○ 연구 조사 및 분석

- 첫 번째, 주민 40명을 방문하여 기초 조사를 진행할 사회복지사·통합사례관리사·간호직 공무원·예술가가 사용할 설문 조사지, 연구윤리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
- 두 번째, 주민 40명의 기초 조사지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Ⅴ. 영도 내 사회적 고립에 관한 개념도 연구’의 ‘3. 연구결과:기초조사’에 기술하였다.
- 세 번째, 주민 연구참여자 8명과 복지사·공무원 연구참여자 7명의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단계로서 분류하고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그 결과로 고립 요인과 고립 완화의 방법을 개념도로 나타내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Ⅴ. 영도 내 사회적 고립에 관한 개념도 연구’의 ‘4. 연구결과:개념도 연구’에 기술하였다.
- 네 번째, 선행 연구 결과,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의 조사 결과, 개념도로 도출된 결과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영도 모델 개발’에 적용하여 모델을 생성하여 제시하였다.

○ 전문가 자문 및 평정 (총 2회)

- 사회적 고립, 커뮤니티케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슈에 대해 도움말을 줄 수 있는 복지, 사회학, 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개념도 연구 내 초점질문과 최종 진술문의 문장을 평정하였다.

○ <똑똑똑 예술가> 공동워크숍 기획 및 운영(총 1회) / FGI (총 2회)

-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40명의 주민을 조사할 행정복지센터의 간호직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예술가를 대상으로 연구 및 설문 목적, 설문 구성, 설문 조사 방법 등을 설명하는

공동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 고립의 개념, 고립의 완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현재 영도구의 현안, 주민 공동체, 지역복지기관의 역할 등을 파악하고자 주민 대상 FGI는 1회, 지역복지기관 실무자·간호직 공무원은 1회, 총 2회의 FGI를 진행하였다.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영도 모델 개발

- 문화도시의 해법으로 문화예술·사회복지·지역사회와 연계한 영도형 커뮤니티케어의 모델을 제안하여 향후 방향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II. 영도구 현황

1. 인구 현황

가. 영도구 인구 현황

①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의 부산시와 영도구

2021년 11월 기준 영도구의 인구수는 110,901명, 세대수는 54,721호, 인구밀도는 7,810명/km²이다. 최근 5년 간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인구는 2017년 52,950,306명에서 2019년까지 53,121,668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여 2021년 현재 51,652,70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부산광역시는 2017년 3,513,490명에서 2021년 3,353,62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영도구 역시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2017년 125,113명에서 2021년 110,90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1월)	증감 (2021-2017)
전국	52,950,306	53,072,685	53,121,668	52,974,563	51,652,704	-1,297,602
부산광역시	3,513,490	3,487,191	3,459,840	3,432,312	3,353,627	-159,863
중구	45,851	44,639	43,844	43,393	40,556	-5,295
서구	111,712	112,377	110,106	109,826	105,406	-6,306
동구	90,370	88,626	89,959	90,574	87,770	-2,600
영도구	125,113	121,704	118,372	114,913	110,901	-14,212
부산진구	373,987	364,819	360,541	362,216	353,769	-20,218
동래구	271,672	267,452	272,214	271,676	266,570	-5,102
남구	278,861	285,635	280,411	272,754	262,856	-16,005
북구	304,753	299,266	293,412	286,002	283,584	-21,169
해운대구	415,943	413,386	410,126	405,664	397,071	-18,872
사하구	337,432	332,062	325,264	315,575	306,421	-31,011
강서구	122,647	128,204	134,692	142,382	142,768	20,121
금정구	248,589	247,389	243,535	236,207	228,936	-19,653
연제구	207,519	208,625	210,221	209,924	205,742	-1,777
수영구	181,261	177,566	177,428	178,124	175,389	-5,872
사상구	234,131	228,542	223,036	216,705	208,727	-25,404
기장군	163,649	166,899	166,679	176,377	177,161	13,512

[표 1] 전국 및 부산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2017년~2021년 11월)

출처: 통계청@지역통계총괄과

현재 인구 감소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을 비교하면 전국 -0.46%, 부산시 -1.08%, 영도구 -2.83%로 다소 큰 폭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부산시에서 중구와 영도구, 사상구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고, 인구가 증가한 곳은 강서구와 기장군 두 곳뿐이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1월)
전국	0.17	0.23	0.09	-0.28	-2.50
부산광역시	-0.76	-0.75	-0.78	-0.80	-2.29
중구	-2.25	-2.64	-1.78	-1.03	-6.54
서구	-2.48	0.60	-2.02	-0.25	-4.02
동구	-1.06	-1.93	1.50	0.68	-3.10
영도구	-2.28	-2.72	-2.74	-2.92	-3.49
부산진구	-1.28	-2.45	-1.17	0.46	-2.33
동래구	-0.73	-1.55	1.78	-0.20	-1.88
남구	-1.33	2.43	-1.83	-2.73	-3.63
북구	-2.26	-1.80	-1.96	-2.53	-0.85
해운대구	-1.86	-0.61	-0.79	-1.09	-2.12
사하구	-0.45	-1.59	-2.05	-2.98	-2.90
강서구	0.00	-0.48	-1.56	-3.01	-3.08
금정구	7.27	4.53	5.06	5.71	0.27
연제구	-0.25	0.53	0.77	-0.14	-1.99
수영구	0.38	-2.04	-0.08	0.39	-1.54
사상구	-1.47	-2.39	-2.41	-2.84	-3.68
기장군	1.88	1.99	-0.13	5.82	0.44

[표 2] 전국 및 부산시 인구 증감률(2017년~2021년 11월)

출처: 통계청@지역통계총괄과



[그림 1] 전국 및 부산시, 영도구 인구 증감률 비교

② 부산시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2021년 11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전국이 17.1%, 부산시가 20.3%이다. 영도구는 28.8%로 전국보다 11%p 이상, 부산시 전체보다 8%p 이상 높았으며, 16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서구로 영도구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	고령인구비율 ($A \div B \times 100$) (%)	65세 이상 인구(A) (명)	전체 인구(B) (명)
전국	17.1	8,821,070	51,652,704
부산광역시	20.3	679,367	3,353,627
중구	27.5	11,171	40,556
서구	26.1	27,487	105,406
동구	27.0	23,731	87,770
영도구	28.8	31,901	110,901
부산진구	20.4	72,171	353,769
동래구	19.3	51,559	266,570
남구	21.0	55,250	262,856
북구	18.4	52,240	283,584
해운대구	18.4	73,030	397,071
사하구	20.2	61,989	306,421
강서구	12.4	17,735	142,768
금정구	22.0	50,300	228,936
연제구	20.4	42,016	205,742
수영구	22.2	38,860	175,389
사상구	19.5	40,715	208,727
기장군	16.5	29,212	177,161

[표 3] 부산시 자치구별 고령인구비율(2021년 11월 기준)

출처: 통계청@지역총괄과 「고령인구비율」

③ 영도구 전출인구의 다수는 20·30대

최근 5년간 영도구의 연령대별 순이동 수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700명 이상 전출한 20대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전출했음을 알 수 있다. 30대는 2017년 552명, 2018년 697명, 2019년 715명, 2020년 535명으로 2018~2019년 사이 전출인구가 점차 증가하다가 2020년에 다소 감소하여 2017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40대는 2017년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300명 이상 증가한 후 현재 약 400명 가까이 전출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영도구를 빠져나가는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20·30대의 전출인구 수가 감소한 이유는 청년들이 이미 빠져나가, 더는 빠져나갈 청년인구의 수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2,249	-2,696	-2,574	-2,479
19세 이하	-237	-274	-280	-350
20~29세 이상	-739	-781	-730	-691
30~39세 이상	-552	-697	-715	-535
40~49세 이상	-260	-341	-334	-385
50~59세 이상	-157	-221	-231	-217
60~69세 이상	-182	-243	-164	-134
70~79세 이상	-97	-92	-88	-80
80세 이상	-25	-47	-32	-87

[표 4] 영도구 연령대별 순이동(2017~2020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단위: 명

④ 전국과 부산시보다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영도구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1인가구의 급증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 현상이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의 1인가구 증가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1인가구 비율은 31.7%, 부산시는 32.4%, 영도구는 37.5%로 영도구의 1인가구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5년간의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이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3.8%p 증가했으며, 부산시가 27.7%에서 32.4%로 4.7%p 증가, 영도구는 32%에서 37.5%로 5.5%p 증가했다. 즉 영도구는 1인가구가 전국과 부산보다 많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역	1인가구비율 (A÷B×100)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27.9	28.6	29.3	30.2	31.7
부산광역시	27.7	28.7	29.7	30.7	32.4
중구	42.1	43.1	43.7	45.3	48.8
서구	34.4	35.3	35.9	37.9	38.9
동구	34.6	35.7	36.8	37.6	39.0
영도구	32.0	32.5	33.6	34.5	37.5
부산진구	31.7	33.0	34.1	35.4	37.5
동래구	23.9	24.5	25.2	26.0	27.4
남구	27.9	28.7	29.0	30.2	31.6
북구	23.5	24.5	25.3	26.4	27.8
해운대구	23.8	25.0	25.8	26.9	28.3
사하구	26.3	27.2	28.4	29.3	31.0
강서구	23.3	23.6	24.5	24.7	26.1
금정구	31.4	32.3	33.3	34.3	36.1
연제구	25.6	26.9	27.9	29.0	30.4
수영구	29.4	30.7	32.5	34.0	36.1
사상구	28.3	29.6	30.7	32.0	34.1
기장군	22.8	24.4	25.6	26.8	27.6

[표 5] 부산시 자치구별 1인가구 비율(2016년~2020년)

출처: 통계청@지역총괄과 「2016년~2020년 1인가구비율」



[그림 2] 전국 및 부산시, 영도구 1인가구 비율 비교

⑤ 타 자치구에 비해 고령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1인가구의 증가 요인은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비혼과 만혼, 비자발적 독신층 증가, 맞벌이·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타 지역으로의 진학·취업 등 매우 다양하다. 그중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는 빈곤, 질병, 소외와 고립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고독사로 직결될 위험성이 높다. 최근 5년간의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이 2016년 6.7%에서 2020년 7.9%로 1.2%p 증가했으며, 부산시가 7.7%에서 9.7%로 2%p 증가, 영도구가 11.7%에서 14.7%로 3%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도구는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부산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독거노인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65세 이상 1인가구비율($A \div B \times 100$)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6.7	7.0	7.2	7.5	7.9
부산광역시	7.7	8.1	8.6	9.1	9.7
중구	11.7	12.0	13.0	13.4	14.5
서구	11.4	11.8	12.3	12.7	13.4
동구	12.9	13.4	13.8	13.9	14.3
영도구	11.7	12.4	13.3	14.1	14.7
부산진구	7.9	8.3	8.7	9.1	9.5
동래구	6.9	7.3	7.7	8.1	8.8
남구	7.1	7.6	7.9	8.2	8.9
북구	7.2	7.8	8.4	9.1	9.9

해운대구	6.9	7.4	7.9	8.4	9.0
사하구	7.0	7.5	8.1	8.9	9.8
강서구	4.9	4.8	5.0	4.8	5.1
금정구	7.4	7.9	8.4	9.0	9.7
연제구	6.9	7.3	7.8	8.4	9.0
수영구	7.4	7.7	8.2	8.8	9.3
사상구	7.0	7.5	8.1	8.8	9.6
기장군	6.6	7.1	7.4	7.9	8.0

[표 6] 부산시 자치구별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2016년~2020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 전국 및 부산시, 영도구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비교

2. 사회복지 현황

가. 영도구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영도구의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8,958세대, 11,757명이며 전체인구의 9.5%에 해당된다.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동삼1동, 동삼3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시설수급자 : 170명 포함(청학2동 116명, 동삼1동 54명)

구분		남항동	영선1동	영선2동	신선동	봉래1동	봉래2동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세대	512	164	361	911	366	387
	인원	645	195	484	1,205	450	529
		청학1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2동	동삼3동	계
	세대	454	799	2,317	212	2,475	8,958
	인원	612	1,131	3,190	296	3,020	11,757

[표 7] 영도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20)

출처:영도구청, 「2021 구정백서」

② 영도구 노인 인구 현황

2020년 기준 영도구의 65세 이상 노인수는 31,483명으로 전체인구의 27.8%를 차지하였다. 동별 노인 인구의 경우 동삼1동이 6,621명으로 가장 많으나,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봉래2동 34.8%, 신선동 34.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동	전체 인구 계	65세이상 노인 인구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계	남	여	
영도구	113,342	31,483	13,369	18,114	27.8
남항동	10,996	3,304	1,385	1,919	30.0
영선1동	4,167	1,177	497	680	28.2
영선2동	8,791	2,585	1,096	1,489	29.4
신선동	9,072	3,147	1,276	1,871	34.7
봉래1동	7,280	2,073	863	1,210	28.5
봉래2동	5,234	1,821	756	1,065	34.8
청학1동	6,705	1,948	809	1,139	29.1
청학2동	18,411	4,471	1,972	2,499	24.3
동삼1동	28,740	6,621	2,896	3,725	23.0
동삼2동	3,545	959	428	531	27.1
동삼3동	10,401	3,377	1,391	1,986	32.5

[표 8] 영도구 65세이상 노인 인구 현황(2020)

출처: 행정안전부 연령별 연구현황(2020). 작성자 재정리. (단위: 명, %)

③ 영도구 장애인 등록 현황

2019년 영도구 장애인 등록인원은 9,198명으로 동별 장애인의 경우 동삼1동 2,106명, 동삼3동 1,65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유형이 4,20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정동	전체 인구 계	장애인 등록 계	장애유형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
			지체	뇌병 변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 자폐	정신 장애	신장	기타 (심장, 호흡 기 등)	
영도구	118,628	9,198	4,205	1,008	962	1,277	624	476	426	220	7.8
남항동	11,264	815	402	84	81	125	35	31	32	25	7.2
영선1동	4,301	253	129	22	31	30	17	7	9	8	5.9
영선2동	9,257	616	300	52	54	91	47	30	28	14	6.7
신선동	9,649	841	364	80	103	143	53	43	39	16	8.7
봉래1동	7,579	476	228	57	44	67	22	20	27	11	6.3
봉래2동	5,529	436	210	52	36	83	24	13	16	2	7.9
청학1동	7,168	565	269	56	61	94	29	20	27	9	7.9
청학2동	19,164	1,174	536	143	135	152	88	49	45	26	6.1
동삼1동	29,972	2,106	913	241	224	273	168	121	104	62	7.0
동삼2동	3,815	263	121	26	34	37	21	5	14	5	6.9
동삼3동	10,930	1,653	733	195	159	182	120	137	85	42	15.1

[표 9] 영도구 장애인 등록 현황(2019)

출처: 영도구청 「통계연보」(2020). 작성자 재정리. (단위: 명, %)

나. 영도구 사회복지시설현황

① 사회보장 일반

대상별 시설 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5개, 방문형 서비스 기관이 42개, 푸드뱅크 3개, 작은 도서관 12개,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 모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1개씩 분포되어 있다.

구분	계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자원 봉사 센터	노숙인 복지 시설	종합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여성 한부모 모자 시설	방문형 서비스 기관 현황	푸드 마켓, 푸드 뱅크	작은 도서관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영도구	66	1	1	1	5	1	1	42	3	12	1
남항동	10			1				8		1	

영선1동	2						1		1	
영선2동	2								2	
신선동	2			1				1		1
봉래1동	3						2		1	
봉래2동	3						2		1	
청학1동	1						1			
청학2동	9						6		3	
동삼1동	18		1	2		1	13		2	
동삼2동	0									
동삼3동	16	1		2	1		9	2	1	

[표 10] 사회보장관련 기관 현황(2018)
출처: 영도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8)」

② 노인시설

영도구 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은 154개로 경로당이 46.1%로 가장 많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23.4%, 노인교실 8.4%, 재가노인복지시설 5.8% 순으로 나타난다. 동별로 보면 노인복지기관 수는 동삼1동이 36개로 가장 많고, 청학2동 29개, 남향동 20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삼1동과 청학2동은 절반 이상이 경로당인 것에 비해 남향동은 노인복지관련 기관이 종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계	노인 복지관	시니어 클럽	경로 식당	무료 급식소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노인 교실	경로당	노인 쉼터
영도구	154	1	1	6	6	5	36	9	13	71	6
남향동	20	1	1	1	1		6	2	2	5	1
영선1동	4						2		1	1	
영선2동	7						2		1	4	
신선동	15			1	1		1	2	2	7	1
봉래1동	6						2	1		3	
봉래2동	7						2		1	4	
청학1동	12					2	2			6	2
청학2동	29					3	8		1	16	1
동삼1동	36			2	2		8	2	3	18	1
동삼2동	3									3	
동삼3동	15			2	2		3	2	2	4	

[표 11] 유형별 동별 아동 노인복지관련 기관 현황(2018)
출처: 영도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8)」

③ 장애인 시설

영도구 내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은 19개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기관이 5개(26.3%), 장애인 재활치료 기관이 5개(26.3%)로 가장 많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 장애인 생활시설 2개, 장애인 복지관, 의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이 각각 1개가 있다.

동별로 보면 장애인 시설은 동삼1동에 10개가 집중되어 있고, 동삼3동, 청학2동, 신선동에만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다. 영도구 장애인의 경우 동삼1동과 3동, 청학동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동에도 장애인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동에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

구분	계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영도구	19	2	1	1	5	4	1	0	5
남항동	0								
영선1동	0								
영선2동	0								
신선동	2				1	1			
봉래1동	0								
봉래2동	0								
청학1동	0								
청학2동	3	2		1					
동삼1동	10		1		3	2	1		3
동삼2동	0								
동삼3동	4				1	1			2

[표 12] 유형별 동별 아동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현황(2018)

출처: 영도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8)」

④ 아동·청소년 시설

영도구 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16개로 지역아동센터가 11개(73.3%)로 가장 많고, 지역 내 아동 공동생활 가정 1개,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지원센터가 2개, 아동양육시설이 1개가 있다.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영도구	16	1	2	11	2
남항동	0				
영선1동	1			1	
영선2동	0				
신선동	2			2	

봉래1동	1			1	
봉래2동	0				
청학1동	2		2		
청학2동	2	1		1	
동삼1동	6			4	2
동삼2동	1			1	
동삼3동	1			1	

[표 13] 유형별 동별 아동·청소년복지관련 기관 현황(2018)

출처: 영도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8)」

⑤ 유관단체 현황

영도구 내 유관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15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런 조직은 동별로 매우 밀도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분	계	동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주민 자치 위원회	통장 협의회	방위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	자유 총연맹
영도구	2,615	209	281	219	179	149	171	179	212	234
남항동	292	17	29	22	17	18	19	14	16	35
영선1동	190	24	27	8	15	9	11	11	17	22
영선2동	220	19	22	16	28	12	4	13	14	15
신선동	269	18	24	25	15	17	17	33	16	13
봉래1동	202	17	24	11	19	14	14	6	19	22
봉래2동	202	20	24	12	10	8	8	11	33	26
청학1동	177	14	26	13	10	9	13	13	21	25
청학2동	226	24	30	31	11	16	24	19	6	22
동삼1동	456	24	31	49	28	24	31	26	39	44
동삼2동	182	12	25	8	16	10	18	21	15	10
동삼3동	199	20	19	24	10	12	12	12	16	0

구분	청년회	경로당 회장단 협의회	적십자부 녀봉사회	발견 협의회	청소년 지도 협의회	향토문화 동호회	위킹클럽	기타동 자생단체
영도구	144	33	36	55	9	42	363	100
남항동	34						71	
영선1동							46	
영선2동	11						56	10
신선동	11					10	13	57
봉래1동				18			38	
봉래2동				10			40	
청학1동	22							11
청학2동	18	16	9					
동삼1동	15	17	11	22	9	32	43	11
동삼2동	17						19	11
동삼3동	16		16	5			37	

[표 14] 유관단체 현황(2018)

출처: 영도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8)」

다. 복지기관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아래의 복지기관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매년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술된 프로그램은 운영 경험이 있고, 운영 역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영역의 문화예술 관련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① 종합사회복지관

○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사업으로 지역사회 보호사업, 자활지원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교육문화사업, 통합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복지 서비스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서비스
		반찬서비스
		아동급식 서비스
		영세가정 결연후원
		오병이어 서비스

		과일도시락 서비스
		재가어르신 생신잔치
		난방비지원 서비스
	자활 지원 사업	노장케어 (老障-care)
		호루라기 순찰단
	가족기능강화사업	신세계 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영도관
		징검다리교실
		희망바라기
	교육문화사업	영도구 노인교실
	통합발달지원서비스	통합발달지원서비스

[표 15]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사업
출처: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2021). 작성자 재정리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제공사업으로 지역사회 보호사업, 자활사업, 가족기능 강화 사업, 교육문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정서지원 서비스	상담서비스
		경제지원 서비스	청소년장학금지원사업
		보건의료서비스	보건기관연계사업
			의료용품지원사업
		급식 서비스	사랑의도시락배달(식사배달사업)
			노인가정 밑반찬 지원사업
			재가가정 밑반찬 지원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일상생활서비스	세탁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3UP” season3
		정서 서비스	다정다감 이웃방문단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공시설봉사(공익형)
	가족기능 강화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프로젝트 “성(性)장 놀이터”
			발달장애청소년의 통합예술을 통한 자기표현력 향상 프로그램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어울림 프로젝트

			“희망쓰기 시즌2-희망공유”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진로체험 및 부모교육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학습교실
			방학특강
			피아노교실
		노인여가문화	동삼한글사랑방
			난타, 날다!
			동삼노인대학
		문화복지사업	경로잔치
			주민발표회

[표 16]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
출처: 동삼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2021). 작성자 재정리

○ 와치종합사회복지관

-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제공사업으로 지역사회 보호사업, 자활지원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교육문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노인·장애인 무료급식	경로식당
			식사배달
			밀반찬
		무료 목욕서비스	
		경제적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지원	교육
			난방용품
			틀니
		각종행사	경로잔치
			나들이
			명절선물 전달
			김치 지원
		노인생활자립 프로그램	다인식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자활지원 사업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마실봉사단

			취약계층 지원-수호천사단
			공공시설 봉사-해피청결단
	가족기능 강화사업	꿈나무네트워크	학교폭력 예방교육
			나눔교육
			진로탐색교육
			청소년봉사학교
			징계청소년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교육문화 사업	모자이크 미술 교실	
		청춘대학	
		동화야 놀자	
		평생학습동아리	
		어르신한글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표 17]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
출처: 와치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2021). 작성자 재정리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제공사업으로 지역사회 보호사업, 자활지원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교육문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남성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국가대표
		영구임대아파트 노인세대 보호체계 구축 프로그램	가가호호 행복지킴이
		지역주민 행복증진사업	BMC 행복나눔
		어르신 웰다잉 자아통합 프로그램	인생학교
		어르신 생신외식서비스	행복드림잔치
		경로식당	
		식사배달서비스/밑반찬배달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월드비전 부산지역본부 사랑의 도시락 사업	주말에 뭐먹니
		결연후원금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	
		결연서비스	신학기 지원사업
			겨울 난방비 지원
		이미용/ 방문이미용 서비스	
		세탁서비스	

		주거위생개선프로그램	BMC 홈닥터
		김장김치지원서비스	
		명절선물지원서비스	
		찾아가는 해피 생일상	
	자활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절영클린봉사단
			공원·놀이터정비단
			친환경EM활용 환경개선봉사단
	가족기능강화사업	자활근로사업	
		청소년 학습지도	청소년 한마음 공부방
		학교연계사업	스쿨브릿지
		어린이나눔교육	나누면 행복해요
		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그린나래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영도의 건강한 아이들
		절영통합치료센터	
		장애아동 학부모 교육	
	교육문화사업	절영은빛노인대학	구구팔팔 청춘학당
		성인문해교실	글다방
		노인건강프로그램	실버라인 댄스교실

[표 18]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

출처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2021). 작성자 재정리

○ 상리종합사회복지관

-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제공사업으로 지역사회 보호사업, 자활지원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교육문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무료급식사업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하트도시락	
		내외부 위기가정 지원사업	
		하트밑반찬	
		내과진료	
		시니어 해피라이프 시즌2	

		방문 이미용서비스	
		무료 이미용서비스	
		요쿠르트제공서비스	
		어르신 생신잔치	
		후원물품 및 절기물품지원	
		복지관 후원금	
		외부 결연후원금	
	자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활근로지원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아동	배움방교실
			연극동아리
			내 마음이 들리니
		청소년	학교징계청소년 사회봉사프로그램 ‘나 바로 세우기’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해피클래스’
			장애청소년 제과제빵 프로그램 ‘스타쉐프’
			저소득 청소년가정 학원비 지원 프로그램 ‘점프교실’
			저소득, 위기가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희망의 사다리’
	교육문화 사업	아동	미술/피아노
			성악/바이올린/기타
			장난감대여센터 및 육아용품 대여점
		성인	한글교실
			노인대학
		지역행사	경로잔치

[표 19]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
출처 : 상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2021). 작성자 재정리

② 노인복지관

○ 영도구노인복지관

-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본관 사업 중 노년 사회화 교육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특화사업으로 볼 수 있다.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본관사업	노년사회화 교육사업	취미 여가 지원사업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리듬댄스
			라인댄스
			우리춤체조
			민요장구
			트롯댄스
			하모니카(중급)
			명심보감
			서예교실(기초)
			서예교실(숙련)
		외국어교실	영어교실
			일본어교실
			중국어교실
		미디어교실	스마트폰교실(기초)
			스마트폰교실(활용)
			컴퓨터교실(기초)
			컴퓨터교실(활용)
		문해교실	한글교실(초급)
			한글교실(중급)
	건강생활 지원사업	건강운동 프로그램	단전호흡 I, II
			요가교실
			노인건강체조
		기능회복지원서비스	운동치료
			재활치료
			축탁의 의료상담
		위생관리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세탁서비스
	사회참여 지원사업	아름다운 영도만들기 노인봉사단	클린사업단
			경로식당 급식보조 봉사
			재능나눔봉사
			나눔바자회봉사

		열정더하기 행복나누기 노인동아리	기타 자원봉사
			코로나19 비대면 봉사
			리듬댄스 동아리
			하모니카 동아리
			민요장구 동아리
	특화사업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노인음악 ‘우쿨렐레와 함께 떠나는 여행’
		야쿠르트 지원을 위한 홀로어르신 안부확인 민관네트워킹사업	‘사랑의 야쿠르트’

[표 20] 영도구노인복지관 본관 사업

출처: 영도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1). 작성자 재정리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 영도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영도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지역사회연계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사업 운영 및 사업 영역	가족돌봄나눔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 교육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 교육
			학년전/학년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중년기, 노년기 교육
		남성대상교육	아버지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돌봄참여 및 자기돌봄교육
	가족상담	가족(집단)상담	이혼 전/후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재혼가족상담
			고부갈등상담
			가족관계에 의한 갈등 상담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가족여가 프로그램	
		지역참여 및 나눔행사	
		건강가정 관련 캠페인 등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다양한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장애아를 둔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군인가족
			수령자가족
			재혼가족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연계	
		센터사업 유관관계 연계	

[표 21] 영도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출처: 영도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2021). 작성자 재정리

라. 영도구 사회복지 예산

① 영도구 재정공시

영도구의 20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505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¹⁾ 평균액 4,223억 원보다 718억 원이 적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1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7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4억 원이다.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35%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9.86%이다.

영도구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가 적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 운영의 자립도와 자율성이 낮다.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유형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22개)로서, 부산(영도구, 중구, 서구, 동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중구, 서구, 남구), 인천(동구), 광주(동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중구, 동구)가 해당된다.

재정운영 결과		영도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 21년도 (A)	' 20년도 (B)	증감 (C=A-B)	' 21년도 (A)	'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3,505	3,339	166	4,223	3,871	352
	세출예산 (기금포함)	3,505	3,339	166	4,223	3,871	35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9.35	9.08	0.27	14.95	15.25	△0.30
	재정자주도	29.86	30.83	△0.97	32.97	33.53	△0.56
	통합재정수지	0.2	△2.5	2.7	23	4	19

[표 22] 2021년 영도구 공통공시 총괄표
출처: 영도구청 2021년 재정공시(단위: 억원, %)

② 영도구 사회복지·보건 예산

영도구의 2022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16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3% 증가되었으며, 그중 사회복지 일반의 예산이 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4.87%로 크게 증가되었다. 보건 분야 예산은 6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5% 증가되었다.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사회복지	216,595,144	59.77 %	207,397,134	59.84 %	9,198,010	4.43 %
기초생활보장	57,146,196	15.77 %	52,319,601	15.09 %	4,826,595	9.23 %
취약계층지원	35,457,155	9.78 %	34,655,903	10.00 %	801,252	2.31 %
보육·가족 및 여성	23,450,414	6.47 %	23,132,068	6.67 %	318,346	1.38 %
노인·청소년	97,295,591	26.85 %	94,315,297	27.21 %	2,980,294	3.16 %
노동	1,691,808	0.47 %	1,877,743	0.54 %	△185,935	△9.90 %
보훈	944,062	0.26 %	978,062	0.28 %	△34,000	△3.48 %
사회복지일반	609,918	0.17 %	118,460	0.03 %	491,458	414.87 %
보건	6,717,136	1.85 %	6,193,478	1.79 %	523,658	8.45 %
보건의료	6,691,793	1.85 %	6,169,137	1.78 %	522,656	8.47 %
식품의약품안전	25,343	0.01 %	24,341	0.01 %	1,002	4.12 %

[표 23] 2022년 영도구 기능별세출총괄표
출처: 영도구청 2022년 예산서(단위: 천원)

3.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현황

가. 문화기반시설 현황

① 영도구의 문화기반시설은 절대적 수가 부족, 접근성 측면에서도 재해석 필요

2020년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 3,017개, 부산시 124개, 영도구 8개 시설이 있다.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비교하면 영도구가 7.1개, 부산시 3.7개, 전국 5.8개이다.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비교해도 영도구 0.56개, 부산시 0.16개, 전국 0.03개이다. 따라서 영도구의 문화기반시설은 절대적 수가 부족하나 인구 십만 명당,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부산시는 물론 전국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도구 내 대중교통수단의 부족과 지리적 특징(봉래산)으로 인한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인구와 면적 대비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인구(명)	면적(k㎡)	문화기반시설 수(개)	
				십만명당	면적당
전국	3,017	51,829,023	100,413	5.8	0.03
부산광역시	124	3,391,946	770.07	3.7	0.16
중구	7	41,523	2.83	16.9	2.47
서구	7	108,135	13.96	6.5	0.50
동구	8	88,901	9.86	9.0	0.81
영도구	8	113,342	14.20	7.1	0.56
부산진구	11	359,886	29.67	3.1	0.37
동래구	8	270,745	16.63	3.0	0.48
남구	12	267,731	26.82	4.5	0.45
북구	10	283,952	39.37	3.5	0.25
해운대구	12	402,169	51.50	3.0	0.23
사하구	7	311,757	41.77	2.2	0.17
강서구	4	137,957	181.49	2.9	0.02
금정구	9	232,666	65.26	3.9	0.14
연제구	4	209,157	12.10	1.9	0.33
수영구	5	176,894	10.21	2.8	0.49
사상구	5	212,586	36.10	2.4	0.14
기장군	7	174,545	218.30	4.0	0.03

[표 24] 인구 십만명당/면적당 문화기반시설 현황

출처: 2020 문화기반시설 총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② 미술관이 없으나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문화기반시설 수와 종류가 고른 편

부산시 자치구별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도구에는 8개의 시설이 있어 타 자치구에 비해 수적으로 중상위 수준이며, 문화기반시설도 종류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다만 영도구 내 미술관이 없으나 타 자치구 역시 미술관 없는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영도구의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지역	합계 (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전국	3,017	1,134	897	267	129	256	230
부산시	124	44	31	8	15	11	15
중구	7	1	2	1	2	1	-
서구	7	1	2	1	2	-	1
동구	8	3	-	-	3	1	1
영도구	8	2	3	-	1	1	1
부산진구	11	4	4	-	2	-	1
동래구	8	3	3	-	-	1	1
남구	12	2	6	1	-	2	1
북구	10	5	2	-	1	1	1
해운대구	12	7	-	2	-	2	1
사하구	7	2	1	1	1	1	1
강서구	4	2	1	-	-	-	1
금정구	9	2	3	2	-	1	1
연제구	4	2	1	-	-	-	1
수영구	5	2	-	-	2	-	1
사상구	5	1	2	-	1	-	1
기장군	7	5	1	-	-	-	1

[표 25] 부산시 자치구별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현황
출처: 2020 문화기반시설 총람

③ 주민들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 문화기반시설의 지리적 편중을 극복하려는 노력 필요

남항동에 위치한 영도어린이도서관과 강강이생활문화센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설들은 거의 동삼1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밀집지역임에도 문화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들도 있고, 영도구 내 교통수단의 부족과 봉래산이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한 낮은 교통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의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시설의 운영 주체는 도서관은 모두 공립, 박물관은 국립·공립·대학이 각 1개씩이고,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은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러나 2018년 개설한 강강이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대평동 마을회·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이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어서 예외 경우도 있었다.

나. 커뮤니티 자원 현황

앞서 살펴본 문화기반시설 현황과 달리 커뮤니티 자원은 조직체로서의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주체(사람), 콘텐츠, 시설이나 공간 등도 포함해서 파악해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경성대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조사」 보고서²⁾는 역사·민속·근대자산 등에 기반을 둔 기존의 문헌 중심의 조사가 아닌 문화자원의 현재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였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커뮤니티형 문화자원은 커뮤니티를 포함해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 공간, 콘텐츠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체로서의 커뮤니티만이 아닌 주체의 활동을 통해 패턴화하는 과정 및 결과로서 커뮤니티를 이해하여 현재 영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자원을 목록화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영도의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를 생성하게 된 계기와 활동 목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① 커뮤니티형

커뮤니티형은 현재 주체들이 활동하며 커뮤니티를 이루는 형태를 자원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는 거주지와 관련하여 생성된 마을 커뮤니티와 재주를 중심으로 생성된 제주 커뮤니티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 커뮤니티는 한 동네에 지척으로 살다보니 생성된 거주 커뮤니티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가지게 된 관심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이슈 커뮤니티로 다시 구분된다. 또한 제주 커뮤니티는 자신의 재주를 함께 그리고 즐겁게 누리기 위해 생성된 제주 커뮤니티와 자신의 재주를 업으로 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생성된 제주-업 커뮤니티로 구분된다.



[그림 5]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상세 목록 재구성
출처: 이수진,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조사」

2) 이수진(2021),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조사」, 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10~33p

이와 같이 커뮤니티형을 마을형과 재주형으로 하위 분류하고 다시 마을형을 거주와 이슈형으로, 재주형을 재주와 재주-업형으로 세분한 것은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체들의 에너지와 다양성을 확산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찾아내는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영도구 내 커뮤니티형은 총 36곳으로, 거주 커뮤니티와 이슈 커뮤니티는 각각 7곳, 재주 커뮤니티는 9곳, 재주-업 커뮤니티는 13곳이다.

② 커뮤니티 플랫폼

커뮤니티 플랫폼은 다른 커뮤니티의 생성 가능성을 가진 주체들의 활동을 자원화하여 정리한 것으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그 가능성을 가진 요인의 성격에 따라 주체형, 공간형, 민간-공공형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주체형은 20곳, 공간형은 4곳, 민간-공공형은 11곳으로 총 35곳을 영도구 내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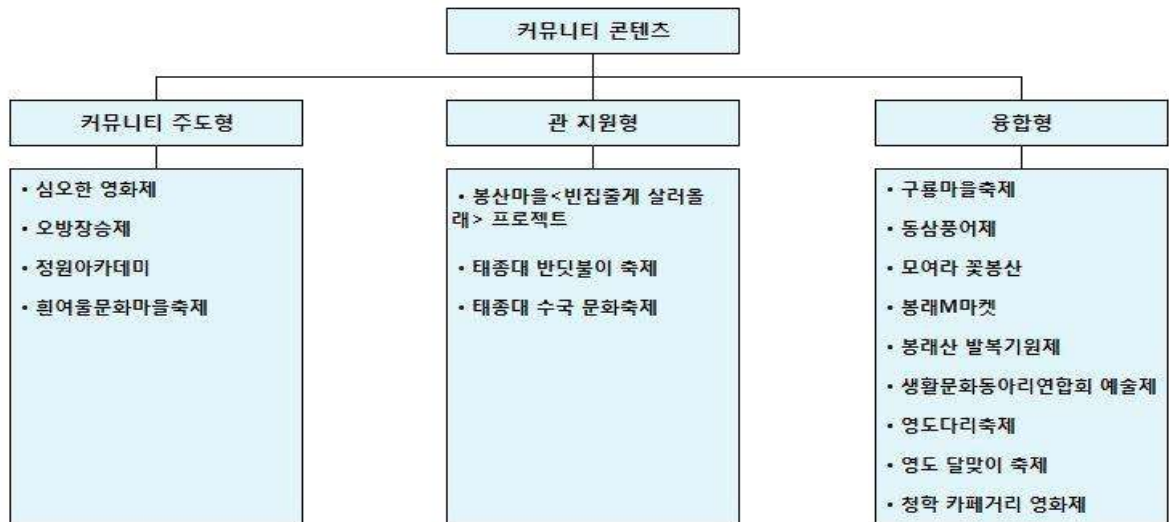


[그림 6] 커뮤니티 플랫폼 문화자원 상세 목록 재구성

출처: 이수진,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조사」

③ 커뮤니티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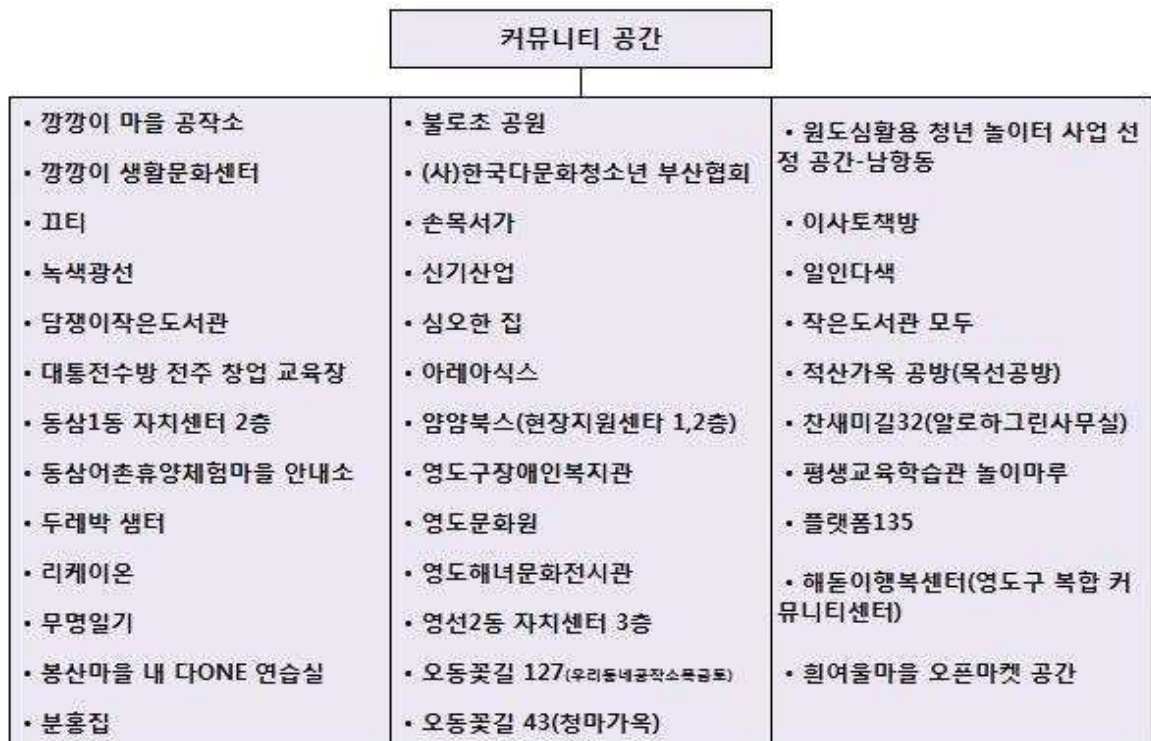
커뮤니티 콘텐츠는 영도에서 사람들이 벌여 왔던 다양한 콘텐츠를 자원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는 다시 주도형, 관 지원형, 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도형 콘텐츠는 4곳, 관 지원형 콘텐츠는 3곳, 융합형 콘텐츠는 9곳으로 파악되며, 주로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여 벌인 콘텐츠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커뮤니티 콘텐츠 문화자원 상세 목록 재구성
출처: 이수진,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조사」

④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커뮤니티들,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도록 유발하는 공간을 자원화하여 정리하였다. 총 38곳으로 파악되며, 여기에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등의 문화기반시설 일부와 평생교육기관 및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림 8] 커뮤니티 콘텐츠 문화자원 상세 목록 재구성
출처: 이수진,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조사」

Ⅲ. 사회적 고립의 이해

1. 사회적 고립의 개념

본 절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이해하는 필요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은 인간의 존재론에서 출발하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며, 사회적 배제와 같이 유사한 개념으로 또는 확장된 여러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1인가구의 급증, 고독사와 같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립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대한 논의, 나아가 자립과 고립에 대한 재해석이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의 해소, 고립감 완화를 위한 전략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은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 정의에 따라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서비스의 내용,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의 목표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양한 개념적 논의를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론

① 사회적 관계 또는 관계망 관련 이론

사회적 고립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관계망에 대한 이론들에 기반한다(박미진, 2013). 즉 고립의 주체인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고립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미진(2013)은 네 가지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영향에 단순히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향을 해석·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 존재이며, 인간은 이러한 내면의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양해림, 2010). 둘째, 사회적 교환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그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경제학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가능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는 존재로 인간을 정의하고 있다(김기화·양성은, 2012).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론들에서 설명하는 인간은 공통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망 안에서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이러한 이론들을 배경으로 볼 때 첫째,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되어 있는가, 둘째, 관계망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셋째, 그 상호작용은 능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와 정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사회적 고립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란 가족과 지역사회에 접촉이 거의 없는 것(Townsend, 1973)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초기에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양적 접촉의 부재를 강조했다면 최근 연구는 보다 다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고립을 객관적 특징이나 타인으로부터의 분리 정도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각과 인식,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즉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김민주·이아라, 2021).

같은 연구에서 이러한 객관적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사회적 고립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이 높다고 해서 항상 주관적 사회적 고립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의 상관성이 약한 수준이라는 확인하기도 하였다. Cho(2019)의 연구에서도 객관적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사회적 고립이 반드시 함께 경험되지는 않았으며, 관련 연구들은 두 차원의 고립이 개인의 건강에도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객관적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건강에 보다 영향을 미치지만(김민주·이아라, 2021 재인용; Holt-Junstad, Smith, & Lyton, 2010; Steptoe, Shankar, Demakakos, & Wardle, 2013), 주관적 고립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김민주·이아라, 2021 재인용; Joiner, 2007; Stillman et al., 2009).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사회적 고립을 이해할 때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민주·이아라, 2021).

박선희·최영화(2020)의 연구에서도 고립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객관적 사회적 고립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접촉의 양,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 또는 개인의 사회적 통합 수준으로 정의되면 주관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또는 불만족스러운 느낌으로 개념화된다(박선희·최영화, 2020 재인용; Taylor, Taylor, Bguyen, and Chatter, 2020). 같은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또는 접촉 빈도 등 타인으로부터 고립과 분리의 정도 등으로 측정되며, 주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질적 수준에 대한 자각으로 외로움과 같은 느낌으로 측정될 수 있다(이상철·조준영, 2017)고 설명하고 있다.

이 외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개념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큰 틀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 차원의 고립과 주관적 차원의 고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당히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고립에 대한 자발성과 비자발성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에 대한 논의에 이어 다른 차원으로는 고립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대한 논의이다. 자발적 고립과 비자발적 고립은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에 기계적으로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주관적 고립은 개인이 고립 경험과 상태를 말하며, 자발적·비자발적 고립은 개인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고립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개념적 논의는 직간접적으로 자발적 고립과 비자발적 고립의 판단과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논의에 따른 단순히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호작용이 부재하며, 수동적인 상호작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자발적 고립이라고 단정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는 사회적 고립의 비자발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 첫째, 위와 같은 지표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망 속에 능동적 상호작용을 ‘스스로’ 또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 학습된 영향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라도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과 같은 자연스러운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고립을 선택한 경우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과업의 이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의 고립은 부정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이렇게 고립된 상태를 비자발적 고립으로 해석하기는 한계가 있다.

○ 둘째, 첫번째와 같은 경우의 스스로 선택에 의한 고립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이 진정한 의미로서 선택권의 행사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이란 어떠한 선택을 할 경우, 그에 따르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또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말한다. 즉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고립을 선택했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고립으로 보기 어렵다.

○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고립의 전형적인 상태를 말하며 비자발적인 고립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포함될 수 없는 경우를 사회적 배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배제를 별도의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도 연관된다. 프랑스에서 등장한 초기의 ‘사회배제’는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 즉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집단을 의미하였다. 이후 포함 범위가 확대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포함하였다. 사회배제에서의 ‘배제’란 사회 내 대상으로서 진입이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상에는 이웃, 주거, 자산, 고용, 소득, 교육, 기술 등의 구체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시민권, 존경, 법 앞의 평등, 인간적 대우, 국가와 기회 등 추상적 영역도 포함된다(박병현·최선미, 2001).

터너(Turner)는 사회배제와 관련하여 ‘사회 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활동 및 그 참여 과정에서 사회의 희소 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설명하였다(강신욱 외, 2005 재인용). 또한 강신욱 외(2005)는 빈곤은 가장 명백한 요인의 하나이지만, 사회적 배제는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지는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한다(김태완 외, 2019). 사회배제는 빈곤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차원으로 다루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모든 이론적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안에서 문화와 여가 차원의 사회배제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배제에서 문화와 여가는 사회참여의 하위 지표이며 사회배제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노동, 주거 문제 등의 사회배제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 차원에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참여에 대한 배제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사회적

고립의 개념에는 거의 모든 학자가 사회참여에서의 소외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김태완 외, 2019), 문화와 여가생활은 생애주기별 과업 특성과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가용 자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은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많으나 문화·여가의 종류가 휴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들은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격차, 수요자 욕구에 대한 미스매치(부조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에서 문화·여가 활동은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극적인데 이는 결국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 및 문화 자본의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 개념은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의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확장할 경우, 개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완화는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배제로 인한 결과로 해석한다면 고립 완화를 위한 노력은 일종의 ‘바깥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사회적 고립 또는 배제 관련 요인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주관적 건강상태, 근골격계 질환,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복합적인 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비활동성, 열악한 식사, 항정신성 약물(술, 약물 등) 사용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Hämmig(2019).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거나 더 외로운 사람의 사망률이 높고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행복과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불안과 심리정신적 고통, 우울증과 빈곤의 지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박선희·최영화, 2020 재인용; Steptoe, Shankar, Demakakos, and Wardle, 2013, Ranjan and Yadav, 2019).

반대로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다고 본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교육, 수입, 고용 형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일상적 관계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조예지, 2015), 교육 수준이 낮거나 수입이 적고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참여에서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불충분한 금융 자원, 질병, 시간 부족, 사용요금(user fee),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unwelcoming behaviors) 등의 요인이 저소득층의 사회적 참여를 저해한다고 했다(Steward, Reutter, Veenstra, Love and Raphael, 2007).

사회복지에서의 고립은 대체로 ‘사회적’ 고립으로 명명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즉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원치 않은 고립으로 규정하고 접근했으며, 그러한 비자발적 고립을 경험하는 자들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최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슈들

① 고립된 대상 범위의 확장

사회적 고립은 생애주기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과거 노인 세대의 주요 문제로 다루어지던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현재는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실정이다. 청년·중년 후기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의 특성, 외로움, 고립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조사에서는 청년들이 더 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중년 후기보다 두 배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Child & Lawton, 2019).

이처럼 최근까지도 사회적 고립은 1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만 주요한 쟁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큰 화두가 되면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논의는 단지 1인가구 또는 노인 세대에게만 집중된 현상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가구원의 수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사회적 고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히키코모리’로 불리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나라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개월 이상을 방 또는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의 주요연령은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사회적 고립으로 해석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들 뿐 아니라 40대와 50대를 아우르는 중장년 세대, 특히 1인 중장년층 남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50대에 대한 접근은 노인의 사회적 문제 예방 차원의 예비 노인으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연령층으로 등장한 측면도 있지만, 직장을 잃은 중년 남성은 중년 여성에 비해 고립의 속도나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다는 특성을 가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사회적 고립을 과거와 같이 독거노인에 한정하여 논의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이슈로 발전한 영향도 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해소 노력은 노인 세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고립 양태를 해석하려는 노력과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자립과 고립에 대한 재해석

자립은 타인의 도움 없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스스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한 독립적인 상태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20; 김은정 외, 2019). 그래서 자립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여건을 제외하고 갖추어야 하는 생애 과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자립은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심리적 자립도 포함되는 등,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김은정 외, 2019). 심리적·사회적 독립이 포함된 이유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기 어렵고 의미 있는 타인들과 자율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김정연 외, 2011). 이런 해석은 위의 고립에 대한 인간관계 이론의 핵심들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에서의 자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모든 제도적 급여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 헌법을 제외하고 - 가장 상위법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의 자립·자활의 조항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기본법에서 국민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립을 국민의 책임 조항에 넣어 기본법 총칙에 명시함으로써 가급적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립하는 것이 본래의 건강한 상태인 것처럼 비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낙인 인식이 타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위와 같은 자립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적 통념의 자립은 곧 경제적 자립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것(Ben-Ami & Baker, 2012)에도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장급여와 사회 서비스의 대부분은 경제적 여건(소득과 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며, 그것은 다시 자립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여기에서 자립은 고립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개념인가. 즉 고립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즉 문제 해결의 목표를 자립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만약 자립이 고립 해소의 목표가 된다면 자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립 해소의 방법과 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게 된다. 자립을 위와 같은 사회적 통념이나 전통적 인식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고립의 해소는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일상의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가옥 외(2004)는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의존하는 존재로서의 인식에 대한 비판을 언급한 바가 있으며, 김주영(2020)은 홍콩식 사회주택의 정치학을 논하면서, ‘의존’과 ‘자립’이 양립 가능한 개념으로서 의존-자립의 공동체 만들기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즉 앞서 언급된 인간 존재의 본래적 특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상호작용의 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의존은 부정적인 의미보다 당연한 삶의 양태인 것이다. 의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이라고 정의되는데(국립국어원, 2021),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서의 인간은 의존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약하자면, 현대 사회의 인간의 삶이란 완전한 독립성으로 영위하기 어렵기에 자립을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연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 그렇기에 현대 사회의 자립은 사회적 관계망의 장에 포함되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외적 자원의 의존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립 해소의 목적을 단순한 의미의 홀로서기가 아니라 건강한 의존적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사회적 고립 완화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 정책이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의 해소와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개인에게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기에 사회적 고립감을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는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를 다루는 관련 연구나 보고가 풍성하게 생산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은 건강, 소득, 노동,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연결되어 있고,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대상자가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로 인한 돌봄 욕구를 가진 가구 또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사회적 고립과의 통합적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을 참조하였다.

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배경

① 커뮤니티케어의 정의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최근에는 용어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통칭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케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②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전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돌봄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의 보편적 문제가 되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병원 또는 시설에 입소해야 하거나 가족이 상당한 부담의 돌봄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 차원의 돌봄 관련 지출 급증을 야기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였으며 일본 역시 2013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기반 조성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비전과 과제

① 비전과 목표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하며,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4대 핵심과제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을 4대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

○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 뉴딜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제공 : 어르신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다양한 모델 개발, 선도사업·도시재생 지역 등에서 실증 거쳐 확대
-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 개조(집수리) 실시 :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집수리 사업 추진
-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설 : 복지부-행안부-국토부 3개 부처 공동 협력으로 커뮤니티케어-주민자치-도시재생 연계모델 마련과 확산

○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 :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 대폭 확충, ‘주민(마을)건강센터’의 보건지소 기능 전환과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 확충
- 어르신의 집에서 진료·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제공
- 지역사회 기반의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 지역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예방·관리하여 건강 악화와 합병증 방지
- 경로당·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 프로그램 활성화 :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 확대, 어르신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 지원 : 병원에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협업)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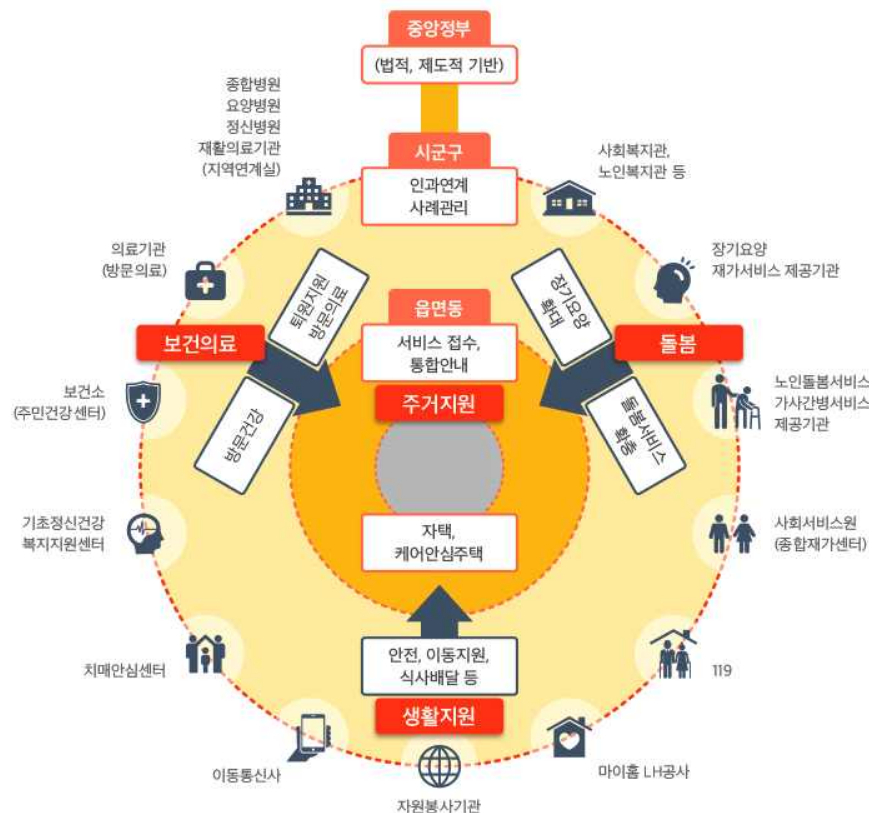
○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 다양한 재가 급여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 제공,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 서비스,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확대
-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서비스 통합 제공과 품질 향상 :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설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확보, 식사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 지원 :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 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 (시·군·구)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 :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간의 분절적 서비스 해소,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칸막이와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 제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케어 안내창구 신설, 통합 제공하는 모델 마련(‘지역케어회의’),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연계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어르신 지역 돌봄 시범마을’ 선정과 확산
-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및 사례관리인력 대폭 확충 : 지자체에 전담 인력 확충(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 종합사회복지관 등 인력 증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자원봉사자(‘좋은 이웃들’) 등 적극 활용



[그림 9] 커뮤니티케어 참여 자원과 기능,
출처: 보건복지부(2018).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보도자료

이를 위해 정책 시행 초기에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2026년 이후에는 커뮤니케어의 보편화 단계로 전개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돌봄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도사업을 8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8개 지역 총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선도사업은 5개 지역에서 노인 중심, 2개 지역에서 장애인 중심, 1개 지역에서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다. 커뮤니케어와 사회적 고립 완화

커뮤니케어는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이를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에 우선 목표가 있다.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유도 배경에 포함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명확하게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단계의 성과를 살펴본 연구 역시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이기주, 2021, 남기철, 2020, 민소영, 2021),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사례연구」(전준희, 2021), 「요양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연계 방안」(가혁, 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성과 분석」(이태현·정하영, 2021, 류재운·이재민, 2021, 신유리, 2021), 「관련 기관 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구」(이태현 외, 2021)로 커뮤니케어의 1차 목표에 대한 성과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선도사업을 진행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커뮤니케어의 다양한 참여 주체 또는 단위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일련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 개선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감은 커뮤니케어의 직접적 혹은 표면적 정책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니며 고립 해소를 위한 전략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기존의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사회와 격리된 생활시설에서의 돌봄을 지역사회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돌봄의 장이 되어 생활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함으로써 거주하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이 유지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 혼자 또는 원하는 사람과 함께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박광옥 외, 2021). 누구나 가능한 한 주거, 교육, 노동 및 여가 조건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정상화’의 개념과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가치가 커뮤니케어의 초기 배경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장애인 분야의 주된 운동으로써의 탈시설화는 전통적인 격리·보호 방식의 과도한 시설수용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한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감정기 외, 2012). 커뮤니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지역사회에 거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돌봄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 구축되어 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출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2018)에서도 커뮤니케어는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어는 돌봄의 장이 특정 돌봄 시설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로 이전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전략은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지역사회 내 공동체 또는 상호작용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회연결망을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연구한 것(박선미 외, 2021)이 거의 유일한 객관적 연구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돌봄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2014년 송과 세모녀 사건과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전략으로써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요한 돌봄서비스의 효과는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성 차원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그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커뮤니티케어의 현황 및 사례: 부산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와 부산진구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다양한 역동을 소개하고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주로 부산광역시 북구와 부산진구 홈페이지(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서(2020~2021),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과연구 보고서(2020)를 주로 참조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와 부산진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시행 지역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선도사업만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기보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두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고 시사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가. 부산광역시 북구 사례

① 주요 대상

부산광역시 북구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정책대상은 유형별 해당 노인으로, 요양병원 지역복귀유형, 단기입원 지역복귀유형, 시설입소자 지역복귀유형,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 선택 유형, 장기요양 3-5등급 및 등급외자 유형, 특화사업(공모) 연계 유형으로 나뉜다.

② 핵심 영역 사업

북구의 핵심사업은 주거분야, 보건의료분야, 요양돌봄 분야, 인프라 구축으로 나뉜다.

○ 주거분야

- 주거환경개선사업
- 영구임대, 새뜰마을 케어안심주택 운영
- LH고령자형 매입임대케어안심주택
- 케어안심주택(사회주택)

○ 보건의료분야

- 방문진료
- 올바른 약물이용 감동진 약국
- 의료기관 전담창구 운영

○ 요양돌봄분야

- 단기가사서비스
- 영양식제공사업
- 병원이동동행사업
- 맞춤형 운동사업

- 인공지능 감성케어
- 재가의료시범사업
- 지역개발형바우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인프라구축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시범사업
- 통합돌봄어울린센터
- 돌봄활동가 양성사업
- 북구 돌봄플러스센터
- 통합돌봄 start-up 등

각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케어안심주택운영, 지역사회 돌봄지원체계 구축사업, 방문 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노인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관리 사업, 노인 주치의 사업, 건강지킴이 마을건강센터 운영,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의료급여 사례관리, 돌봄활동가 양성사업, 공유공간 조성, 돌봄 플러스 센터 운영 등이 있다.

③ 대표 사업

○ 케어안심주택 운영(다올하우스)

-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예정 노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단기간 거주 공간이며, 또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독립생활 기능에 취약한 노인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들에게 보건의 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 노인 정신건강 증진, 아름다운 노년 만들기

-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검사, 상담, 자원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우울감을 완화하고 우울장애를 조기에 치료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주관부서가 되며 대상자들에게 경로당 정신건강 증진 교육, 지역사회 정신건강 캠페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돌봄활동가 양성사업

- 기 입원 퇴원자 및 거동 불편 노인의 주말 등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돌봄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가로 양성하여, 일상생활 돌봄, 건강지원 돌봄, 심리 정서 돌봄 등을 하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④ 문화예술적 접근 전략 사례

북구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인에게 지속적인 사회관계와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 상가건물의 공실을 활용한 어울림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자원 동원, 주민 활동가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울림 센터를 활용하여 대체로 식사(영양) 지원, 건강지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설립 목적에 지역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축과 여가생활라이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대상에게 필요한 문화예술 차원의 프로그램 위주로 소개하고, 필요한 합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 문화예술 차원의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운동처방사 : 운동처방사를 채용하여 주 3회 오전 시간대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 제공
- 요가 : 요가 강사와 연계하여 주 3회 오전 시간대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 제공
- 푸드테라피 : 어울락(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음식을 활용한 감정 표현 및 소통 활동
- 미술치료 : 어울락(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을 통한 표현 및 소통 활동
- 푸드톡톡 : 어울락(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 이야기 및 쿠킹클래스



[그림 10] 공창 어울락(어울림센터) 휴식공간 및 활동 내용



[그림 11] 동원 어울락(어울림센터) 신체활동 공간 및 활동 내용



[그림 12] 만덕 어울락(어울림센터) 전경 및 활동 내용



[그림 13] 덕천 어울락(어울림센터) 문화활동 공간 및 활동 내용



[그림 14] 남산정 어울락(어울림센터) 다도공간 및 활동 내용

위 활동 공간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어울림센터(어울락)는 전문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어울림센터 공간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례

① 주요 대상

부산진구의 커뮤니티케어의 선제 개입 주요 지원 대상자는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요양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불가피해질 수 있는 노인이며, 70세 이상 노인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3등급에서 등급 외 대상 노인이다. 이들 외에도 생활시설 퇴소 후 지역 복귀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도 필요에 따라 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가 되는 경우 대상자의 소득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핵심 영역 사업

주요 사업은 지역 정착 여건 마련, 독립생활 지원, 지역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자화, 돌봄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으로 나뉜다.

○ 지역정착 여건 마련

- 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모델 4종 개발
-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지원
- 고령자 친화형 도시재생뉴딜, 새뜰사업 추진

○ 독립생활 지원

- 퇴원환자 케어플랜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양·운동·약물중재 등 예방적 서비스 지원
-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확충

○ 지역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자화

- 제공자·이용자가 함께 공공서비스 개발
- 사회적경제의 돌봄서비스 제공 참여
- 지역공동체

○ 돌봄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지역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 통합돌봄창구 설치(동·보건소·복지관)
-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케어회의

이를 위한 주요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진구형 주거모델 운영, 노인친화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보수 집수리지원 사업, 한의 방문진료사업,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 가정형 호스피스사업, 다제약물 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사업, 식사영양관리사업, 마을공동시설 골목빨래방 사업, AI반려로봇 지원사업,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돌봄가족 지원사업, 통합돌봄형 노노케어사업, AI감성케어 지

원사업,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정신의료기관 퇴원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사업도 보건복지부 선도사업과 병행되어 진행함으로써 선도사업에서의 핵심사업 이외에도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과 민관협력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아래의 대표 사업은 어느 한 부처의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돌봄센터 운영이나 지원주택 사업 등, 거의 대부분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지원이 동시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③ 대표 사업

○ 온마을 돌봄센터 운영

- 부산진구 차원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케어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만 그중 지역사회의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온마을돌봄센터 운영을 들 수 있다. 온마을 돌봄센터는 범천2동 안창마을에 공유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약기관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 이음하우스

- 이음하우스는 개금 2동에 지원주택(사회주택)을 마련하여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돌봄대상 노인을 발굴, 입주 지원을 통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주택 입주자에게는 주거 유지 행정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건강지원, 지역주민통합지원 등 수행기관(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민참여 조직 육성

-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의 지속성을 위해 민관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체로서 온마을돌봄센터 공동체 등 돌봄 활동가를 육성, 통합돌봄 지원체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문화예술적 접근 전략 사례

2021년 부산진구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후 주민들의 요청을 따라 센터 내 예산으로 2022년 1~2월간 운영 중이다. 또, 일일 클래스로 진행했던 공예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양말목을 활용한 냄비받침을 만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15] 부산진구 온마을돌봄센터 문화예술 활동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례

① 주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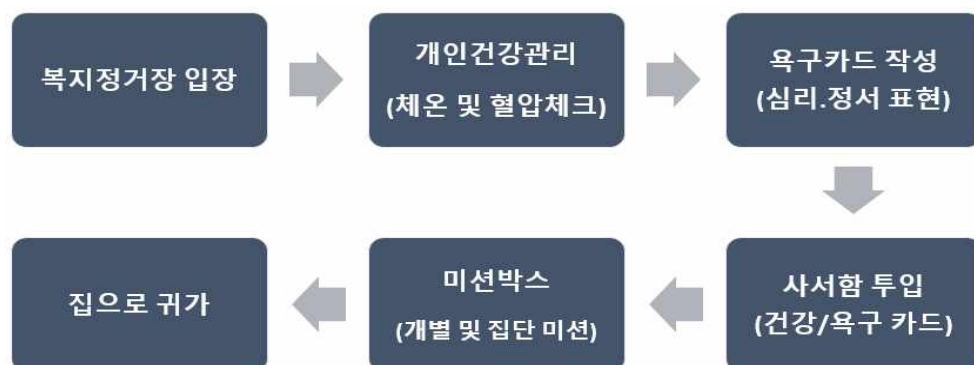
사하구에 위치한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재난 시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정거장을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중 고위험군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와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 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공유공간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림 16] 복지정거장 사업 목표

② 핵심 영역 사업

일차적으로 이동식 부스를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부스 내 혈압계 등을 이용한 건강체크, NVC(비폭력대화) 느낌욕구카드를 통해 심리 및 정서 상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월 2회 미션박스를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 및 정서적 지지 도모를 위한 미션 활동을 제시, 집단미션으로 컬러링북·모자이크·롤링페이퍼 등 문화예술 차원의 공동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 미션으로 나에게 쓰는 편지, 노래 필사, DIY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건강 및 심리정서 진단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이외에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례이다.



[그림 17] 사하구 복지정거장 참여자 이용 순서



[그림 18] 복지정거장 완공 후 전체모습



[그림 19] 복지정거장 실내 모습 _ 욕구카드, 혈압기



[그림 20] 복지정거장 실내 모습 2 _ 미션 박스

4. 시사점

가. 사회적 고립에서의 ‘자발성’

사회적 고립이라는 용어에서 이미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고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그 자체가 비자발적 고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고립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이 부여된 자발적 고립인지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사회적 배제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사회 구조적인 여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배제된 집단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으로 진정한 자발성에 의한 고립인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특히 오랜 시간 고립의 시간이 축적되는 경우, 사회적 고립이 수용 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는 상당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해석해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정적 수용, 즉 체념의 단계는 능동적인 상호작용 경험의 부족과 그러한 장에서의 참여 기회의 부재에 기인한다.

나.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커뮤니티’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의 기능을 과거 시설과 병원이라는 지역사회 밖에서 지역사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에 관한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건강한 상호작용,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개인(주민)의 당연한 권리 실현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 내에서의 돌봄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타인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고, 한 개인이 돌봄을 받으면서 왜 지역사회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선도사업이라는 일종의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계적 목표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그동안 수많은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한계인 방법론 차원의 양적인 확대에 머무르게 된다. 부산시 북구와 부산진구에서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구축사업은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부산시 사례에서의 ‘생태계’

부산시 사례 중 특히 북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시설) 이외의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일반 주민이나 돌봄 활동가들의 참여 또는 여가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점이다.

커뮤니티케어가 표면적으로는 케어에 집중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건강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고립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와 같이 서비스 지원체계를 넘어 통합의 생태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통해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의 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라. 고립된 공간의 단순 이전에 대한 극복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성 회복 또는 공동체 역량 개발, 통합돌봄을 위한 생태계 구축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커뮤니티케어는 케어를 통해 개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상호소통의 공간과 그 공간으로의 참여 기회이다. 공간은 접근성이 주요한 원칙이 될 것이고, 참여는 능동성이 주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즉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의 상호소통의 장에 얼마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다뤄야 한다.

만약 커뮤니티를 케어할 수 있는 자원, 특히 공공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보완재로서의 의미만 가진다면 지역사회 내의 케어는 단순한 시설과 병원으로부터 케어의 물리적 공간만 이동한 것이 된다. 이를 넘어서 커뮤니티케어가 공동체 통합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과 참여,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는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

IV. 문화예술 분야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고립

1. 문화예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고립

가. 발전하는 시대, 인구사회구조와 문화예술환경의 변화

① 과학기술의 진보와 개인화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분분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 혁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화시대가 낳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가 사물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재활용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별다른 쓸모가 없었던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세부에는 가상현실, 3D프린터, 드론, 사물인터넷, 5G, 로봇, 인공지능, 공유경제, O2O, AI비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로의 진입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네 가지의 핵심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가 초지능화이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사물이 지능화된다는 것이다. 즉 사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화를 넘어 무인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라지고 무인생산시스템으로 변환되면 결국 인간은 소외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초연결성이다. 5G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를 넘어 기기와 기기가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등장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전산망으로 얹히고 운송 수단과 이동통신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이 극도로 고도화된다. 물론 이러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의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셋째는 초개인화로,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로 개인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개개인의 개성과 욕구가 반영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개인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 등이 얼핏 장밋빛 미래로 보일 수 있으나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연대의 토대가 사라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초융합화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기업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신기술이 전통산업과 융합하면서 수많은 직업이 일순간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즉 인간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노동으로부터의 추방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이를 저성장의 돌파구로써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만큼 극심한 인간 소외 현상과 경제적 양극화가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기도 하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잔재로서 ‘풍요’ 보다는 ‘위험’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과거 사회에서는 물질적 빈곤, 굶주림, 인

구 밀집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전 생산 및 분배 방식이 규정되어 왔다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의 분배를 통제하기 위해 생산 논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화가 다양화와 개인주의화의 작동으로 인해 전근대의 봉건적 위계질서와 사회적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지위에 기반한 계급 구분의 전통적 지지력을 상실시켰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통적인 유대의 지원망을 상실하고 자신과 자신의 운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화가 대량실업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집합적 경험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실업자와 비실업자의 경계, 즉 비정규직이라는 희색지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사회의 개인에게 개인화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운명이다. 개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좌절과 고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남탓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지만 이를 해결할 의무와 필요 또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될 뿐이다.

②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가 초래한 사회적 고립감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방의 선진국과 그 밖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19세기 초부터 모든 연령층이 증가해 왔으며, 그 중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수준은 더 큰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였고 개인주의 발달로 출산율은 낮아졌으며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고령사회(총인구 대비 고령 인구 14% 이상인 사회)가 된 이후 2020년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고작 7년 만인 2025년 한국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된다.³⁾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면 모두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1인가구의 증가 또한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할 사회구조의 큰 변화이다. 전통적 가족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장기적 불황과 불안한 일자리 등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 더 나아가 연애마저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고령화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최근 BBC 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나 홀로 가구’가 1년 사이 50만 명 가까이 늘어나 66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연 소득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한참 모자랐다고 전했다.⁴⁾ 2021년 통계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0가구 중 7가구가 1인가구이며, 전 연령층에서 1인가구 비중은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 50대, 60대, 40대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여성의 경우 2가구 중 1가구가 60대 이상 고령층(45%)인 반면 남성은 30~50대가 56.4%를 차지했고 1인가구가 된 이유는 본인의 학업과 직장 때문이 24.4%, 배우자 사망이 23.4%, 혼자 살고 싶어서가 16.2%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는 고립상황에 처하는 개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TV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여지는 자유롭고 화려한 삶과는 달리 상당수의 1인가구

3) 매일경제 보도자료, “대한민국이 늙어간다...전국 시군구 42%,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2021.12.2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205709/>

4) BBC 코리아 보도자료, “1인가구: 통계로 보는 ‘나 홀로 산다’... 그들은 좀 더 가난했다”, 2021.12.10.
<https://www.bbc.com/korean/news-59545140>

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강도·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계 단절이나 외로움 등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들도 많다. 특히 고연령층의 1인가구 일수록 다른 연령층보다 경제적 격차가 크며 신체 및 정서적 고립상황과 더 나아가 고독사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은 국가가 고립과 외로움을 공공보건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면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중 영국은 2018년 1월에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설립함으로써 고독을 국가의 주요 사회 의제로 삼은 첫 번째 나라이다. 테리사 메이 보수당 정부가 신설한 이 부처는 우울증, 고독, 분노 같은 마음의 질병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고, 개인의 고독과 고립 문제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즉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3년 만에 52%가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적인 증가추세도 문제지만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노인의 고독사와 더불어 최근 3년간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62%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⁵⁾ 우리나라의 노년층과 청년층이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리고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불안 데 기름 붓는 형국이 되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취약계층들을 더욱 깊은 고립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었다.

③ 팬데믹이 야기한 고립의 확산과 예술의 가치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pandemic)이 선포되고 2022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46억 명, 희생자는 559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특정 국가를 넘어 전 세계 인류에게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대면과 접촉이 바탕이 되었던 인간사회의 토대와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들며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로의 진입을 예고했다.

코로나 사태의 초창기, 무방비 상태에서 맞이한 신종 감염병에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자국민의 이동 또한 제한하는 섣다운을 실시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동 제한, 지역 봉쇄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K-방역’을 탄생시켰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기존 사회문제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코로나블루’로 지칭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외로움과 고독감은 날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에 굴복하기보다는 맞서 싸우는 한편 자신과 사회, 더 나아가 인류와 역사에 대한 물음과 성찰을 시작하였다. 물론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 예술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개인에서 출발한 작은 행동들이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북부 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발코니에 나와 노래하는 유튜브 영상을 시작으로 유럽, 남미 등으로 퍼져나간 ‘발코니 공연’과 온라인 예술 활동들을 통해 예술가들은 사람들에게 안부와 위로,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5) 동아일보 보도자료, “40세 미만 청년고독사 3년간 62% 급증”, 2021.09.22.



[그림 21] 헝가리 아담 모세르(우)와 프랑스 스테파네 세네살이(좌)의 발코니 공연

이탈리아의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인 프랑코 리볼리(Franco Rivoli)는 코로나19 시대를 위로하는 상징적인 그림 ‘천사들이여! 이탈리아로 가라!(Angels! Go Italy!)’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이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은 예술적 레퀴엠(requiem)이자 사회적 고통과 무력감에 대한 위로이며, 연결성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의 만화가 그레이스 지트(Grace Git)는 디지털 페인팅 기법으로 코로나19 연작 그림을 그려 만화 기법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과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와 과학계에 성원과 함께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업방식과 결과물로 코로나에 대해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러시아 출신의 미술가이자 타투 아티스트 포니 웨이브(Pony Wave)는 캘리포니아 베니스 해변에 마스크를 쓴 채 키스하는 남녀의 모습을 그린 그래피티를 그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거리감을 극복하려는 어느 연인의 모습을 꽃의 이미지와 연결한 이 그림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림 22] 코로나에 대항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좌:프랑코 리볼리, 우위:그레이스 지트, 우아래:포니 웨이브)

2020년 4월에는 온라인 대형 콘서트가 열렸는데 전 세계 110개 팀이 참여한 ‘원 월드: 투게더 앳 홈’이다. ‘원 월드’는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함께 주최한 일종의 자선 콘서트이다. 엘튼 존, 롤링스톤스 등 세계적 가수의 공연에 더해 제니퍼 로페즈 같은 배우, 빌 게이츠 부부와 미셸 오바마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등장해 코로나19에 맞서는 시민·정부·의료진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일상을 보여줬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시기에 인류를 하나로 묶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치유와 응원, 지지를 담은 예술공연이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모인 기부금 약 1억 3천만 달러는 의료 장비 구입, 코로나 약물 개발, 전 세계 빈곤 지역의 푸드뱅크, 쉼터 등을 지원하는데 쓰였다.



[그림 23] ‘원 월드 : 투게더 앳 홈(The One World : Together At Home)’ 캠페인(좌), 톨링 스톤즈 온라인 콘서트(우)

이와 같이 전 세계 예술가들이 온라인으로나마 그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고 많은 사람이 역경에 맞서 싸우는 힘을 낼 수 있도록 공헌하고 고무하는 일을 해내었다.

국내에서도 국공립 예술 기관들이 잠정 휴관하면서 온라인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었다. 2020년 3월 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피아노소나타 전곡 시리즈’ 공연이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되었고 이후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희망 콘서트’도 개최되었다. 세종문화회관은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힘내라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오페라, 국악, 연극, 무용, 대중음악 등 총 16회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국립국악원은 2015년부터 시작한 ‘금요공감’ 콘서트를 5월 8일부터 29일까지 모두 현장 관객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대신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발코니(베란다) 음악회’가 개최되었고, 서울시의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문화로 위로한다는 취지의 찾아가는 공연들이 열렸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다양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술 활동들은 일명 ‘온택트’로 불리며 전염병으로 폐쇄적인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술이 가진 이타적인 긍정의 치유력을 통해 공감과 연대의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다.

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

2020년 3월 23일 모니카 그뤼터스 독일 문화부 장관은 독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00억 유로(67조원) 규모의 문화예술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예술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그에 의하면 “독일 예술계가 국가 경제에 연간 1,000억 유로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화학, 에너지, 금융서비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민주적 사회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언론 풍경을 필요로 한다. 창조적인 사람들의 창조적인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을 창조할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예술가는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

나라, 특히 지금은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각종 문화예술지원대책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함께 총 7회에 걸쳐 ‘코로나19 예술포럼’을 개최하며 코로나19 이후 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고 현장과 함께 새로운 예술정책을 모색하려 노력했다. 특히 제1차 토론회의 주제는 ‘일상적 위기의 시대, 예술의 가치와 회복력’으로, 이는 유네스코가 제안한 ‘예술의 회복력 운동(리질리아트 무브먼트, ResiliArt movement)와 연계한 것이었다. 리질리아트(ResiliArt)는 회복력·탄력성을 의미하는 ‘Resilience’와 예술 ‘Art’을 합친 조어로 예술인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그해 4월 15일 유네스코(UNESCO)가 제안한 운동이다. 논의의 출발점을 코로나 시대에 예술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위기에 직면한 예술의 회복, 예술을 통한 회복 등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문화예술 일각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예술생태계가 받고 있는 심각한 타격이 사회적 손실로 인식되기에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연 교수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상황이 아닌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의 존재와 가치의 자리매김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는 예술이 재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다. 즉 예술 자체가 재난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예술이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자기 실험과 혁신이 필요한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작과 제작, 수용과 배급의 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지 진지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는 예술의 공존 문제의 중요성이다. 즉 예술이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공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을 위해 공연 관람, 페스티벌 참가, 클럽 파티 등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수할 것인가 하는 예술의 창의적 활동과 사회생활의 안전은 대립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예술의 창조적 삶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 극장의 실제 관객과 온라인 관객을 공존하게 하는 방식, 대면과 비대면을 공존하게 만드는 예술 교육, 언택트 환경을 좀 더 실감 나게 만들 수 있는 예술과 기술 공존 등의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생태적 공진화를 위한 성찰이 예술의 존재와 가치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을 예견하였다. 그는 “예술의 생태적 공진화는 예술이 생태적 사회의 위기를 경고하는 창작 표현의 주체를 넘어서 예술 자체가 생태적 창작 환경을 지키는 노력”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영위하는 일상적 삶의 방식이 과잉 소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⁶⁾

이러한 코로나 시대의 예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다양한 탐구와 시도들은 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지혜 대표는 송고미의 전시에서 삶과 예술의 상호적 감응으로 예술기획이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며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활용한 예술기획의 시도를 소개하고 보건 영역에 예술전시가 매개되었다는 점을 예술의 경계 넘기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⁷⁾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 사업을 통해 그간 예술가와 관객 간, 무대와 객석 간의 거래적 관계로 점점 더 치달아온 예술 향유 논리 구조에 대한 반성과 한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고 예술을 통해 감응의

6)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책기획위원회, 열린정책 제6호

7) 서지혜(인컬처컨설팅 대표), “코로나19는 예술기획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 468호

경험을 나누는 관계로의 전환적 향유가 예술가나 관객 모두에게 필요하며, 예술가의 역할 중 하나로 ‘예술적 보살핌’임을 강조했다.⁸⁾



[그림 24]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백신TFT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
출처: 경기문화재단 지지씨

다. ‘문화안전망’으로서의 문화정책 부상

앞서 언급한 대로 저출산·고령화·1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산업·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저성장·청년실업 등의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다차원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외로움과 고독감 등 심리적 부작용이나 박탈감과 다양한 갈등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회복하는 문화예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수준을 높여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영역으로서 문화예술을 중요시하며 이를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세워 관리·실현해 나가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다시금 요청되었다. 즉 물질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즉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이다. 이때 재주목받게 된 개념이 ‘문화안전망’이다.

그동안 문화정책에서 안전망에 대한 언급은 당시 정책에서 이해하는 개념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었다. 2011년 문화부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문화안전망은 문화 취약계층(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미혼모, 노숙인, 임대아파트 주민, 농·산·어촌 주민, 산업 단지 근로자 등)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와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화기본법」 상의 문화권에서 명시한 모든 국민이 문화향유와 활동 참여에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화평등권의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소외문제를 극복하는 문제로 문화안전망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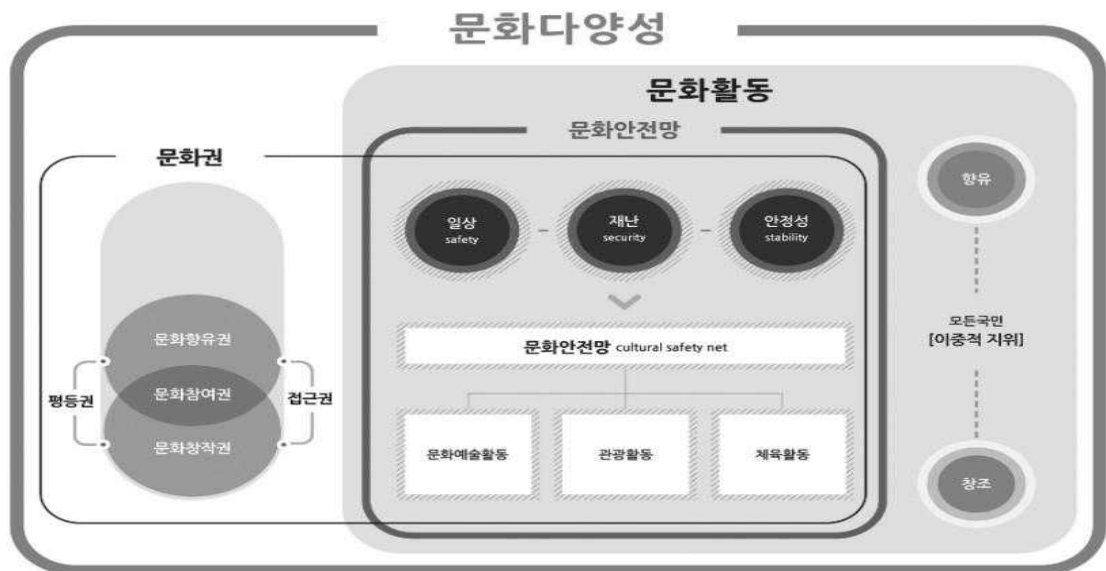
최근에는 문화예술인 또는 종사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는 “문화예술인/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업무계획에

8) 경기문화재단 지지씨,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

<https://ggc.ggcf.kr/search?str=%27%EC%A7%84%EC%8B%AC%EB%8C%80%EB%A9%B4-%ED%95%9C+%EC%82%AC%EB%9E%8C%EC%9D%84+%EC%9C%84%ED%95%9C+%EC%98%88%EC%88%A0%27+Series>

서도 문화예술인의 ‘예술창작안전망’ (2017년 업무계획)이나 ‘최소한의 생활안전망 구축’ (2018년, 2019년 업무계획)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때 문화안전망은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지원하고 기초생계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영역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개별사업에서의 문화안전망의 개념은 더욱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의 문화파출소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파출소라는 공간을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술치유를 통해 사회문제에 접근한다는 측면으로 문화안전망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안전망 개념은 보안적 의미의 안전(security)을 상징하는 파출소(경찰청)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개념으로 이해된다. 포항시의 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는 2017년 일어난 지진피해에 대해 물리적 재생 개념을 넘어 시민들의 삶과 일상을 융합하는 문화적 재활의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문화안전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때 문화안전망은 문화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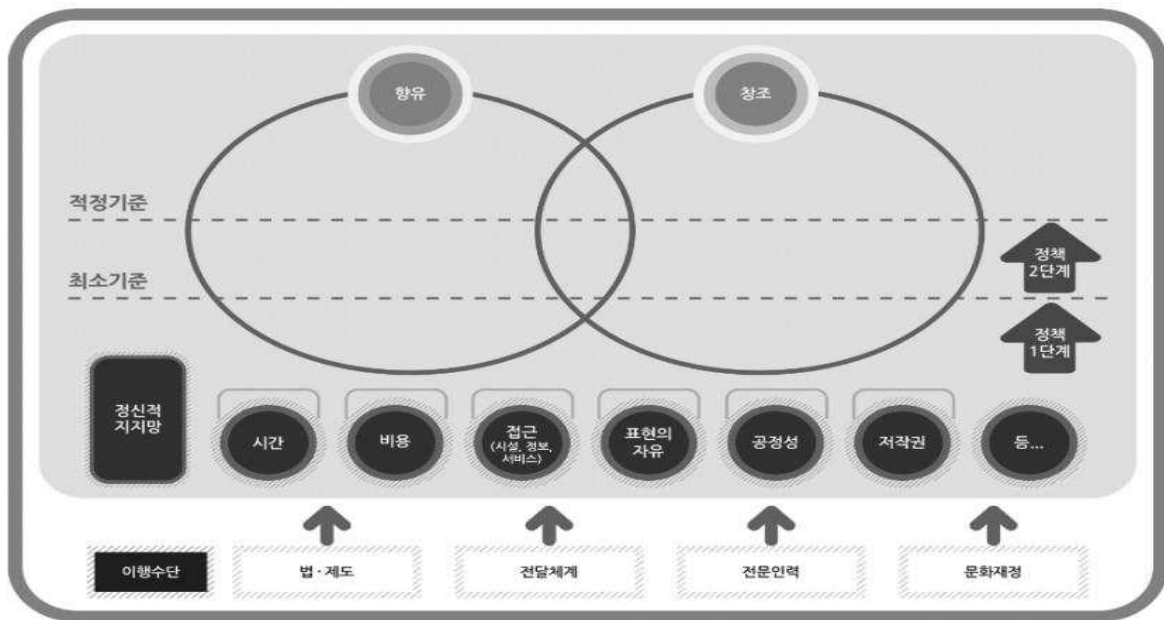
따라서 개별사업 단위나 창작안전망 등에서 상이하게 사용되었던 문화안전망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재구조화하는 윤소영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그는 ‘문화안전망(the cultural safety net)’을 “문화권에 기반하여 전 국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국민들의 문화권에 대한 최소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외부 환경적인 변화나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문제 상황,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이 불안정하고 그 기회와 환경을 예측할 수 없거나, 창작자나 관련 종사자들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해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안정성 문제 상황 등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망(Net)”을 문화안전망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문화 활동과 문화권에 근거하여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25] 문화활동과 문화권에 근거한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 윤소영(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를 그 이행수단 등을 고려하여 도식화하고, 문화향유권 및 문화접근권과 관련된 영역과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26]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영역	구체적 내용
시장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 및 휴가사용(휴가권) 보장 - 일과 삶의 균형 3.0(적극적 여가권 보장)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 대상 확대 - 문화비 환급형 세액공제도입 및 확대추진
문화시설·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서비스 거리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 무장애 환경과 접근기회 확대
정보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문화서비스 환경 균형적 제공 - 온라인 환경 접근 확대 -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환경 구축
서비스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최소운영시간 보장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표 27] 문화향유권 및 문화접근권과 관련된 영역과 구성요소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안전망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안전망에는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안전망과 최소기준은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특성화 영역이나 지역 단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의 특성화와 차별성 역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라. 現 정부의 비대면 환경에서의 문화예술정책¹⁰⁾

지난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이 감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자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되고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화 격차가 발생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문정신 문화적 가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사람과 사람·사회(공간)·기술 간의 건강한 연결망 구축을 통해 문화적 복원력을 강화하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문화로 연결되는 따뜻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 관람 격차 축소와 사회적 외로움 완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3대 추진전략과 6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비전	문화로 연결되는 따뜻한 사회	
목표	* 문화예술 관람격차 축소: 연령격차 47.5%(‘19년)→35.4%(‘22년) / 소득격차 40.8%(‘19년)→32.1%(‘22년) / 지역격차 12.7%(‘19년)→10.1%(‘22년) * 사회적 외로움 완화: 20.5%(‘19년)→17.4%(‘22년)	
전략	핵심 과제	주요 내용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 문화 조성	디지털을 통한 인문·문화 가치 확산	- 디지털 인문프로젝트·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비대면 문화예술·체육 콘텐츠 다양화 등 검토
	사람 중심의 디지털 환경 구축	- 디지털 문화격차 해소(오프라인 체험 공간, 디지털 수어·점자, 문화시설 원격교육 스튜디오 등 검토) - 사람중심으로 기술과 시설 접목(문화시설 빅 데이터, 스마트 도서관 등 검토) - 사람과 기술의 조화를 위한 담론 및 인식제고(포럼, 문화영향평가 확대, 디지털 윤리 교육 등 검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활성화	돌봄과 치유의 문화안전망 마련	- 외로움 극복을 위한 문화돌봄 체계 구축(국가통계 조사 시 외로움·연계 활동·행복 등 측정항목 추가, 문화돌봄인력 지원 및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 검토) - 문화·예술·관광 치유 활동으로 사회적 심리방역 강화(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치유순례길 조성 등 검토)
	문화를 통한 삶의 관계망 회복	- 문화를 통한 다양한 연결활동 지원(1인가구 중심 프로그램, 생애여가·지역단위 생활 문화 동호회 등 검토) - 골목 마을 중심 인문·독서 활동 지원 검토
사람과 사회의 연결 기반 강화	다양한 사회적 연결 공간 마련	- 문화로 공간재생문화도시 선정, 유휴공간 문화시설화 지원 - 다양한 지역시설과 공동체 연계확대(공공시설 내 공유 공간 마련, 문화시설의 지역연계 확대)
	건강한 연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확산	-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문화다양성과 나눔 가치 확산 - 기업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건강 등의 사회적 가치 확산(여가친화 및 스포츠 친화 기업 선정지원, 문화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검토)

[표 28] 따뜻한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은 ‘돌봄과 치유의 문화안전망 마련’과 ‘문화를 통한 삶의 관계망 회복’, ‘다양한 사회적 연결 공간 마련’ 3가지 핵심과제이다.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돌봄인력 지원 및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을 통해 문화돌봄 체계를 구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1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비대면 시대, 문화로 따뜻한 연결 사회 만든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098, (2020. 6. 24.)

11)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 7월

확대를 통한 사회적 심리방역 강화, 문화를 통한 다양한 연결활동 지원, 다양한 지역시설과 공동체를 연계 등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과 ‘문화안전망’ 개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정책사업으로 진행된 플랫폼 공간 조성(하드웨어), 체험·향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지원(소프트웨어), 인력의 교육과 양성(휴먼웨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특이점을 하나 꼽으라면 고립·소외된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문화돌봄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정도이다.¹²⁾¹³⁾

이번 3대 추진전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이다. 연결은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든,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든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 가치이다. 다만 연결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국가적 위기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개인과 공공의 연결에 치열한 고민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2) 문화돌봄사의 개념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에서 기인한다.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은 2018년 영국 정부에서 고독전략(Loneliness strategy)을 공식 발표하면서 ‘고독 해결’이라는 의제 하에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울증, 경·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 예술을 처방하는 것을 뜻한다.

13) “‘사회적 처방’의 핵심 작동방식은 바로 ‘위탁적 절차(referral process)’에 있다(Bungay and Clift 2010, 277). 의사가 특정 활동을 직접 지목하기보다는, 지역자원을 잘 알고 있는 ‘매개인력’에게 환자를 위탁하고 이들 매개인력은 상담을 통해 환자가 특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안,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결자(link-worker), 브로커(broker), 커뮤니티 네비게이터(community navigato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매개인력은 전문예술가이기보다는 제3섹터 등에서 오래 활동하여 지역 내 예술프로그램이나 자선활동 정보에 익숙한 시민활동가들이 대부분이다(PPG 2017, 39; NHS England 2018). “(최보연(2019). 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1), 233-268.)

2. 고립 해결의 기존 방식

가. 공적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사례

이번 장에서는 고립과 관련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기존의 문화예술적 해결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문화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각종 문화사업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문화복지는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자 ‘문화’가 ‘사회복지’라는 영역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신조어이다. 양혜원에 의하면 1980대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창된 정책적 용어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의지와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⁴⁾

과거 사회복지의 영역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보장 및 지원의 선별적 복지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와 사회문제의 영역 확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화복지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배려를 강조한 문화의 민주화 방향에서 전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 잠재역량 등을 높이기 위한 직·간접적인 일체의 문화예술적 노력인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의 추진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문화의 민주화, 문화민주주의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대립되거나 시차를 두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든 전 국민이든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과 창조성 향상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의 역할과 기능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은 물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문화예술활동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중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가 초래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1인가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문제 역시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 양극화라는 원인이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 사태는 인간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대면’이라는 문화를 불가하게 했고 이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욱 심각한 고립의 상황으로 내몰게 되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문화적 취약계층이나 아니냐의 논의를 떠나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화예술적 고민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문화복지정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을 기점으로 2006년부터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에 있어서 꾸준한 증가추세였다. 관련 사업 역시 여러 변화를 겪어왔으나 주목해야 할 문화복지정책사업으로는 문화나눔과 문화예술교육사업 일부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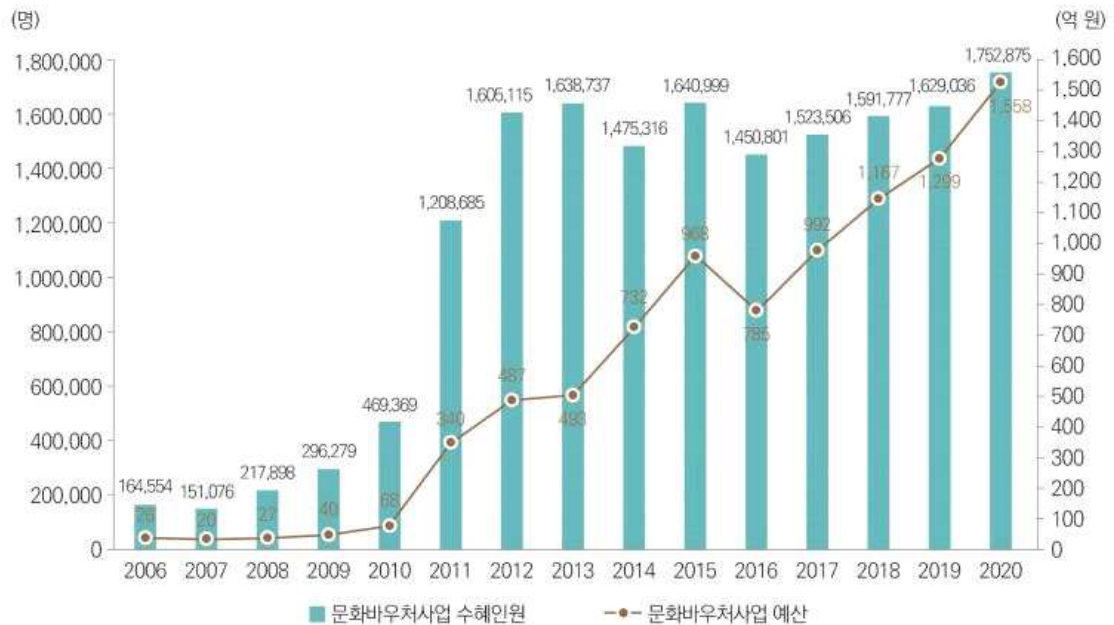
① 문화나눔

‘문화나눔’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투입하여 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관련 사업들의 통합 명칭으로 ‘문화나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문화공감’이 있다.

14) 인천in-인천문화재단 보도자료, “문화복지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야 한다.”, (2013. 09.16)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¹⁵⁾

‘통합문화이용권’은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등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을 발급하는 사업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005년 국고 4억원을 투입하여 문화바우처 시범 운영 이후, 2006년 26억원(기금 20억원, 국고 6억원)에서 2011년 340억원(기금 245억원, 지방비 95억 원) 2014년 732억원(기금 518억원, 지방비 214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은 총 1,558억원(문예기금 1,096억원, 지방비 462억원)이다.



[그림 2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및 수혜 인원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유일한 바우처 사업이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문화 향유 욕구를 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사업인 것이다. 당초 포인트제로 운영하던 문화바우처에서 2011년 카드제 도입 이후 2012년에는 선기명식에서 후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2013년에는 사업명을 순화(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외래어 순화 및 문예진흥법 상 법정 용어 적용)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대상자 자격검증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세대 검증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발급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방자치단체-지역주관처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여 지자체 및 지역 주관처의 역할을 강화하였다(기획사업 등). 공연장, 영화관, 서점 등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영화·음악, e-book, 중고도서 등 문화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5)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예술정책 백서」 81~86p 참조



[그림 2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체계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에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일원화 한 통합문화이용권을 도입하여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대외명칭을 ‘문화카드’에서 ‘문화누리카드’로 변경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을 계기로 가구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문화 경험이 중요한 계층인 청소년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추가발급 연령을 10~19세(2013년)에서 6~19세(학령기 아동 추가)로 확대하였다. 한편, 동일 세대원 간 카드합산 및 개인비용 충전 기능을 신설하여 사용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2015년에는 세대당 10만 원에서 개인당 5만 원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구성원 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5. 7.)에 따라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안정적인 카드 발급을 위하여 권역별로 순차 발급을 실시하였으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카드 발급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2016년에는 기획사업(문화더누리사업)을 폐지하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 관람뿐만 아니라 운동용품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가맹점 정보 현행화 및 가맹점 위치(좌표) DB 구축으로 모바일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맹점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고, 전국 체육시설을 이용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다. ‘문자도움말서비스’ 신설, 전문상담인력 투입, 표준상담 DB 구축,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 응대율을 제고하였다(2016년 58.6% → 2017년 76.5%).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7만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모바일 발급을 도입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불편 지역 거주자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용 분야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했으며 가맹점을 신규로 확충하였다. (캠핑장 117개소, 워터파크 31개소, 케이블TV방송, 체육시설 플랫폼 TLX 등) 아울러,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카드 발급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동일 일자에 시작함으로써 발급 시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일반적인 카드 디자인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8만 원을 지원하고,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교통 및 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발급 환경을 개선하였다.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 대상 권리구제 서비스 시행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영화관, 놀이공원, 지역 축제에서의 식음료 구입 허용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최근 문화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숙박 예약, 음원 재생, 전자책 구독, 취미생활 등)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폭을 넓혔다. 이용 잔액 불용액을 감안한 예산 대비 초과 발급으로 신청자에게는 모두 발급하고 불용액은 절감하였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9만 원을 지원하고, 위탁가정거소 아동 대상 별도 증빙서류 제출로 신청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초·차상위 전체 대상 권리구제서비스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다. 문화분야 기부 및 후원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 문화 권리를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가맹점(OTT서비스, 웹툰, 비대면 공연, 홈트, 썸씽, 텀블벅 등)을 대폭 확대 하였다. 지역 사회적 기업 연계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화결제 방식 도입 등 비대면 문화활동을 위한 다각적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발급과 이용을 달성하였다.

구분	발급인원(명)	이용금액(백만 원)
10대 이하	60,454	3,365
10대	268,357	17,294
20대	151,303	12,215
30대	90,362	9,191
40대	223,896	22,701
50대	276,585	23,197
60대 이상	681,918	53,467
합계	1,752,875	141,429

[표 29]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연령별 발급 이용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들은 ‘나눔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나눔티켓은 국·공립·민간의 문화예술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기부한 객석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문화나눔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람 후기 접수를 통해 이용자 의견 수렴 및 다양한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이용자들의 순수예술 향유 경험 축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분	나눔 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등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담 당자	사회복지사	계
구매인원(명)	2,082	1	3	2,086
예매횟수(건)	5,639	2	4	5,645
티켓매수(매)	13,916	4	14	13,934

[표 30]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이용 현황

구분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문화 일반	전통	국악	계
무료티켓(건)	9,584	2,094	1,209	-	187	19	-	444	13,537
할인티켓(건)	61	71	68	-	-	197	-	-	397
계	9,645	2,165	1,277	-	187	216	-	444	13,934

[표 31]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분야별 이용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신나는 예술여행¹⁶⁾

‘신나는 예술여행’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예술단체의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문화예술순회프로그램 개최 경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2004년 40억원, 2005년 48억원, 2006년 75억원, 2007년 75억원, 2008년 46억원, 2009년 62억원, 2010년 58억원, 2011년 80억 원, 2012년 93억원, 2013년 95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00억원, 2016년 200억원, 2017년 211억원, 2018년 210억원)을 받아 운영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복권기금이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운영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재원으로 2020년에는 208억원(운영비 포함)을 지원하여 277개 단체가 5,808회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향유층을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총 505,470명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였다. 2020년도에는 시설과 예술단체를 매칭해주는 매칭형 사업, 예술단체가 직접 기획하는 기획형, 만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된 청년형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사업명		프로그램수(회)	관객수(명)	단체수(개)	예산(백만원)
매칭형	연극	303	19,537	29	1,492
	무용	91	6,638	8	456
	음악	210	18,314	21	1,062
	전통예술	357	20,888	27	1,759
	다원예술	182	10,955	14	813
	문화일반	169	13,729	15	885
	소계	1,312	90,061	114	6,457

16)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예술정책 백서」 86~87p 참조

기획형	농산어촌마을순회	841	33,299	24	2,400
	지역자원연계	503	27,482	22	2,200
	축제형	167	28,224	4	600
	시각순회	88	178,400	6	600
	문학순회	189	7,910	11	313
	소계	1,788	275,315	67	6,113
청년형	청년형	2,708	140,094	96	6,670
	소계	2,708	140,094	96	6,670
총합계		5,808	505,470	277	19,250

[표 32] 2020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업 유형별 실적

지역	프로그램 수(회)				프로그램 수(명)			
	매칭형	기획형	청년형	총계	매칭형	기획형	청년형	총계
강원도	80	200	266	546	5,605	20,807	14,267	40,679
경기도	278	236	532	1,046	16,819	10,784	19,198	46,801
경상남도	105	404	103	612	7,900	13,289	4,674	25,863
경상북도	73	68	106	247	5,692	5,073	7,659	18,424
광주광역시	42	2	84	128	2,889	4,260	2,438	9,587
대구광역시	66	23	58	147	4,147	51,984	3,789	59,920
대전광역시	41	27	234	302	2,192	28,693	5,831	36,716
부산광역시	61	45	47	153	5,364	30,602	1,057	37,023
서울특별시	110	59	426	595	6,492	44,760	32,301	83,553
세종특별자치시	8	5	51	64	426	149	3,405	3,980
울산광역시	9	7	80	96	4,520	38,060	9,063	51,643
인천광역시	41	100	81	222	2,749	2,647	4,946	10,342
전라남도	146	124	185	455	8,653	4,802	8,489	21,944
전라북도	68	64	105	237	4,887	2,859	4,119	11,865
제주특별자치도	33	179	72	284	1,516	6,231	4,302	12,049
충청남도	100	123	149	372	6,693	4,865	8,469	20,027
충청북도	51	122	129	302	3,517	5,450	6,087	15,054
총합계	1,312	1,788	2,708	5,808	90,061	275,315	140,094	505,470

[표 33] 2020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프로그램 수 및 관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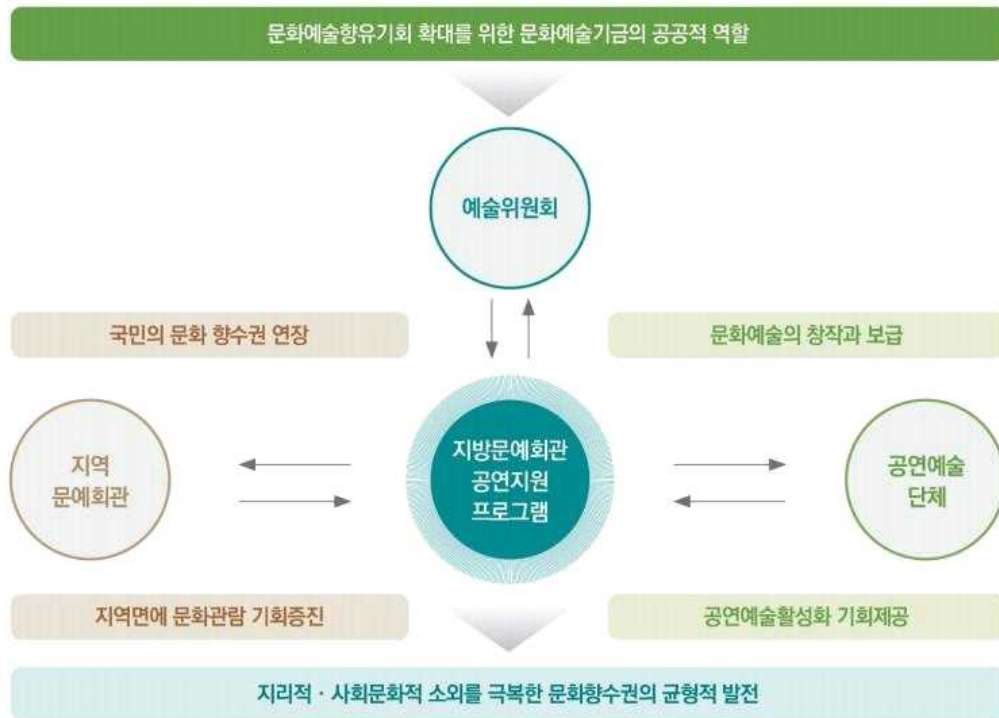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방방곡곡문화공감¹⁷⁾

‘방방곡곡문화공감’은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 등을 활용하여 문화 소외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균형적인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 공연의 창작·유통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예회관이 유치하는 프로그램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는 복권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다. 2020년에는 157.5억 원의 예산을 자치단체 재정

17)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예술정책 백서」 88~89p 참조

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한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문예회관에 책임성을 부여하여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발전시키고, 지방비 매칭을 위한 자체 심사과정을 통해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운영 능력이 향상되게 되었다.



[그림 29] 공연나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개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②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문화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소양은 개개인의 차가 크고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문화적 취향과 역량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예술적 경험과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중요한 문화복지정책이다.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꿈의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¹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예술 강사들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

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예술정책 백서」 493~495p 참조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2004년 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추진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06년 노인복지관 연극분야, 장애인복지관 무용분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노인·장애인 대상 신규분야 교육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아동 대상 6개 분야, 노인 대상 3개 분야, 장애인 대상 2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복지관 이용 노인 및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협력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 분야 외 노인미술, 노인사진, 장애인미술, 장애인영화 총 4개 분야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 아동에서 성인까지 참여자 대상을 확대(장애인 영화분야)하였다. 2013년에는 아동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장애인 분야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과 형제, 자매,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예술가와 연계한 예술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국악과 연극 분야가 신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현장 수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증대하고자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을 확대하였다. 2016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축제 <예올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8년~2019년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예술강사가 참여하는 <지식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 사례와 노하우를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활동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 및 예술강사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강사비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또한 예술강사 전환역량 워크숍 “우리가 우주를 헤엄치는 방법”을 개최,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예술강사 대상으로 신속·유연한 대응 및 현장경험·수요 중심의 워크숍을 실행하여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전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구분	시설 수(개소)				참여자 수(명)			
	아동	노인	장애인	합계	아동	노인	장애인	합계
2005	201	-	-	201	7,694	-	-	7,694
2006	213	48	23	284	837	916	285	2,038
2007	201	59	20	280	7,263	1,095	184	8,542
2008	178	67	32	277	6,572	1,297	343	8,212
2009	235	62	30	327	7,695	1,240	310	9,245
2010	143	84	47	274	4,542	2,853	628	8,023
2011	144	132	58	334	4,610	3,410	650	8,670
2012	147	206	89	442	4,243	4,890	1,060	10,193
2013	160	169	96	425	4,423	6,396	1,457	12,276
2014	145	190	124	459	4,545	5,353	2,202	12,100
2015	150	200	182	532	3,690	6,050	2,854	12,594
2016	145	213	250	608	3,246	5,709	3,611	12,566
2017	143	226	237	606	2,993	6,234	3,685	12,912
2018	132	235	208	575	2,910	6,276	3,643	12,829
2019	127	252	209	588	2,654	6,199	3,670	12,523
2020	105	245	270	620	2,207	4,723	3,185	10,115

[표 34] 사회분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현황(2005~202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¹⁹⁾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정부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기본방향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은 협력 부처·기관에서 교육 참여 수요 시설·분야를 조사하고,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단체를 선발하여 교육 시설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종 매칭된 운영단체와 교육 시설은 연간 60시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부대, 교정시설 재소자, 소년원 학생, 소외 아동·청소년,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층이 다양하다. 소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2012년 주말을 이용한 장르 융복합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협력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에는 약 8천여 명을 대상으로 628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방과후청소년 대상 사업은 소외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력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011~2018년까지 권역형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2019년부터 17개 시·도 지역 안배를 고려한 운영형태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에는 17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학교밖청소년 대상 사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출, 자립, 탈학교, 미혼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2012년 ‘청소년 문화예술 돌봄 프로젝트 지원’으로 시작되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운영하며, 2020년에는 51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구분	연도	군부대	교정시설	소년원 학교	치료감호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상이 군경
예산 (백만원)	2015	2,613	663	247	91	3,355	640	962	710	52	69
	2016	2,990	702	286	104	3,900	320	949	717	52	208
	2017	2,925	702	286	104	3,732	368	949	720	52	208
	2018	3,03	716	149	108	3,870	320	999	405	122	216
	2019	3,038	716	297	108	4,158	284	999	405	122	216
	2020	2,835	702	284	108	4,778	230	702	216	122	216
프로 그램 수개	2015	201	51	19	7	610	80	74	39	4	10
	2016	230	54	22	8	650	40	73	39	4	16
	2017	225	54	22	8	622	46	73	36	4	16
	2018	225	52	11	8	645	40	73	30	9	16
	2019	225	53	21	8	690	21	72	30	9	16
	2020	116	46	19	-	628	17	51	14	7	11
수혜 자수 (명)	2015	3,828	734	297	129	9,371	1,001	765	666	119	185
	2016	4,844	814	360	148	10,456	647	940	935	85	301
	2017	4,799	1,069	400	166	9,661	779	969	911	130	354
	2018	4,472	905	192	145	9,680	668	847	720	143	335
	2019	4,194	821	321	151	10,511	329	895	607	130	301
	2020	2,060	548	462	-	8,353	207	613	255	98	172

[표 35] 부처 간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2015~2020)
문화체육관광부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운영프로그램 및 수혜자 수 감소, 치료감호소 폐쇄로 인한 교육 미운림

* 예산은 백만원 이하 반올림

19)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예술정책 백서」 495~496p 참조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²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성·가정폭력 등의 피해 소외계층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 따라 심리적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특화된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7개 각 부처(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사행위)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였다. 또한 역량 있는 운영단체 및 참여인력(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등)을 선정하여 대상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등을 통해 전문적인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게임 과몰입자를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부처 협력 대상 외 지원 사각지대 대상을 지원하고자 운영단체가 직접 대상을 발굴하는 방식을 일부 도입하였으며 2020년도까지 감정노동자, 사별 경험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난치병 환자 및 가족, 미혼모자, 가정 밖 아동, 과거 여성노숙자 등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써왔다.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2017년 10월)에 따라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 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까지 확장하여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구분	부처협력형			기획형			치매예방형		
	프로그램	수혜시설	수혜인원	프로그램	수혜시설	수혜인원	프로그램	수혜시설	수혜인원
2015	77	58	661	-	-	-	-	-	-
2016	84	77	853	-	-	-	-	-	-
2017	88	77	919	11	6	91	-	-	-
2018	85	77	1,328	7	7	76	6	5	63
2019	74	68	802	22	22	236	24	24	236
2020	63	62	731	30	30	287	30	30	254

[표 3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 현황(2015~202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③ 문화재단의 문화복지사업

앞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정책 중 문화나눔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 일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문화나눔사업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문화적 향유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이들의 향유권 뿐만 아니라 창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문화재단에서 문화복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1인 노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문화예술로 완화·치유하고자 시도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 부산문화재단, ‘착한그물’ 사례

‘착한그물’ 사업은 2010년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집 밖 출입이 어려운 원천적인 문화향유 사각지대에 놓인 재가복지 대상자들에게 예술가가 직접 방문하여 문화에

20)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예술정책 백서」 497p 참조

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국민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의 매우 큰 성과를 얻었다. 2010년 53명의 예술가가 290곳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32명이 1,141곳, 2012년에는 32명이 977곳, 2013년에는 35명이 1,700곳, 2014년에는 49명이 1,772곳, 2015년에는 24명이 650곳의 취약계층 자택을 방문했다.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으로 2014년까지 진행되다가 2015년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으로 사업 주체가 바뀌고 사업 명칭도 <실버문화복지 착한그물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가 2016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해당 예술 분야도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미술, 비즈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한지공예, 문학, 무용 등으로 다양했고, 참여한 예술가들도 관련 분야 전공자로 착한그물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전문예술가', 관련 전공자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만 55세 이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버예술가' 3가지 유형이 있었다. 이들 예술가들은 전문예술가는 방문 1회당 5만 원, 청년예술가는 4만 원, 실버예술가는 2만 원을 지원받고 취약계층과 다양한 예술 향유 및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기존 문화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비롯,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재가복지세대 등이었는데 이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매년 예술 분야, 예술가 수, 참여자 수, 방문 횟수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드리는 착한그물 사업에 대한 좋은 성과로 인해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그림 30] 착한 그물' 사업 활동사진
출처: 부산시보, 부산일보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예술치유 프로젝트' 사례²¹⁾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서울시가 조성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구)성북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2010년 7월 '성북예술창작센터'로 개관하였다. 그동안 시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선도해온 성과에 기반하여 2016년 4월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치유공간으로 거듭났다. 다양한 장르 예술가와 치유 전문가가 함께하는 예술치유 특화 콘텐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삶의 고단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한 위로와 재화를 지원하는 따뜻한 예술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는 예술가 스튜디오, 갤러리, 다목적홀, 주민창작실, 옥상 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보건소였던 장소성을 살려 예술을 통해 마음

21) 서울예술치유허브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sbartspace>

을 치유하는 ‘예술보건소’를 모토로 시민의 삶과 사회 치유를 위한 다양한 예술치유사업을 특화 운영하고 있는데 치유적 예술가/단체 및 전문 예술치료사들의 창작/치료 활동 발굴·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외부 단체/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치유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시민의 삶과 밀착된 예술,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을 육성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철도기관사, 콜센터 상담원, 한부모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시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술활동을 통해 회복하고자 기획했던 <예술마음치유>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반하여 2016년부터는 미혼모, 취업준비생 등 대상 집단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7년에는 독거노인, 한부모 등 주요 사회적 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3개년 중장기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로 설계했고 2019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의 위기 계층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하는 ‘사회적 예술치유 랩’과 예술에 내재한 치유성을 바탕으로 일반성인 및 특정계층을 대상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예술로 힐링’을 운영하였다. 2021년에는 위드코로나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회복을 위한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자율기획형과 기관협력형으로 구분하여 공모·지원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31] 서울예술치유허브 외관 및 내부 사진
출처: 서울예술치유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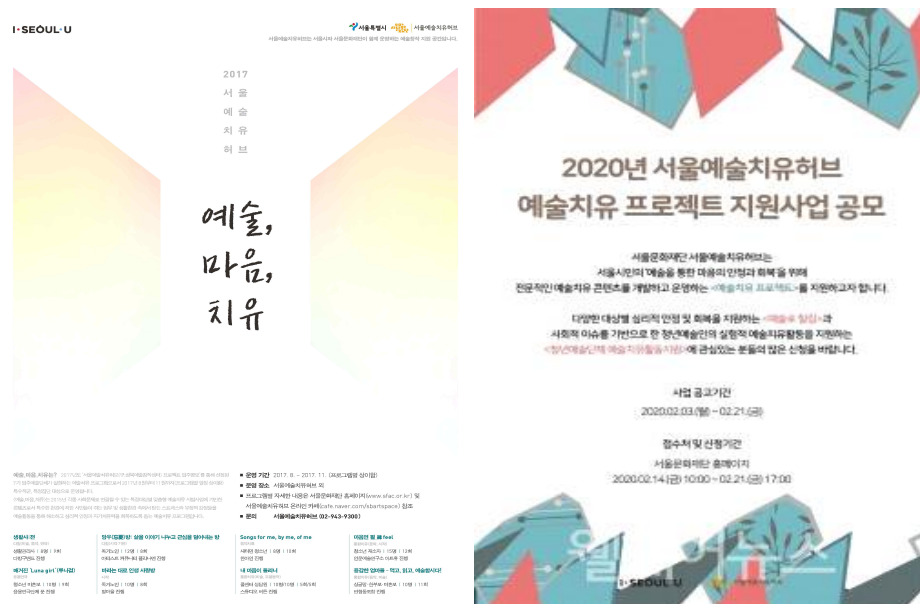
그간 운영해온 예술치유 프로그램 중 1인가구, 노인, 사회적 위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2017년 다방구밴드가 운영한 ‘생활사:전’, 아티스트 커뮤니티클리나멘의 ‘망우(忘憂)방:삶을 이야기 나누고 근심을 덜어내는 방’, 별마울의 ‘바라는 대로 인생 사랑방’을 꼽을 수 있다.

‘생활사:전’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작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유년기로부터 청소년·청년기를 거쳐 현재, 미래(노년기)까지의 연대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직업(생활관리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독거노인에 대한 시선과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독거노인을 만나러 가는 일상적인 길과 공간을 주제로 매일 똑같은 수 있는 일터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망우(忘憂)방:삶을 이야기 나누고 근심을 덜어내는 방’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들과 함께

예술을 통한 자기 인식과 성찰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소통해 나가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시각적 결과물보다는 말하기, 듣기, 움직이기 등의 자기표현 과정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형 프로그램으로 신체 및 언어감각, 촉각감 등을 극대화하고 소근육에서 대근육을 다양하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무뎠던 신체감각 회복과 자기 내면을 공동체와 함께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련되었다. 현대사회의 ‘독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현재 노년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와 성찰을 발견하고 주목함으로써 노년의 삶이 주는 가치를 발현하도록 우울과 고독감, 삶에 대한 원망과 무기력, 소통의 어려움에 처한 독거 어르신들과 예술가들이 만나 ‘함께 하는 것과 소통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 노년에 대한 자존감과 삶의 활기를 찾아드리려 하였다.

‘바라는 대로 인생 사랑방’은 드로잉과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독거 노인 스스로가 다양한 시각예술 창작 과정을 통해 개인의 역사와 자신이 살아온 공간의 역사를 연결해 지역 생태계의 일원인 자신의 삶과 자기 스스로 긍정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년층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2020년에는 저소득층 어르신이 예술 활동을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와의 대화 창작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그림 32] 예술치유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2017년, 2020년)
출처: 서울문화재단

나.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사례

가족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삶을 가꾸는 선택적 1인가구부터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형성된 비자발적 1인가구까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1인가구는 세대와 연령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혼자 사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가족도 사회도 절대적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하는 요즘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1인가구가 자신의 삶의 주체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 협동하고 연대하는 삶이 누구보다 더 필요하기에 1인가구들의 연대와 협력의 움직임은 민간

영역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만나고 관계를 확장하며 자연스럽게 1인가구의 공감대를 현실화하여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1인가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상호 간의 든든한 생활 안전망이자 개인의 삶의 지향을 완성하는 지지집단이 된다.

민간에서의 이들의 사례는 대안적 삶에 대한 욕구와 함께 청년과 마을공동체가 결합, 연대하는 과정 속에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점차 가시화되어 이후 공공과 만나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다양하고 수많은 사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고립을 탈피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와 마을의 만남을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명랑컴퍼니, ‘명랑마주꾼’ 프로젝트²²⁾

명랑컴퍼니의 ‘명랑마주꾼’은 사회적 기업 ‘노리단’에서 활동하던 우OO(당시 30세)씨가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를 통해 청년 혁신 활동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2013년 마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2012년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00일 동안 6명의 주민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명랑마주꾼들은 이를 고립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주민들의 고립감과 관계를 명랑하게 마주 보는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수급권 때문에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모두 끊겼다는 증명해야만 하는 빈곤 상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선 대단한 행사나 그럴듯한 수혜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말을 걸거나 함께 모여 뜨개질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잡지 <마주이야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장보기를 도와드릴 수 있고,’ ‘전구도 갈아드리고요,’ ‘목욕탕에서 등 밀어드려요,’ ‘말벗 해드려요,’ ‘집 청소 도와드려요’ 등 명랑마주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쿠폰을 인쇄한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에 붙이거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7명의 청년혁신 활동가와 20여 명의 마주꾼들의 활동이 자리 잡아갈 2013년 가을, 단지 내의 한 노인이 방에서 홀로 죽은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고독사’를 처음 마주한 마주꾼들은 이를 <808호>란 제목의 짧은 다큐로 만들고 이후 <경한 아저씨, 안녕>이라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상영하게 된다.

명랑마주꾼들은 도시 거주민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영상, 에세이, 그림, 음악 등 예술적 표현을 통해 도시에 만연한 고립감과 외로움 등을 적극적으로, 명랑하게 마주하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작업들이 고독사한 사람들을 기리는 ‘안녕(安寧), 안녕(安靈)하세요’ 추모제, 청년 쿠폰을 발전시킨 ‘명랑수리공’, ‘안녕음악회’, 동네 여행을 하며 영상을 찍는 ‘명랑여행자’ 등이었다. 그러나 명랑컴퍼니의 이러한 활동들은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 지원사업이 끝나고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 지원사업을 통해 유지하다가 이후 활동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1인가구, 고립, 고독사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대안적 움직임이자 문화예술적 표현을 통해 주민들과의 관계맺기, 지역회복을 시도하고 꿈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2) 명랑컴퍼니 <https://mungrang.tistory.com/category/?page=38>



[그림 33] 명랑마주꾼의 다양한 ‘작업’ 사진
출처: 명랑컴퍼니

② 피터아저씨 밴드, ‘아현동 쓰리룸²³⁾&언뜻가게’

‘아현동 쓰리룸’은 2013년 대전 출신의 인디 음악인(김O, 김OO, 천OO) 3인이 서울 아현동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방 3개짜리 쓰리룸에서 함께 살면서 청년허브에서 진행하는 청년참(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피터아저씨’라는 포크밴드 음악 활동과 공연 기획을 마을에서 하며, 매주 목요일 집밥모임 ‘목요일엔식당’을 하게 된다.



[그림 34] 아현동 쓰리룸 공연&집밥모임 사진
출처: 아현동 쓰리룸@우리동네가요 페이스북

23) 아현동쓰리룸 <https://www.facebook.com/groups/1421435521436210>

가정집에서 하는 ‘홈메이드 콘서트’와 소셜다이닝 서비스 이외에도 재건축 예정지였던 아현 2구역의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을 병행하며 동네 주민들 간의 관계를 되살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날로 피폐해지는 동네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이후 집밥 모임에서 만난 이들이 모여 마을의 작은 공간을 따로 얻어 ‘언뜻,가게’를 오픈한다. ‘언뜻,가게’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고민과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동네 안에서 예술활동이 묻어날 수 있도록 조성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종의 동네 밥집, 술집, 가끔은 공연장, 미술관 등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35] 언뜻,가게’ 외부 사진
출처: 아현동 쓰리룸@우리동네가요 페이스북

그들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과 상관없는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수요를 찾고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예술 활동을 하길 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는 2016년 KBS1 ‘다큐공감’을 통해 ‘우리동네사람들’과 함께 청년세대의 새로운 주거 형태, 대안적 삶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그해 여름 아현 2구역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부득이하게 명륜동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그럼에도 아현동에 남아 있던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 집회에 함께 하며, ‘명륜동 쓰리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나가지만 2018년을 끝으로 활동의 흔적이 끊긴다.

‘아현동 쓰리룸’에 모인 사람들은 지역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사는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뭉치지 않는 대신 취향이나 관심사, 비슷한 삶의 가치나 지향, 당장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만나고 그 안에서 그들만의 관계와 활동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자유로운 드나듦을 통해 마을 안에서 유연한 관계를 확산시키며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갔다. 물론 재개발이라는 예정된 결말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그럼에도 청년예술인들이 동네에서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1인가구들 간 만남을 이끌고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과 예술활동, 지역과의 접점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우리동네청년회, 2030 반찬나눔모임 ‘반쪽’

‘우리동네청년회’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맺어진 인연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 주로 사회적인 문제(세월호 집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청년 나비 설립, 도시 농업 등)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그중 2~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반찬모임 ‘반쪽’은 월 1회 1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 반찬을 만들고 주위 독거 노인들에게 이를 배달하는 봉사모임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36] ‘반쪽’ 모임 포스터 및 활동사진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월간 마을 7월」

홍대에 위치한 ‘상상언저리’ 카페에서 반찬을 만들고 마포 일대를 중심으로 연남동조, 망원동조, 성산동조로 3개의 조를 나누어 어르신들 댁으로 배달한다. 이들의 꾸준한 활동으로 인해 어르신과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반쪽’ 뿐만 아니라 우리동네청년회 전체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반쪽’에서 하는 연간 행사 ‘좋은만두하지(외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만두를 빚어 독거노인들에게 전해드리는 행사)’, ‘사랑의 물래산타’ 등을 할 때는 청년회에서 모두 힘을 모아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우리동네청년회는 ‘반쪽’과 같은 다양한 소모임들을 지원하고 이 소모임들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또래 집단의 즐거움과 사회적인 활동을 연결하는 방식이었기에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동네청년회와 반쪽모임은 청년들이 ‘나답게 잘 살기 위해’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지역 안에서 매우 간단하고 실제적이며 직관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을 찾을 수 있다.

④ 행복발굴단, ‘청년머슴’

행복발굴단은 경남 김해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협동조합이자 박OO, 배OO, 김OO 세 청년을 주축으로 지역 청년들이 결합된 공동체이다. 이들은 청년예술인협동조합이기 이전에 ‘약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자’는 취지로 이 단체를 만들었기에 ‘서로 사랑하기, 행복하기, 약한 사람 주인공, 하고 싶은 것 다하기’라는 4가지 원칙 아래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 초창기 버스킹 공연을 통해 공연비조차 제대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청년예술가의 실상, 소외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돕고자 자처한 상담사 역할과 구제 활동 등이 시작점이 되어 문화기획, 청소년방송국, 청년머슴사업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중 ‘청년머슴’은 행복발굴단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사업 1호로, 김해 내외동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스톱 치는 짝이 되어주거나 주차 서비스, 번기 뚫어드리기, 마트 짐 들어드리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찬 1통 또는 집밥 한 끼를 보상으로 받는다.



[그림 37] ‘청년머슴’ 포스터 및 활동사진
출처: 행복발굴단 네이버 블로그, 김해시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청년머슴’ 사업은 청소년 등 15명이 활동하는데 2019년 5월에는 김해시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시청 희망복지지원단과 함께 독거 노인의 집 청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후원자나 지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였기에 마을을 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 어쩌면 마을 경험한 마지막 청년세대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지역에 정착하려는 이들이 낯선 마을에서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이웃이 되고 조력자가 되어 그들의 가게나 활동을 돕고 지역과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방점을 두는 일들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행복발굴단의 활동들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청년들의 대안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 현재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2019년부터 청년희망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김해시의 ‘김해형 청년123정책’과 맞물려 향후가 주목된다.

다. 민간-공공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사례

앞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펼쳐진 사회적 고립에 접근하는 문화예술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사례들은 문화복지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의 사례들이었다. 그러나 고립에 접근하는 문화예술 사례들은 중앙정부를 벗어나 각 지자체의 문화나 복지 관련 사업 속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즉 대상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고립에 접근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완화한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①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STAY.G’²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STAY.G)’는 2019년 말 역삼동에 개관한 1인가구를 위한 문화 휴식공간이다. 1인가구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STAGE) 강남(GANGNAM)을 의미하는 ‘스테이.지(STAY.G)’는 혼자 사는 청년층이 휴식·힐링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들이 서로

24)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https://gangnam1.org/>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남구청이 설립하고 (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곳이다. 면적 386.4㎡의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휴식과 충전’을 콘셉트로 라운지·개인공간·휴식공간이 있고, 2층은 ‘교류와 발전’을 콘셉트로 상담실·세미나실·공유주방·강연무대 등이 마련되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38] STAY.G 1, 2층 내부 공간 사진
출처: STAY.G 홈페이지

STAY.G의 2020년 활동성과집에 따르면 3,972명이 공간을 이용했으며 멤버십 가입자가 831명에 이른다. 크게 세 가지 분야(1인가구 안전망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1인가구 활력지원)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강남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과 기업이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은 16회 진행되어 656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D'LIVE 강남케이블TV가 만나 TV안부확인 서비스를 649명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1인가구 건강 클래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시범운영 때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기계발 및 취미 활동, 지역사회에서 1인가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개설·운영하도록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소모임 지원사업 역시 반응이 좋았다. 그 밖에도 소셜다이닝, 각종 강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²⁵⁾

STAY.G의 사업들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가구 활력지원 사업인 특화상담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1인 브랜딩 지원 프로그램이다. 마음건강 워크숍 <Find Me_나를 보다>와 1:1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1인가구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외로움, 번아웃 증후군, 상대적 박탈감 등의 심리적 건강까지 돌보고자 했다. 그리고 음악 명상 콘서트,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비밀엽서 프로젝트, 조크샵 등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25) 강남구청·(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 「2020 Annual Report :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첫 1년의 기록」

치유에 머물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자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와의 개별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찾고, 자기가 가진 콘텐츠와 그 콘텐츠에 맞는 미디어 플랫폼을 결정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지원하였다. 현재 개관한 지 2년 정도 지났고, 관 지원으로 마련된 공간이라 향후 강남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 39] STAY.G 1인가구 활력지원 프로그램(마음위크숍, 비밀염서, 반고호음악회) 사진
출처: STAY.G, 「2020 Annual Report :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첫 1년의 기록」

② 양천구 ‘나비남(나非男)’ 프로젝트²⁶⁾

양천구의 ‘나비남’은 2017년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50대 독거남성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이다. ‘아닐 비(非)’자와 ‘사내 남(男)’자를 통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나비남’ 프로젝트는 고독사의 비중이 크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50대 독거남성(만 50~65세)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총 4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50대 독거남성들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조사를 거부한 50대 독거남성들에게도 복지, 일자리, 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2단계는 멘토단을 구성하여 ‘관계맺기’를 진행했는데 멘토단이 친구이자 이웃, 조연가의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심층 분석하여 3단계 맞춤형 해답을 제시했고 4단계에서는 이들의 사회 공동체 복귀와 나아가 도움을 받았던 멘티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천 50대 독거남 지원협의체, 나비남 멘토단, 50스타트센터 총 4개 축으로 종합지원체계가 구성되었고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책까지 마련하는 한편, 각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26) 나비남 프로젝트 - 나는 혼자가 아니다 <http://navinam1.godohosting.com/>

있는 거점인 ‘50스타트 센터’를 개소하였다. 특히 독거남성의 사회복귀를 위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드러내는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술교육’이 진행하였는데, 2017년부터 열린 ‘나비남 영화제’는 시나리오 작성부터 배우, 영상 촬영에 이르기까지 나비남들이 직접 참여, 제작한 자신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단편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또한 2018년에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미술교육이 진행되었고, 신정2동 등 개별 동 지역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교육을 진행하여 사진전을 열기도 했으며, 자조모임을 통해 함께 연습하고 지역행사에 공연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나비남 프로젝트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나비남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사회에 진출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역할도 감당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 5년째로 접어들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조명받고 있다.



[그림 40] ‘나비남’ 영화제 포스터, 예술교육 및 자조모임, ‘50스타트 센터’ 리플렛
출처: 나비남 프로젝트 웹호스팅

③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²⁷⁾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보호와 사회관계망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해 주거, 일거리, 건강·여가프로그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 안양시, 이천시, 여주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에 6곳이 개소한 이후, 2019년에 46개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광명시의 카네이션하우스가 1개가 폐지되면서 현재 45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이장·부녀회장 등 마을 리더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7년 대상자 범위, 예산 사용, 설치 기준 등이 포함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지침을 각 시·군에 배포하였다. 과거 2013년 시범사업에서 공동 주거를 시행하였으나 공동주거 참여 노인 간의 불화 등으로 이유로 주거 기능은 폐지되었다.

2020년 카네이션하우스는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과의 유사성, 소일거리와 건강·여가프로그램의 불균형, 소일거리와 관련된 갈등 등 기존의 과제와 참여 노인의 고령화, 행정력 부재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41] 카네이션하우스 외관 및 활동사진
출처: 카네이션하우스

이에 경기복지재단의 「2020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카네이션 사업 추진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강화 속에서 돌봄 공동체 구성의 거점 역할을 부여할 것과 독거노인 중심에서 지역사회 노인대상으로 대상자 범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27) 경기복지재단, 「2020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과 카네이션하우스가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의 우려와 카네이션하우스의 경로당화를 방지하고자 공간을 분리할 것, 소일거리가 강화된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작업장으로 전환할 것,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할 것, 참여 노인의 고령화를 고려한 프로그램 보완을 위한 민간자원과 협력할 것,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것 등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공동체 기능 회복과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노인복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참여 노인의 고령화 및 커뮤니티케어로 발전하기 위한 독립 공간의 필요, 일거리와 생산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을 안에서 노인의 역량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지역의 복지정책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

④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1인가구 공동체 공동부업 지원사업’

‘1인가구 공동체 공동부업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체성 인식 제고와 관계망 형성 및 혼밥 개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가족 안전망 해체,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이웃과 유대감 저하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짐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 및 혼밥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연계하고 공동체 모임 양성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에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각 시군 마을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했다.

2021년도 첫 시작으로 경기도 각지의 총 18여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각 4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장 10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요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활동공유회와 1인가구 공동체 공동부업 페스티벌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참여자들은 전통적 방식, 즉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일상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에 대한 경험과 ‘독거’ 보다는 ‘공동체’, ‘이웃’, ‘연결’에 더 주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의 지속성에 대한 바람과 염려 또한 드러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추진한 1인 가구를 위한 공모 형식의 지원사업이기는 하나, 지역의 다양한 민간 단체 및 공동체들이 참여하여 사업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들은 다양한 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혼밥 개선 및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프로젝트는 미비한 편이었다. 1인가구 간의 연결, 1인가구와 이웃의 연결, 1인가구와 마을의 연결 등,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공동체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하고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례로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모집공고 포스터 및 안산·의정부 활동사진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스타그램

3. 시사점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외부환경(과학기술의 발달, 인구사회 구조·문화예술환경)의 변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 정책의 변화, 공공·민간 사례 등을 알아보았다. 간략히 정리하면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접근한 사회적 고립 완화의 형태는 주로 공공영역에서 문화복지정책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예술 향유 중심의 프로그램화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부터 달라진 사회적 요구(1인가구, 고립, 고독사 등)에 부응하는 각종 문화예술적 접근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명랑마주꾼, 아현동 쓰리룸, 우리동네청년회 등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만남과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자 했던 시도들이었다. 이후 이러한 시도들이 공공영역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 무렵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세간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시대 구분을 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코로나19는 인류 문명과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변곡점이 되었다. 문화예술계 역시 그간 문화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았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재난사회 속에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탐색과 시도를 명받았다. 따라서 이제는 보편화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화예술적 시각을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특정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각화된 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시도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이 시사하는 세 가지 지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 고립의 경험에 따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재인식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구의 노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촉발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중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코로나19 라는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고립의 경험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자 사람들은 더는 특정 계층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며,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 재난의 시대에 예술가들이 그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보여준 위로와 공감, 연대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이 지닌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계각층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회복과 연결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문화예술을 꼽고 있다. 즉 우리가 맞닥뜨린 난관을 극복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이 가진 치유와 회복, 연결의 힘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깊이 인지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삶의 안전망으로서의 통합적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요구

그간 문화정책의 큰 축으로 이루고 있던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의 민주화 방향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적 배려를 강조한 문화예술 향유사업에 치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물론 전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 잠재역량 등을 높이기 위한 직·간접적인 일체의 문화예술적 노력인 문화민주주의의 방향으로의 추진과 그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긴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 ‘문화로 연결되는 따뜻한 사회’ 역시도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문화정책 방향에서 추진된 사업들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문화안전망’ 개념이 일부라도 반영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사회적 외로움 완화’가 구체적 목표로 설정되고 이를 반영해 ‘문화돌봄사’ 제도의 도입이나 문화를 통한 다양한 연결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사회적 심리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점 등에서는 향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겠지만 국민 삶의 안전망으로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자치분권 2.0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에서 하향식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었던 다수의 정책사업이 지방자치의 통합적 정책 수립으로 그 지역의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과 관련 사업들의 시행으로 변화될 것임이 예견된다. 이에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문화예술 분야가 행정,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의 수립 가능성 또한 농후해지고 있다.

다. 예술가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예술 활동의 다각적인 모색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이 재난의 시대에 예술의 존재와 가치가 왜 중요한 것인지 대해 현장에서는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가들 스스로 지금까지의 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 및 예술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코로나19가 던진 파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 해당하지

만 문화예술계만큼 큰 타격을 입은 경우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했다. 예술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불규칙적 수입에 의존한 삶을 살아야 했고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기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창작활동으로 여기는 낮은 사회적 인식에 놓였는데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굴하기보다는 그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예술가의 활동은 상품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사회적 긴장 완화, 문화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등)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책 마련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모니카 그뤼터스 독일 문화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 성명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예술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 처우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가 예술가들을 공공선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전문인력으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공고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예술가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함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로서의 예술활동 형태와 내용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중 하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임은 자명할 것이다.

V. 영도 내 사회적 고립에 관한 개념도 연구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립 위험에 처한 주민 집단과 복지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복지사와 공무원 그룹을 대상으로 고립 요인, 고립 완화 방법에 대해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고 질적 분석과 양적 통계분석을 통해서 고립 요인, 고립 완화 방법에 대한 개념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개념도를 이용하여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인식하는 고립 요인, 고립 완화 방법의 개념과 차이를 파악하고, 도출된 결과를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에 적용하였다.

가. 개념도 연구법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법은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의 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현상의 이면을 탐색하고 기술하는 절차(Kane & Trochim, 2007)로 정의한다.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방법 절차에 대해서 사고(thinking) 또는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종합하고 편집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의미 있게 분류하면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기술했다. 이때 시각적으로 표현된 개념의 차이는 물리적 거리로 표현되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이 특정 경험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하는지를 조사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해당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잠정적 또는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혼합 연구법으로, 연구대상의 질적·주관적 경험을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이라는 다변량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다차원척도 분석법(Multi Dimensional Scaling)²⁸⁾

다차원척도 분석법(Multi Dimensional Scaling)은 대상에 대해 응답자들이 판단한 유사성 자료 또는 근접성 자료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통계 데이터 기법이다. 공간적으로 시각화한다는 것은 자극들 사이의 판단된 유사성이 그들 사이의 공간적 거리(distance)로 구체화하여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지각도(perceptual map: positioning map) 등으로 나타난다. 즉, 개체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상호 관계구조를 시각화하는 기법이기에 때문에 연구 참여집단의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여 집단 간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지각을 다차원 공간상에 표현한다. 유사성이 큰 대상은 가깝게, 유사성이 작은 대상은 멀게 위치한다.

○ 군집분석(Cluster Analysis)²⁹⁾³⁰⁾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그 유사도에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합쳐가는 그룹핑 방법으로, 거리가 가까운 대상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의미이다. 사전에 집단이 나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변수

28) 박광배(2000), 측정·평가8 다차원척도법, 교육과학사. p.27.

29) 곽호완 외(2008),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30) 이학식(2017), 제4판 마케팅조사, 제17장 군집분석, 집현재

들에 걸쳐서 유사한 대상들이 집단화를 이룬다. 군집화 방식은 계층적(위계적) 군집화, 비계층적(비위계적) 군집화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화의 Ward법을 사용했다. Ward법은 군집 내 편차들의 제곱합을 고려하여 군집 내 거리를 최소화하여 비슷한 크기의 군집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개체가 결합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구조인 덴드로그램(Dendrogram)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 개체는 하나의 군집에만 속하게 된다. 덴드로그램은 개체 간 계층적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덴드로그램을 해석할 때 두 개체가 결합된 위치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개체 간 연결되는 링크의 높이로 상호 유사성을 알 수 있다.

○ 스트레스(stress=합치도)³¹⁾

스트레스(stress)는 MDS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대상들 간의 실제 거리와 추정된 거리 사이의 오차를 의미한다. 즉 부적합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스트레스 값은 표현공간의 차원이 클수록 작아지나, 표현공간의 차원이 클수록 결과는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제한한다. 왕은자(2009)는 다차원 척도분석에서 핵심 통계진단을 ‘스트레스 값’ 부르며, 스트레스 값은 다차원 공간에서 나타난 진술문 간의 상대적 거리의 적합도를 보는 것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보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했다.³²⁾

Kruskal(1964)은 스트레스를 표시하는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 이 크게 꺾이는 지점의 차원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차원의 수가 증가해도 스트레스의 감소, 즉 스트레스 값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다차원척도법에 따른 각 진술들의 상대적 거리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값이 유효한 군집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념도 연구에서는 0.206~0.365 사이의 스트레스 값이 존재할 때 연구 결과가 적합하다고 본다(Rosas and Kane, 2012).³⁴⁾

$$stress = \sqrt{\frac{\sum (d_{ij} - \hat{d}_{ij})^2}{\sum d_{ij}^2}}$$

d_{ij} : 실제거리 혹은 응답자들의 응답한 거리
 \hat{d}_{ij} : MDS에 의해 추정된 거리

Stress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면 추정거리와 실제거리가 일치하면 0이다.
 값이 작을 수록 추정거리의 적합도는 높은 것이다.

○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

다차원척도 분석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는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인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로, 개념도 분석에서는 0.6 이상이면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Kruskal, J. B., & Wish, M.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p.24-25,

32) 왕은자. 2009. 기업상담 효과에 대한 세 관련 주체(내담자,관리자,상담자)의 인식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 박광배. 2000. 측정·평가8 다차원척도법, 교육과학사. p.72.

34) 이신혜 외, 2020, 서울시 대중교통시설 교통약자 접근성 평가지표 개발: 도시철도와 역사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p.81

2. 연구 절차

개념도 연구 절차는 ‘개념도를 위한 준비 → 아이디어 생성과 최종 진술문 통합 및 편집 → 진술문의 구조화 → 개념도 분석 → 개념도 해석 → 개념도 활용’의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6단계는 후속 계획인 문화예술적 접근의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활동을 체계화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가. 개념도를 위한 준비

개념도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준비단계로서, 초점질문을 도출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아래와 같은 기준과 내용에 따라 영도구에 거주 중인 주민이자 1인 생활자(남 5명, 여 3명), 영도구에서 근무 중인 복지사·간호직 공무원(남 3명, 여 4명)을 선정하여 총 1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① 연구참여자 선정

○ 주민 연구참여자(이하 주민 집단)

영도구 8개동(남향동, 신선동, 동삼1동, 동삼3동, 영선2동, 봉래2동, 청학1동, 청학2동)의 복지팀과 영도구청의 도움으로 각 동의 사례관리자 중 사회적 고립감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민 40명을 추천 받았다. 각 동의 간호직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를 통해 총 28명의 기초 조사를 진행하였고, 연구진은 그 중 13명의 주민을 직접 만나서 사회적 고립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세웠다.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현재 1인 생활자, 간헐적 공공근로 참여자로 한정을 지었고, 연령과 성별 비율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동별 비율은 고려했다. 이 결과, 영도구에 거주하는 주민 남성 6명, 여성 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진행 중,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 남성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락하여 최종 주민 연구참여자는 총 8명이다.³⁵⁾ 주민 연구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물론,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전 과정의 연구 참여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성명	연령	성별	거주동	영도구 거주 기간	1인 생활자가 된 이유
강OO	70	남	청학1동	30년 이상	이혼, 자식 분가
김OO	78	남	동삼3동	20년 이상~30년 미만	이혼, 단독 세대
김OO	65	남	청학1동	30년 이상	미혼, 단독 세대
배OO	66	여	동삼1동	10년 이상~20년 미만	이혼, 동거 1인(동생)
강OO	76	여	동삼1동	30년 이상	이혼, 단독 세대
서OO	61	남	봉래2동	30년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이OO	85	남	영선2동	20년 이상~30년 미만	사별, 자식 분가
권OO	79	여	남향동	30년 이상	사별, 자식 분가

[표 37] 개념도 연구에 참여한 주민참여자 기본정보

35)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 방법에서 연구참여자의 수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아이디어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8~10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Kane & Trochim, 2007).

○ 복지사·공무원 연구참여자 (이하 복지사·공무원 집단)

영도구 내의 4개의 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5명과 간호직 공무원 1명, 사회적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사회복지사 5명의 경우, 연구진의 추천을 우선시하여 섭외하였고 간호직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는 주민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알게 되어 본 연구의 참여를 부탁하였다.

성명	연령	성별	직장	공공기관 재직 기간
권OO	41	여	동삼종합사회복지관	3년 10개월
김OO	40	남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13년 10개월
정OO	42	여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12년 10개월
박OO	43	남	영도구장애인복지관	9년 2개월
허OO	38	남	절영종합사회복지관	12년 0개월
박OO	60	여	영선2동 통합사례관리사	12년 0개월
서OO	29	여	청학2동 주무관	1년 8개월

[표 38] 개념도 연구에 참여한 복지사·공무원 기본정보

② 초점질문

초점질문의 작성을 위해서 고립감의 심리 상태 및 대인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감정·정서 지표를 조사했다. ‘로젠버그의 자존감 테스트’, ‘쿠퍼 스미스의 자존감 테스트’, ‘Vincenzi and Grabosky(1987)의 사회적 고립 척도’,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ESLI)’, ‘한국어판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 ‘노인과 정신건강 지표’, ‘사회적 외로움 정책의 자기보고식 질문’, ‘성인의 권장 외로움 측정법’,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의 질문을 참조하였다.

참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5개의 초점질문을 작성하여 복지사 2명, 사회학자 1명, 커뮤니티아트 예술가 1명에게 평정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질문을 선택하였다. 평정 항목으로 ‘인식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 ‘질문에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문장의 이해 용이도’를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 집단별로 고립 요인에 대한 초점질문 1개와 고립 완화 방법에 대한 초점질문 1개, 총 2개를 제시하였으며 초점질문은 아래 [표 39]와 같다. 또,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점질문을 보완할 도움 하위 질문을 만들어서 면접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초점질문	
주민 집단	1. 나는 언제(어떨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드나요? [도움(길라잡이) 하위 질문] -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나요(느끼나요)? -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장애물이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나는 왜(무엇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2.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도움(길라잡이) 하위 질문] - 혼자라는 것을 잊고 싶을 때 무엇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 혼자 있기 지루할 때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복지사·공무원 집단	1. 주민이 언제(어떨 때) 혼자라는 생각을 할까요? [도움(길라잡이) 하위 질문] -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할까요(느낄까요)? - 사회생활을 하고 싶는데 장애물이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 왜(무엇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었을까요?
	2. 주민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일까요? [도움(길라잡이) 하위 질문] - 혼자라는 것을 잊고 싶을 때 무엇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 혼자 있기 지루할 때,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 혼자라고 느낄 때(외로움을 느낄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표 39] 연구참여자 집단별 초점질문과 도움(길라잡이) 하위 질문

③ 기초 조사³⁶⁾

기초 조사표는 연구참여 집단별 각각 1종씩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주민 집단은 사회복지 사례관리 인테이크 방식을 적용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로서의 기본 질문과 함께 영도에 거주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전과 현재 직업, 사회활동, 취미 및 여가 등의 개인 취향, 커뮤니티 활동, 지역주민과의 관계, 일상생활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개념도 연구에 참여한 주민 집단 8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개인 기본정보, 주요 사례관리 특성, 주민 연구참여자 및 유사한 고립 위험의 체감도,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관심과 의지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개념도 연구에 참여한 7명의 복지사·공무원 연구참여자가 동일하게 참여하였다.

나. 아이디어 생성과 최종 진술문 통합 및 편집

개념도 연구 내용의 중심이 되는 단계로, 주민 집단은 2021년 8월~9월까지 개인 면접을 통해 초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였다,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2021년 10월에 개최한 FGI 중 브레인스토밍 후 개인별로 초점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다.

① 연구참여자 인터뷰 및 최초 진술문 작성

Kane과 Trochim(2007)는 개념도 연구 방법은 참여자들 간 합의의 도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산출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권장한다. 주민 집단은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스스럼없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별 방문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 3인이 동별로 나뉘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1인당 인터뷰 시간은 최대 1시간, 최소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 3명은 인터뷰 내용을 전체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그 결과 초점질문 1에 대해서는 92개, 초점질문 2에 대해서는 71개의 최초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총 7명을 2개 조로 나뉘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다.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연상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근무 지역 내에서 고립 위험에 처한 사례 등의 이야기를 나눈 후, 본격

36) 기초 조사표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했다.

적으로 초점질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브레인스토밍의 원칙대로 서로의 의견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의견을 나눈 후,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초점질문에 맞춰 개인의 의견을 진술문 형태로 메모하여 연구진에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초점질문 1에 대해서는 45개, 초점질문 2에 대해서는 31개의 최초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② 최초 진술문 통합·편집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자료로부터 고립의 경험, 고립 완화의 경험을 찾기 위하여 Giorgi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³⁷⁾ Giorgi 분석 방법은 주로 대상자의 언어라는 텍스트에 초점을 둔 기술(description)과 분석(analysis)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진술문을 구성하고 이후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을 참여자들이 직접 수행하여 연구대상의 관점에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Giorgi는 ‘과학적 현상학’에서 따라야 하는 총 4단계를, 1단계 전체 인식하기, 2단계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구분하기, 3단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 4단계 변형된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하기로 제시하였다.³⁸⁾ 3인의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1단계 전반적인 응답 내용을 읽기, 2단계 연구목적에 알맞게 주제별 분류 및 의미 단위 구분하기, 3단계 의미 단위를 파악한 후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살려서 연구주제에 더욱 부합하도록 최소화로 변형하기, 4단계 변형된 의미 단위를 통합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만든 후 중복 문장을 통합하는 과정을 총 4회 거쳤다.

아래 [표 40~43]의 중주제, 세부주제, 핵심어를 작성하고 최초 진술문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은 후, 핵심어를 기준으로 하여 편집하였다. 이 중, 초점질문 1번에 해당하는 ‘대인관계’의 주제 분류는 심리학의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을 적용하였고, 초점질문 2번의 주제 분류는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중 ‘여가활동 유형’의 분류를 참조하였다.³⁹⁾

질문	중주제	세부주제	핵심어
주민 대상. 초점질문 1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다.”	1인 생활		동거인의 부재
			만성적 외로움
	가족관계	심리 정서	친밀한 관계 부재
			친밀한 관계 그리움
			이혼
		불화	억울함
			소외감
			분노
			기타(죄책감)

37) Giorgi A.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Giorgi A editors.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1985. p. 12-18.

38) Lee HJ. A study on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the husband who are caring for spouses with Alzheimer in an elderly couple household: with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5. p.29-34. (형희경 외(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에서 재인용)

39) 김종운(2017),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제1장 인간관계의 기초 ‘3. 부적응적 인간관계’

	건강 상태	신체 상태	신체기능 약화
		심리 정서	체념, 수용
			슬픔
			회한
			짜증
			수심, 불안
	경제 상태		경제적 상황 악화
			경제적 이유로 대인관계 불안
	대인관계	회피형 관계	관계 불안
			관계 경시
		피상형 관계	관계 피상
		부재	관계 부재
	일자리(사회) 활동	사회활동	활동 부재
		일자리	직업 부재
외부 환경		이사	
		코로나	

[표 40] 초점질문 1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초 진술문 주제별 분류

질문	중주제	세부주제	핵심어
주민 대상. 초점질문 2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이다.”	여가 활동	관광 활동	드라이브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사진 촬영
			악기 연주
			공공기관 문화프로그램 참여
		사회 및 기타활동	만남 / 잡담
			사회봉사
			동호회 모임
			종교 모임
			청소
		스포츠 참여 활동	야구 중계
			가벼운 운동
		취미 오락 활동	원예
			반려동물
			수집
			게임
			쇼핑
			생활공예
			요리
			등산
			음주
			TV 시청
		휴식 활동	모바일 기기 사용
			음악감상
			산책
			아무것도 안 하기
			수면
			일거리
	일자리(사회) 활동	노인 일자리	일거리

[표 41] 초점질문 2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초 진술문 주제별 분류

질문	중주제	세부주제	핵심어
복지사 · 공무원 대상. 초점질문 1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다.”	일상생활		동거인의 부재
	가족관계	불화	소외감, 분노
		그리움	친밀한 관계의 그리움
	건강 상태	신체 상태	신체기능 약화
		심리 정서	슬픔
	경제 상태		경제적 상황 악화
	대인 관계	회피형 관계	관계 불안
			관계 경시
		피상형 관계	관계 피상
	일자리(사회) 활동	부재	관계 부재
		사회활동	활동 부재
		일자리	직업 부재
	외부 환경		이사
			지역 격차(낙후 지역)

[표 42] 초점질문 1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초 진술문 주제별 분류

질문	중주제	세부주제	핵심어
복지사 · 공무원 대상. 초점질문 2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이다.”	여가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글짓기
			미술 활동
			한글 공부
		사회 및 기타활동	만남
			모임
		스포츠 참여활동	가벼운 운동
		취미 오락 활동	원예
			반려동물
			음주
			장기, 바둑
		휴식 활동	TV 시청
			모바일 기기 사용
			음악감상
			산책
			수면
			외출
			휴식(사람 구경, 벤치 앉아있기)
	일자리(사회) 활동	노인 일자리	일거리
	기타 활동	기타	회상
			정해진 일과

[표 43] 초점질문 2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초 진술문 주제별 분류

③ 최종 진술문(수정 진술문) 통합·편집

개념도 방법에서 진술문 목록을 제작하는 방법은 연구주제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진술문 목록을 제작하는 경우, 진술문 목록을 교차하여 평정하고 비교하는 경우, 여러 집단의 진술문을 합쳐 단일 목록을 만들어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집단별로 진술문 목록을 만들어 개념도를 도출하는 경우, 각 집단의 고유한 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일 진술문 목록을 만들어 집단별로 비교하면 집단 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탐색할 수 있다.⁴⁰⁾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 연구참여자와 복지사·공무원 연구참여자가 가진 사회적 고립의 개념, 입장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진술문 목록을 제작하였다.

최초 진술문은 초점질문 1의 경우, 주민 집단은 92개,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45개였고, 초점질문 2의 경우, 주민 집단은 71개,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31개로 총 238개였다. 총 4회의 통합 및 편집의 과정을 거친 결과, 초점질문 1은 주민 집단 28개, 복지사·공무원 집단 25개로 정리하였고, 초점질문 2는 주민 집단 22개, 복지사·공무원 집단 21개로 정리하였다.

④ 전문가 평정 및 자문

완성된 최종 진술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장과 내용에 대하여 복지사 2명에게 평정을 구하고 자문받았다. 앞서 초점질문의 평정에 참여한 복지사들로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본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 진술문의 구조화

① 진술문 분류, 명칭 부여

최종 진술문을 연구참여자들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평정하게 하는 단계이다. 주민 집단은 최종 진술문이 적힌 카드(21cmx14cm)를 제작하여 일대일 방문 면접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카드를 집단 분류하도록 요청하였다. 고령의 주민 연구참여자들이 속해 있었고, 고립 요인과 고립 완화의 방법을 최대한 이끌고자 1)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고, 2) 주어진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조건만 부과하였다.⁴¹⁾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최종 진술문을 나열한 조사지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집단 분류 후 송신하도록 요청하였다. 분류 조건은 주민 집단과 동일하다. 집단 분류상 오류가 있는 경우는 직접 통화하여 수정하였다. 또,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최종 진술문을 집단 분류한 후,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를 물었고 분류 기준에 따라 그룹명을 명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룹명은 이후, 개념도의 군집명 및 차원명의 참고 자료로 쓰였다.

② 중요도 평정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중요도 평정을 진행하였다. 최종 진술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중요도는 고립 요

40) 형희경 외(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Vol. 20 No. 4, 394-404, September 2014

41) Kane M, Trochim WMK.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2007. p. 27-110.

인, 고립 완화의 방법 중에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자료는 각 진술문과 군집 간의 개념을 통해 핵심적인 고립 요인 및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고립 완화의 방법을 확인하는데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라. 개념도 분석

① 다차원 척도분석, 위계적 군집분석, 중요도 평정

개념도 분석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생산한 정보를 분석하고 지도를 그리는 과정으로 SPSS 버전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 단계로, 분류 자료로부터 유사성 행렬표를 만드는데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1로 코딩하여 연구참여자의 수만큼 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 집단 유사성 행렬(Group Similarity Matrix, GSM)을 작성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활용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진술문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거리가 가까운 변수들을 묶어 2차원으로 나타냈다. 2차원으로 묶을 때 가장 가까운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차원을 찾는 방법이 유사성 계수(stress test)이다.

연구참여자 간 상대적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차원 공간에서 위치결정 작업은 더 이상의 개선이 어려울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데 그 결정 작업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스트레스값(stress value)이고, 스트레스 값이 작을수록 원래의 유사성 자료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tress value는 주민 집단의 경우 고립 요인의 개념도=0.315, 고립 완화 방법의 개념도=0.332로 나타났고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경우 고립 요인의 개념도=0.289, 고립 완화 방법의 개념도=0.247로 나타났다. 이는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척도 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0.205~0.365)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차원척도 분석에 의해 도출된 좌표값을 기준으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거리를 기반으로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Ward 연결 방법을 이용하였다. 군집 수는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토대로 결정하였고 각 군집에 속하는 진술문과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5점 평정 평균값은 연구 결과 부분에 기술하였다.

마. 개념도 해석

① 차원명, 군집명 정하기

차원명은 고립 요인, 고립 완화의 방법의 개념도상에서 군집들이 분포한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군집명은 좌표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인 위치와 범주 내 진술문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다차원 척도분석에 의해 점으로 표시된 좌표상의 진술문 중 같은 군집으로 묶인 진술문(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군집의 수와 군집명은 연구진이 모여 3회의 회의를 거쳐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개념도는 2차원상에 나타난 차원의 의미, 군집 수, 군집명, 군집 내 진술문의 분포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고립 요인,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중요도 평정은 항목별로 평균을 내어 서로 비교하였다.

바. 개념도 활용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립 요인과 고립 완화의 방법의 개념도에 근거하여, 고립 요인을 약화하고 고립 완화의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조화된 모델을 제안하였다.

3. 연구 결과 : 기초조사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영도도시문화센터의 ‘똑똑똑, 예술가’의 참여자 중 일부를 개념도 연구를 위한 주요 연구대상자로 하고 있다. 본 절은 심층 조사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영도구의 1인가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똑똑똑 예술가’ 프로그램에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인구학적 특성, 문화예술 참여 특성 등)를 실시한 결과이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영도구 관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직·사회직 공무원을 대상을 함께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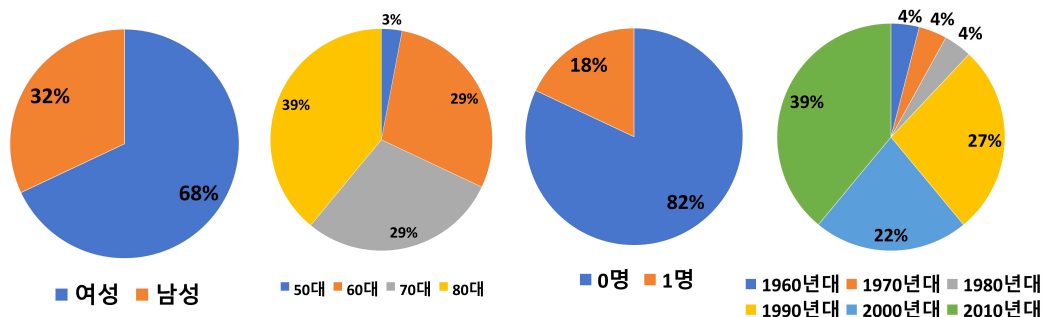
가. 프로그램 참여자

①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기초조사 대상자는 28명으로, 여성 68%, 남성 32%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80대가 39%, 60대~70대가 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거인 수는 독거가 23명, 82%로 가장 많았고, 답변자 중 홀로 거주 시기는 2010년대 39%, 1990년대 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홀로 거주한 시기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항목	인원	비율 (%)	합계 (명)	구분	항목	인원	비율 (%)	합계 (명)
1. 성별	여성	19	68	28	3. 동거인수	0명	23	82	28
	남성	9	32			1명	5	18	
	50대	1	3		3-1. 홀로 거주 시기	1960년대	1	4	23
2. 연령	60대	8	29	28		1970년대	1	4	
	70대	8	29			1980년대	1	4	
	80대	11	39			1990년대	6	27	
			2000년대			5	22		
				2010년대		9	39		

[표 44] 프로그램 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그림 43]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동거인 수, 홀로 거주 시기

② 고립의 객관적 수준

프로그램 참여자의 객관적인 고립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감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에서 ‘해당없음’은 응답자에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또는 그렇게 인식함)이며, ‘연락안함’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만(또는 그렇게 인식함) 연락하지 않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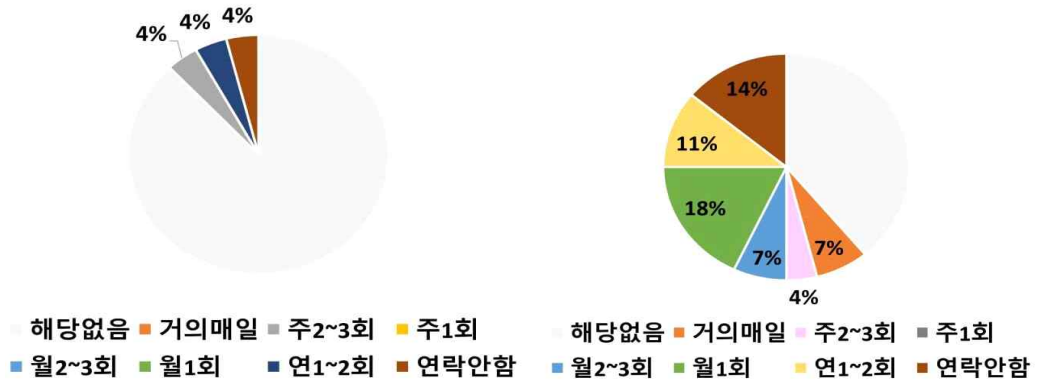
○ 연락(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 전화, 메시지 등 비대면 연락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 특성상 부모는 거의 해당이 없고, 형제·자매, 자녀와 주로 월 단위로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웃 주민과 모임(단체) 회원을 대상으로는 해당없음으로 인식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거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의 매일 또는 주 2~3회로 자주 연락하는 대상은 자녀 또는 이웃 주민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주 연락은 하지 않지만 월 단위 이상으로 연락하는 대상은 친족 또는 친구로 나타난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나 지속하여 연락하는 대상인 경우,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한 전략 수립 차원에서 그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	연락(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합계 (명)
	해당없음	거의매일	주2~3회	주1회	월2~3회	월1회	연1~2회	연락안함	
부모	25	0	1	0	0	0	1	1	28
형제자매	11	2	1	0	2	5	3	4	28
배우자 (연인)	26	1	0	0	0	0	0	1	28
자녀	7	5	4	1	2	4	3	2	28
친족	15	1	1	0	1	2	2	6	28
이웃주민	12	3	3	1	1	1	1	6	28
모임(단체) 회원	22	2	0	0	2	0	0	2	28
친구	11	1	0	2	3	4	3	4	28
온라인지인	27	0	0	0	0	0	0	1	28
기타	24	1	0	2	0	0	0	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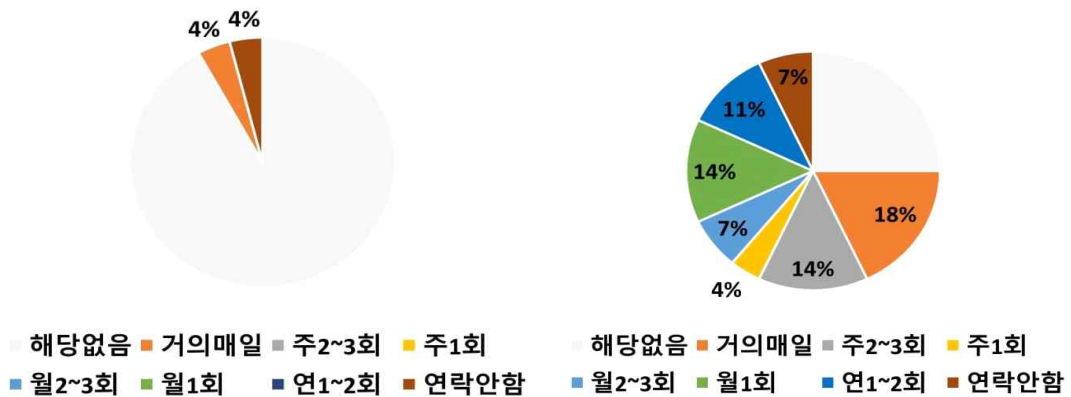
[표 45]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주2~3회’, ‘연1~2회’, ‘연락안함’이 4%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형제자매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월1회’ 18%, ‘연락 안 함’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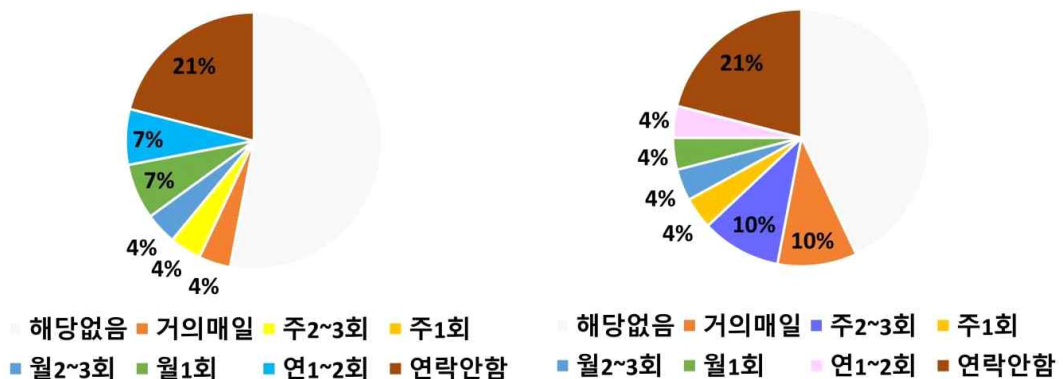
[그림 44]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부모, 형제자매)

- 배우자(연인)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과 ‘연락 안 함’이 4%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자녀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18%, ‘주2~3회’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배우자(연인), 자녀)

- 친족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연락 안 함’ 21%로 가장 많고, ‘월1회’, ‘연1~2회’가 7%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웃 주민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연락 안 함’이 21%로 가장 많고, ‘거의 매일’, ‘주2~3회’가 1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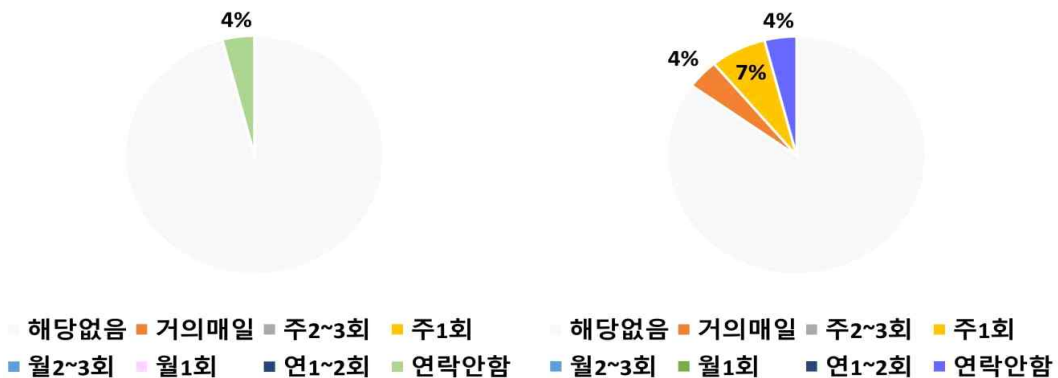
[그림 46]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친족, 이웃주민)

- 모임(단체)회원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월2~3회’, ‘연락 안 함’이 7%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친구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월1회’, ‘연락 안 함’이 14%로 가장 많고, ‘월2~3회’, ‘연1~2회’가 1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47]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모임(단체)회원, 친구)

- 온라인 지인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연락 안 함’이 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주1회’가 7%로 가장 많고, ‘거의매일’, ‘연락 안 함’이 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48] 고립의 객관적 수준 (연락-온라인 지인, 기타)

○ 고립의 객관적 수준(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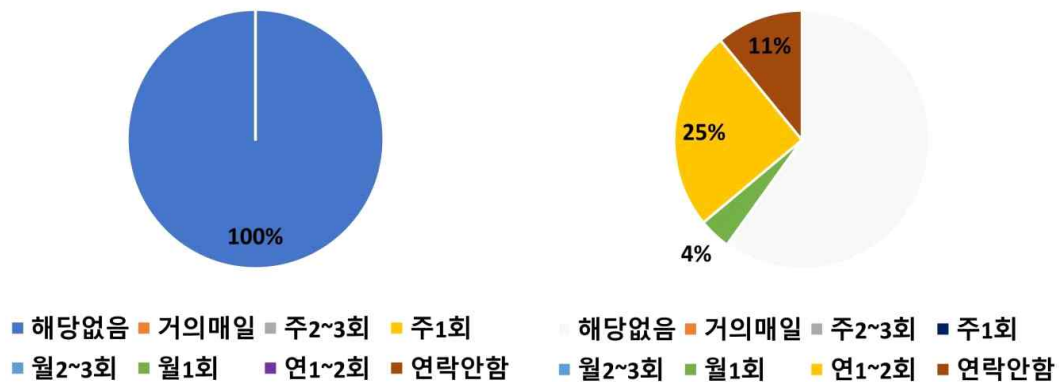
- 고립의 객관적 수준(만남)은 사회적 고립감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아래 [표-51]는 만남의 대상과 만남의 횟수를 정리한 표이다. 연락 차원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주 만나는 대상자의 유형수가 매우 적고, 만나는 경우에도 횟수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주 연락하는 자녀와도 만남 횟수는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 단위 평균 2~3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역시 월 또는 연 단위로 만남의 주기가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는 이웃 주민으로 나타났다. 이웃 주민의 경우, ‘거의 매일’, ‘주2~3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그 이웃 주민과의 만남이 목적을 둔 만남인지, 일상 중 스치는 수준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만남								합계 (명)
	해당없음	거의매일	주2~3회	주1회	월2~3회	월1회	연1~2회	연락안함	
부모	28	0	0	0	0	0	0	0	28
형제자매	17	0	0	0	0	1	7	3	28
배우자(연인)	27	1	0	0	0	0	0	0	28
자녀	14	0	1	4	0	5	2	2	28
친족	17	1	0	0	0	1	5	4	28
이웃주민	13	4	4	1	1	2	0	3	28
모임(단체)회원	21	2	1	0	0	3	0	1	28
친구	11	0	2	0	3	2	6	4	28
온라인지인	28	0	0	0	0	0	0	0	28
기타	23	0	1	4	0	0	0	0	28

[표 46] 고립의 객관적 수준(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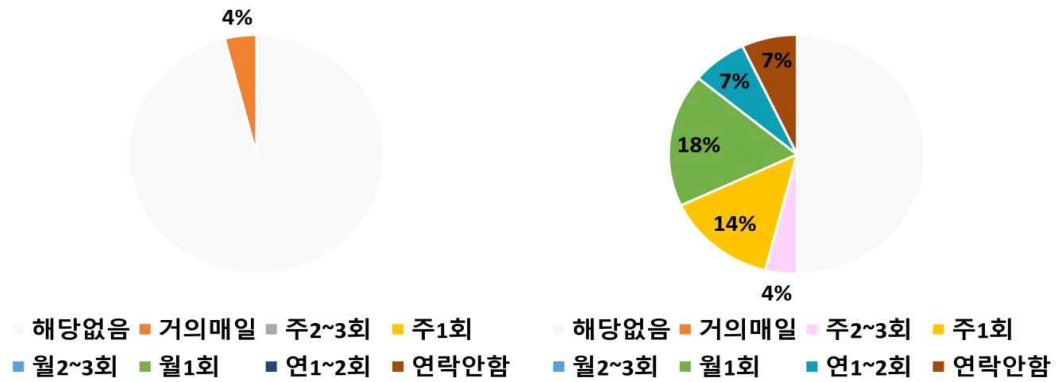
- 만남의 수준은, 부모는 ‘해당없음’이 100%로 나타났으며⁴²⁾, 형제자매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연1~2회’ 25%, ‘연락 안 함’이 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부모, 형제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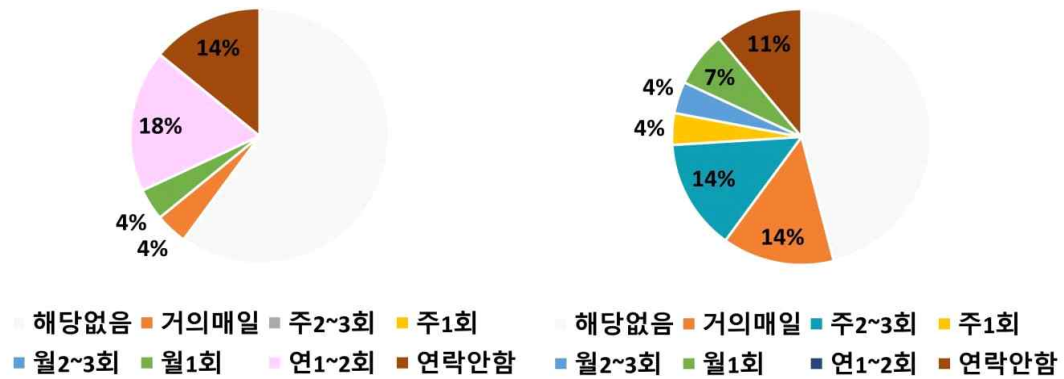
- 배우자(연인)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4%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사별,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다. 자녀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월1회’ 18%, ‘주1회’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2) 기초조사 참여자의 68%가 60대부터 80대까지의 고령으로 구성되어 대부분 부모님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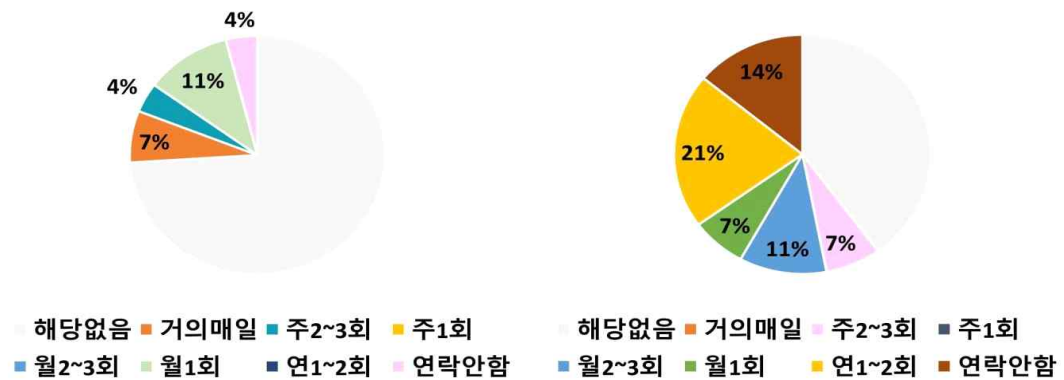
[그림 50]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배우자(연인), 자녀)

- 친족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연1~2회’ 18%, ‘연락 안 함’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웃 주민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과 ‘주2~3회’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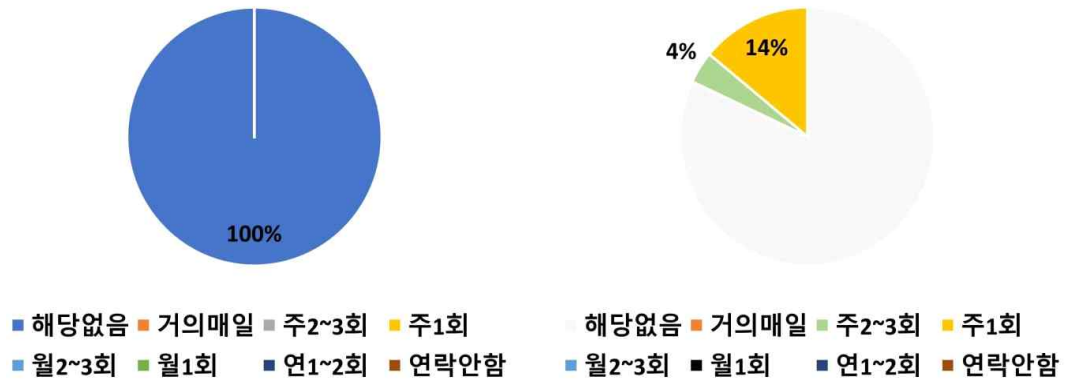
[그림 51]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친족, 이웃 주민)

- 모임(단체)회원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월1회’ 11%, ‘거의 매일’ 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연1~2회’ 21%, ‘연락안함’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모임(단체)회원, 친구)

- 온라인 지인은 ‘해당없음’ 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해당없음’ 을 제외하고 ‘주1회’ 14%, ‘주2~3회’ 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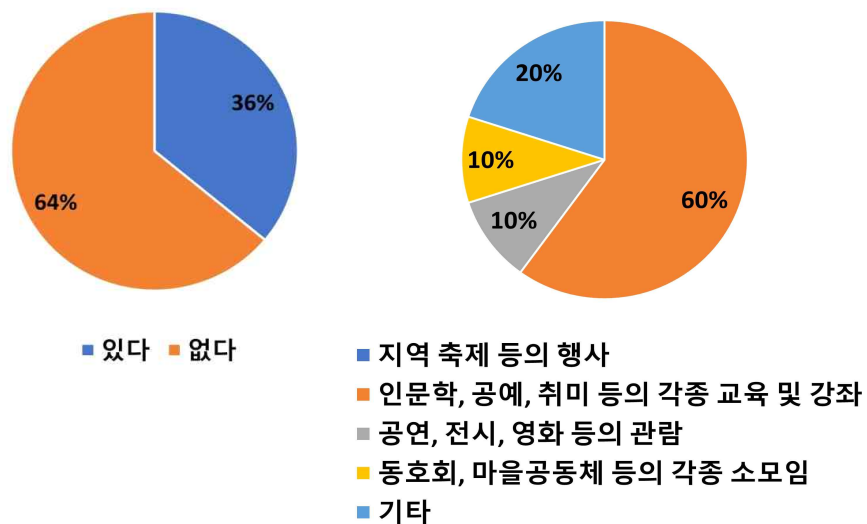


[그림 53] 고립의 객관적 수준 (만남-온라인 지인, 기타)

③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경험

○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경험

- 최근 1~3년 사이의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다’ 64%, ‘있다’ 36% 순으로 나타났다.
- ‘있다’ 에 응답한 10명 중 참여했던 문화예술 관련 행사 종류는 ‘인문학, 공예, 취미 등의 각종 교육 및 강좌’ 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는 동호회 등의 소모임, 지역축제 행사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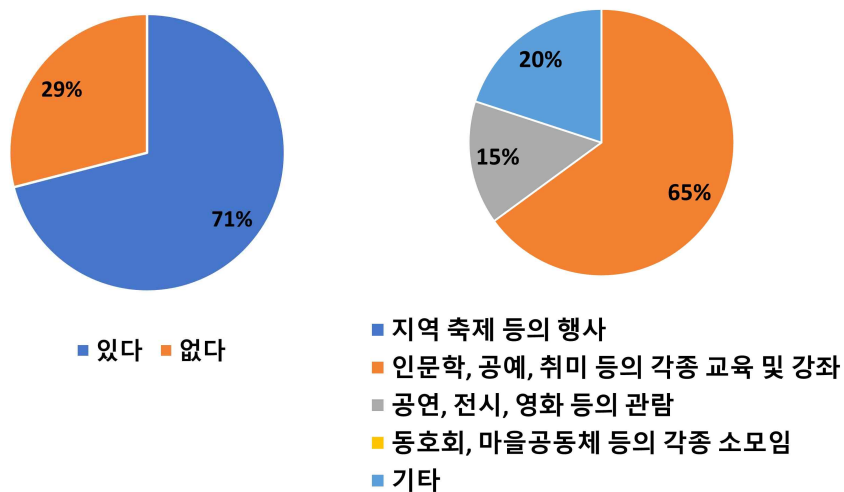
[그림 54]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경험 (최근 1~3년 사이)

- ‘없다’ 라고 응답한 18명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는 ‘흥미나 관심이 없어서’와 ‘시간이 안 맞거나 거리가 멀어서’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5]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행사 및 활동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있다’가 71%, ‘없다’ 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있다’에 응답한 10명 중 참여 희망 행사나 활동은 ‘인문학, 공예, 취미 등의 각종 교육 및 강좌’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6] 향후 문화예술 행사 활동 참여 의향

- ‘없다’ 라고 응답한 8명의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는 ‘건강 또는 거동하기 불편해서’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흥미나 관심이 없어서’, ‘타인과 접촉하기 싫어서’가 2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 특성상 첫 번째 이유는 타 선행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타인과 접촉하기 싫어서’라는 사회적 고립의 적응 상태에 대한 부분이다.

-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경험은 대체로 빈도가 높지 않으며, 활동의 성격도 주로 교육이나 관람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 의지가 낮은 경우에는 흥미나 관심이 없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단순한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같은 심리 정서상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에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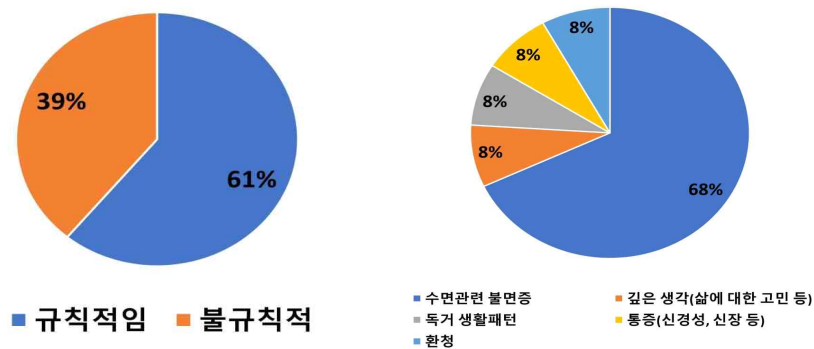


[그림 57] 문화예술 행사 등의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④ 일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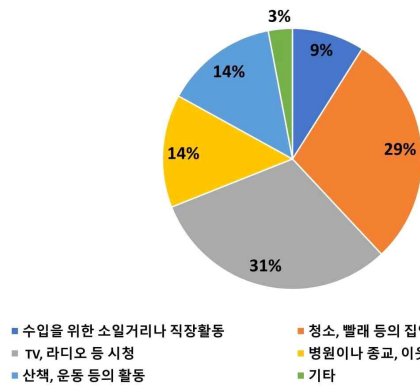
○ 일과

- 하루 일과의 시작(기상)과 끝(취침) 응답 결과, ‘규칙적’ 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규칙적’ 이라고 응답한 11명 중, 그 이유는 ‘수면 관련 불면증’ 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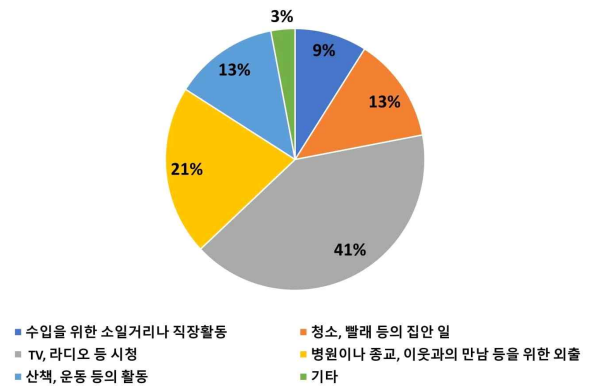


[그림 58] 일상 경험 - 일과 / 불규칙한 이유

- 오전시간(06:00~12:00)에 주로 하는 일(복수 응답)은 ‘TV, 라디오 등 시청’ 31%,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 이 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후 시간(13:00~18:00)에 주로 하는 일(복수 응답)은 ‘TV, 라디오 등 시청’ 41%, ‘병원이나 종교, 이웃과의 만남 등을 위한 외출’ 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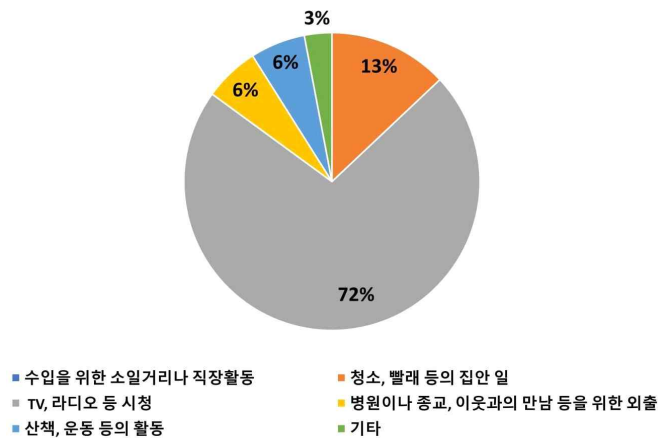


[그림 59] 일상 경험-오전(6:00~12:00)에 주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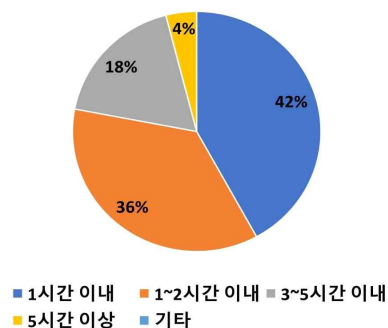
[그림 60] 일상 경험-오후(13:00~18:00)에 주로 하는 일

- 저녁시간(19:00~24:00)에 주로 하는 일(복수응답)은 ‘TV, 라디오 등 시청’ 72%, ‘청소, 빨래 등의 집안 일’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상 및 취침은 규칙적이나, 주로 하는 일은 오전, 오후, 저녁 시간 ‘TV, 라디오 등 시청’ 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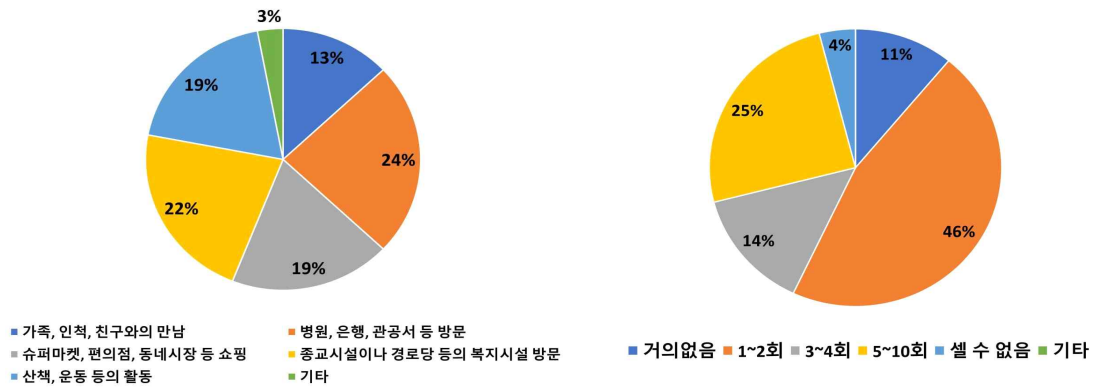
[그림 61] 일상 경험 - 저녁(19:00~24:00)에 주로 하는 일

- 또한 하루 중 집밖에 나가있는 외출시간(수입을 위한 일거리나 직장활동 제외)은 ‘0~2시간 이내(1시간 이내+1~2시간 이내)’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2] 일상 경험 - 하루 중 외출시간

- 외출하는 이유(복수응답)는 ‘병원, 은행, 관공서 등 방문’ 24%, ‘종교시설이나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 방문’ 2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 중 집 밖에 나가는 외출 횟수(수입을 위한 일거리나 직장 활동 제외)는 ‘0~2회(거의없음+1~2회)’ 57%, ‘5~10회’ 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3] 일상 경험 - 외출하는 이유, 일주일 중 외출 횟수

- 조사대상자의 일상 경험을 살펴본 결과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며, 외출은 주로 최소한의 일상생활 유지, 생계 등을 위한 목적 지향적 외출을 하므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출을 하지 않음을 무조건 고립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건강 또는 기존의 정서적 문제로 인해 집안에서의 활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외출할 수 있는 자기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차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나. 복지사·간호직 공무원

① 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 중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영도구 관내의 사회복지사 및 간호직·사회직 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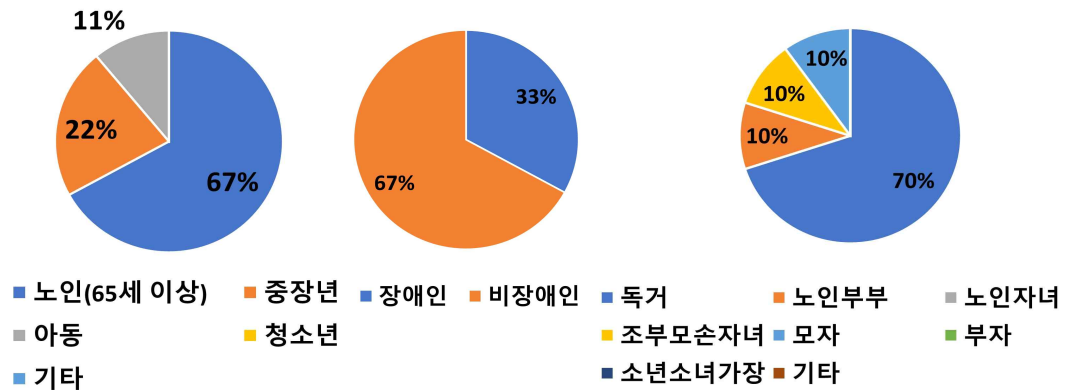
-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7명으로, 성별은 여성 57%, 남성 43%로 나타났고, 소속은 종합사회복지관 57%, 행정복지센터 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대 43%, 40대 29% 순이다.
- 최종학력은 대졸 71%, 대학원졸 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도 거주 여부는 무 71%, 유 29%로 나타났다. 거주 경험이 있는 2명의 영도 거주기간은 각각 ‘36년’, ‘15년’이다.
- 현(現) 소속 근무 연수는 ‘10년 미만’ 57%, ‘10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지역(복수응답)은 영도구 전역과 청학2동이 각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항목	인원	백분율(%)	합계 (명)
1. 성별	여성	4	57%	7
	남성	3	43%	
2. (現) 소속	종합사회복지관	4	57%	7
	장애인복지관	1	14%	
	행정복지센터	2	29%	
3. 연령	20대	1	14%	7
	30대	3	43%	
	40대	2	29%	
	50대	1	14%	
4. 최종학력	고졸이하	0	0%	7
	고졸	0	0%	
	대졸	5	71%	
	대학원졸	2	29%	
5. 영도 거주여부	유	2	29%	7
	무	5	71%	
6. (現)소속 근속 연수	10년 미만	3	43%	7
	10년 이상	4	57%	

구분	항목	인원	백분율(%)	합계 (개)
7. 담당지역(복수응답)	남향동	1	10%	11
	동삼1동	1	9%	
	동삼3동	1	9%	
	신선동	1	9%	
	영선2동	1	9%	
	영선동	1	9%	
	청학1동	1	9%	
	청학2동	2	18%	
	영도구 전역	2	18%	

[표 47] 사회복지사·간호직 공무원 인구학적 특성

- 최근 주요 사례관리 대상자 특성(복수응답)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노인(65세)이상 67%, 중장년 2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여부는 비장애인이 67%로 가장 많고, 가구형태는 독거 70%, 노인부부, 조부모 손자녀, 모자 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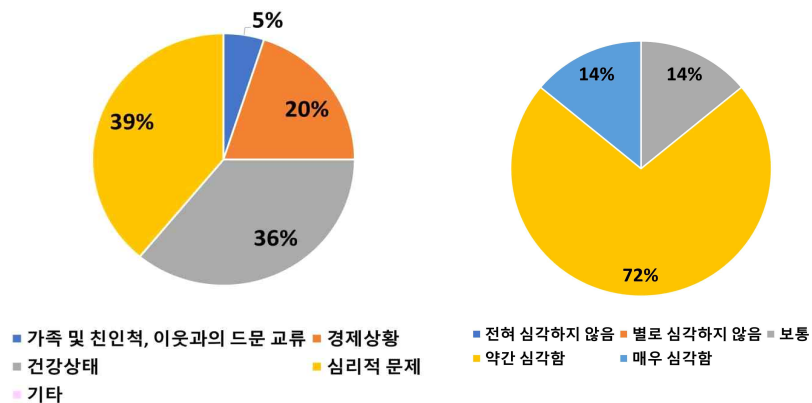


[그림 64] 인구학적 특성 - 최근 주요 사례관리 대상자 특성

② 주민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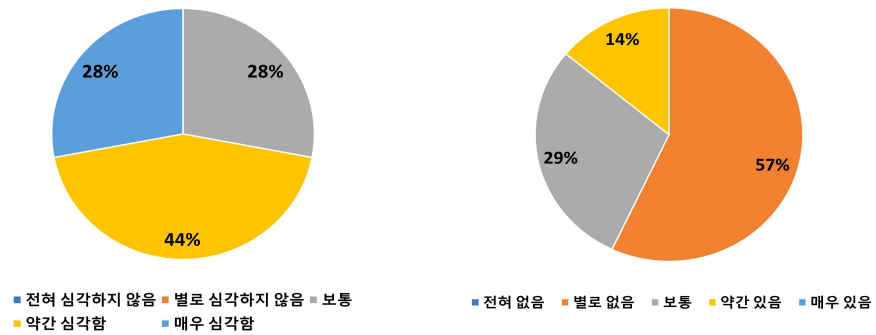
○ 고립 상황

- 사회복지사·간호직 공무원은 주민 연구참여자들의 고립은 심각하게 보고 있으나, 사회 활동 의지(또는 욕구)는 낮아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담당자로서 인식한 고립 상황(복수응답)으로는 ‘심리적 문제’ 39%, ‘건강 상태’ 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 연구참여자 또는 유사 사례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재 고립의 심각함을 ‘심각함(약간 심각함+매우 심각함)’ 86%, ‘보통’ 14%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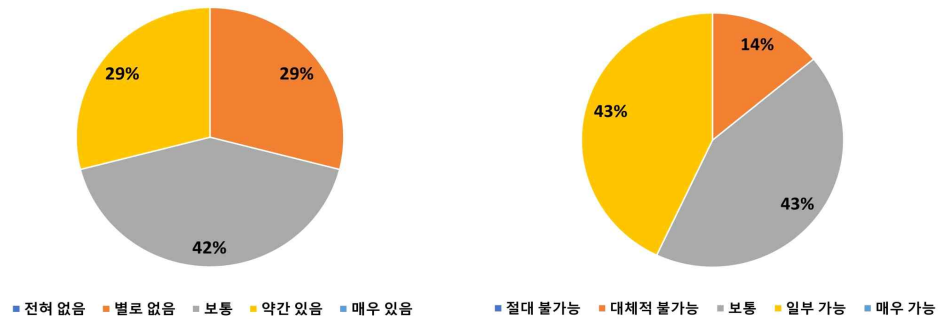
[그림 65] 주민에 대한 인식 - 고립 상황

- 담당자로서 인식한 영도구 내 주민 연구참여자 또는 유사 사례의 고립의 정도에 대해서 ‘심각함(약간 심각함+매우 심각함)’ 72%, ‘보통’ 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 의지의 정도는 ‘별로 없음’ 57%, ‘보통’ 29%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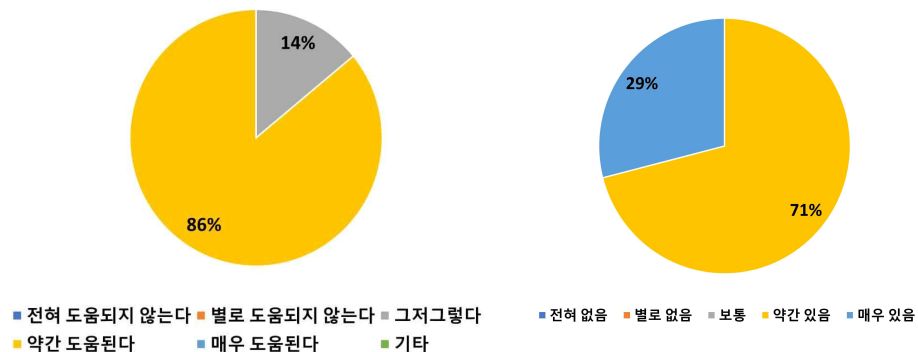
[그림 66] 주민에 대한 인식 - 고립이 심해지고 있는 정도, 사회활동 의지

- 담당자가 인식하는 주민 연구참여자 또는 유사 사례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활동) 관심 정도는 ‘보통’ 42%, ‘별로 없음’ 2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행사(활동) 참여 가능 정도로 ‘보통’ 43%, ‘일부 가능’ 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7] 주민에 대한 인식 - 문화예술 관련 행사(활동) 관심 및 참여 가능 정도

- 주민 연구참여자들(유사한 사례의 경우 포함)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활동)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약간 도움된다’ 86%, ‘그저 그렇다’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할 의향 정도로 ‘있음(약간 있음+매우 있음)’ 이 100%로 나타났다.



[그림 68] 주민에 대한 인식 -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정도, 문화예술(활동)정보의 전달 의향

- 문화예술 관련 행사참여가 주민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약간 도움된다’가 가장 많고, 문화예술 관련 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의향이 있어 문화예술 관련 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협력과 도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연구 결과 : 개념도 연구

4-1. 고립 요인에 대한 집단별 개념도

본 절은 주민 집단, 복지사·공무원 집단별로 고립 요인,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개념도를 도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의 모델에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가. 주민이 생각하는 고립 요인에 대한 최종 진술문

‘주민 집단이 생각하는 고립 요인’에 대한 최종 진술문은 총 28개로 아래 [표 48]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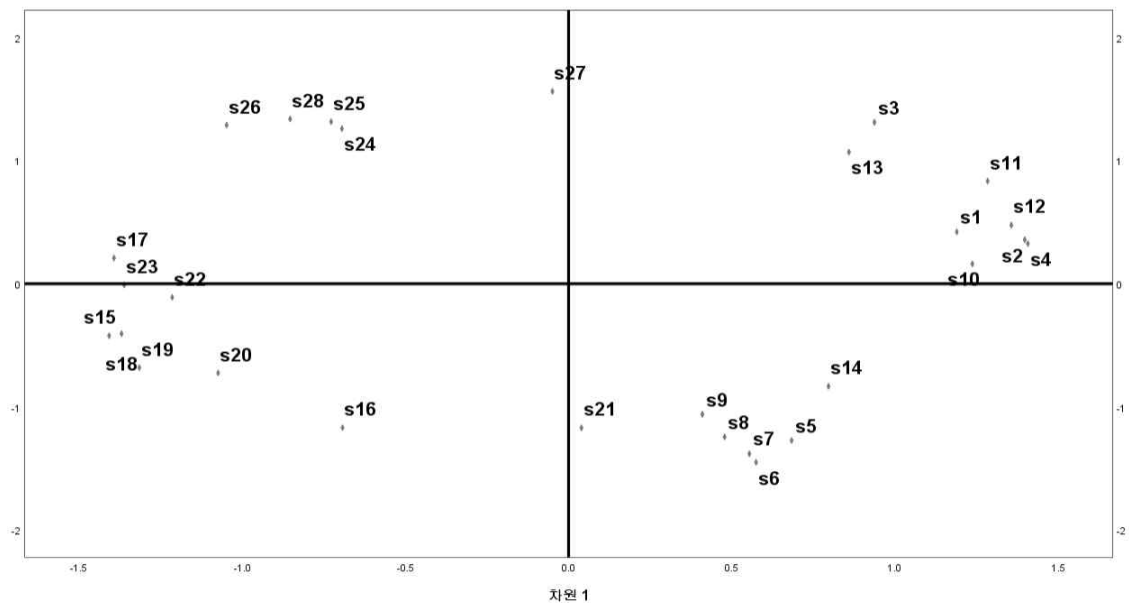
번호	최종 진술문 28개
01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2	집에 혼자있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3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혼자 밥을 먹을 때이다.
04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진 내 모습을 볼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5	가족이 그리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6	가족 간의 불화로 왕래가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7	미안함 때문에 가족을 피해야 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8	신체기능 저하(장애, 질병, 운동기능 저하)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9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0	몸이 아플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1	혼자인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2	내 처지가 서글플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3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4	불안한 미래가 걱정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5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6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7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8	알던 사람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9	인간관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만남이 싫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0	관계맺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1	만날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2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3	지인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4	갈 곳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할 일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직장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이사해서 만날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8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표 48]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 최종 진술문

① 주민의 다차원척도 분석

○ 진술문 분포 및 차원명

주민 집단 8명의 유사성 분류 원 자료를 작성한 행렬표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립 상황의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2차원 해법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0.315로서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척도분석의 적절한 스트레스 값 범위인 0.205에서 0.365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지표인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인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는 0.504로 중간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림 69]는 주민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도출된 2차원상 좌표값(진술문들의 위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9]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그림 69]에서 표시된 진술문들의 위치는 주민 집단의 고립 요인에 대한 유사성에 근거한다. 즉, 가까이 위치한 진술문들은 주민들이 비슷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진술문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주민들이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좌표값을 통해 각 차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원(X축)에서 정적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진 내 모습을 볼 때 (좌표값: 1.4072)
2. 집에 혼자 있을 때 (좌표값: 1.3974)
12. 내 처지가 서글플 때 (좌표값: 1.3565)
11. 혼자인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좌표값: 1.2838)
10. 몸이 아플 때 (좌표값: 1.2370)
1. 늘 (좌표값: 1.1892)

1차원(X축)의 부정적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5.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 (좌표값: -1.4078)
- 17.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때 (좌표값: -1.3930)
- 18. 알던 사람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 (좌표값: -1.3697)
- 23. 지인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좌표값: -1.3615)
- 19. 인간관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만남이 싫을 때 (좌표값: -1.3153)
- 22.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좌표값: -1.2144)
- 20. 관계맺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 (좌표값: -1.0737)
- 26. 직장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좌표값: -1.0479)

위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을 근거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1차원(X축)의 정적 방향은 1인가구로 체화된 일상 경험으로 개인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감정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 방향은 사회 안에서 단절된 상태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감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집단의 1차원의 이름을 ‘개인 공간-사회 공간’으로 명명하였다.

2차원(Y축)에서 정적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7. 이사해서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좌표값: 1.5630)
- 28.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좌표값: 1.3383)
- 25. 할 일이 없을 때 (좌표값: 1.3159)
- 3. 혼자 밥을 먹을 때 (좌표값: 1.3113)
- 26. 직장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좌표값: 1.2884)
- 24. 갈 곳이 없을 때 (좌표값: 1.2597)
- 13.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 (좌표값: 1.0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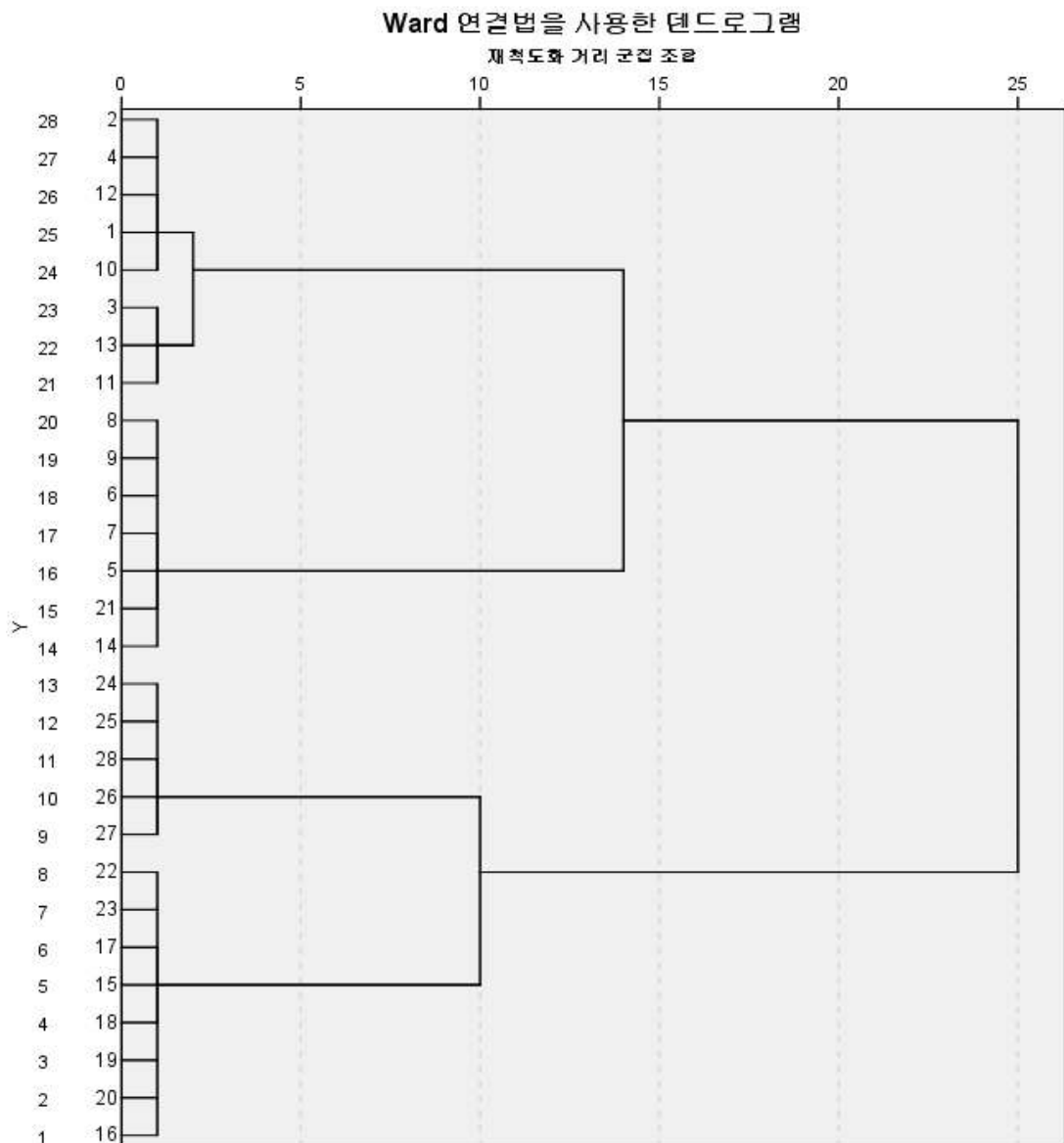
2차원(Y축)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 가족 간의 불화로 왕래가 없을 때 (좌표값: -1.4500)
- 7. 미안함 때문에 가족을 피해야 할 때 (좌표값: -1.3805)
- 5. 가족이 그리울 때 (좌표값: -1.2728)
- 8. 신체기능 저하(장애, 질병, 운동기능 저하)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 때 (좌표값: -1.2443)
- 21.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좌표값: -1.1707)
- 16.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졌을 때 (좌표값: -1.1687)
- 9.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좌표값: -1.0605)

위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2차원(Y축)의 정적 방향은 나의 의지와 관련이 없이 물리적·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립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 방향은 가족 간의 불화, 곤란을 겪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따른 불안감과 직결된 상황으로, 내적인 감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집단의 2차원의 이름을 ‘외적·환경-내적·감정’으로 명명하였다.

○ 군집의 분포

2차원상에 표시된 각 진술문들의 좌표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여, 아래 [그림 70]의 덴드로그램을 살펴 본 결과, 군집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차원분석의 결과,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관련 전문성과 사전 지식 등에 근거하여 군집 수는 4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민의 고립 상황의 요인은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별로 포함된 진술문들은 [표 49]와 같다. 군집당 포함된 진술문 갯수는 최소 5개에서 최대 8개로($M = 6.25$, $SD = 1.818$), 이들의 2차원 좌표값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각 차원과 군집 이름이 명시된 개념도는 [그림 7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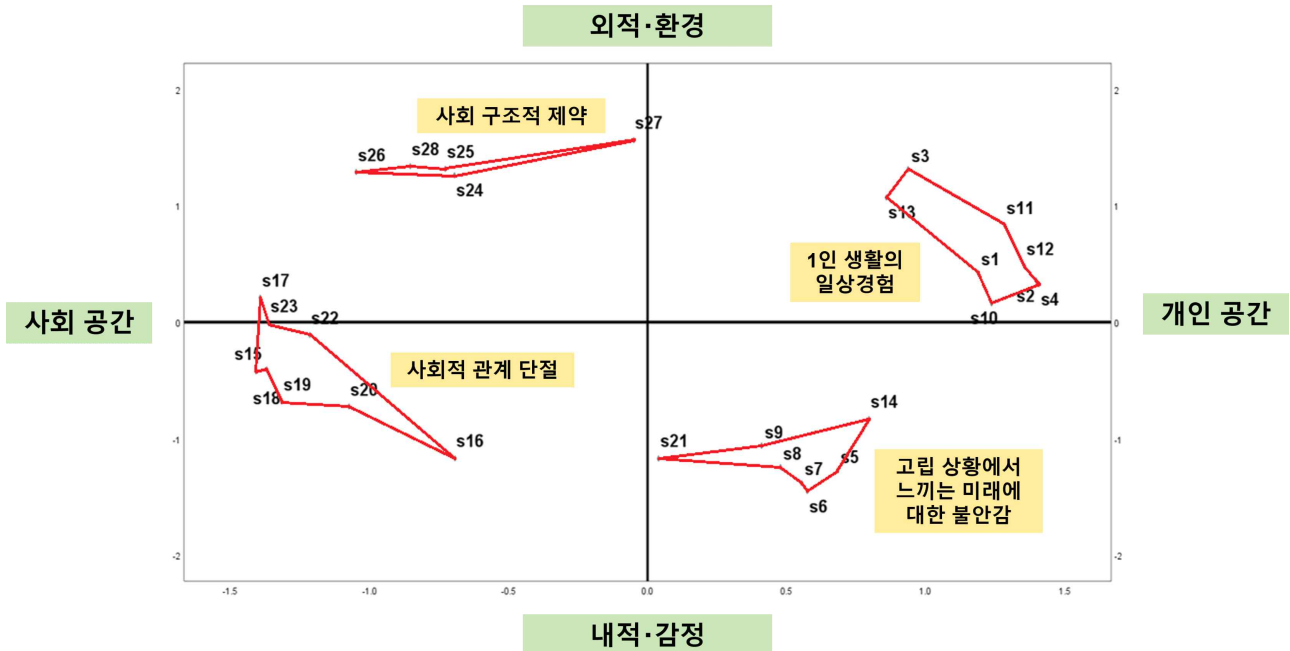


[그림 70]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주민 초점 1. 나는 언제(어떨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드나요?		
군집	번호	진술문(총 28개)
군집1 (8개) 1인 생활의 일상경험	2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4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진 내 모습을 볼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2	내 처지가 서글플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0	몸이 아플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3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혼자 밥을 먹을 때이다.
	13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1	혼자인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군집2 (7개) 고립상황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8	신체기능 저하(장애, 질병, 운동기능 저하)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9	몸이 아파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6	가족 간의 불화로 왕래가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7	미안함 때문에 가족을 괴해야 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5	가족이 그리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1	만날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4	불안한 미래가 걱정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군집3 (8개) 사회적 관계 단절	22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3	지인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7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5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8	알던 사람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9	인간관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만남이 싫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0	관계맺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6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군집4 (5개) 사회 구조적 제약	24	갈 곳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할 일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8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직장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이사해서 만날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표 49]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종 군집별 진술문

②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개념도



[그림 71]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개념도

○ 군집명

군집명은 1사분면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명명했다. 2개의 차원(X축: 개인 공간-사회공간, Y축: 외적·환경-내적·감정)을 기준으로 할 때, 진술문은 4개의 사분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군집1. 1인 생활의 일상경험

- 1인가구로서 익숙해진 생활과 혼자라고 인식할 때 느끼는 감정이 묶인 군집으로 ‘몸이 아플 때’라는 신체적 기능 저하와 정서적 감정의 영향을 끼치는 상황과 ‘혼자 밥을 먹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등의 생활상을 제외하고는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내 처지가 서글플 때’,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 ‘혼자인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 군집2. 고립 상황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 혼자 생활하는 가운데 실제 도움을 청하기 어렵거나 가족 간의 단절로 고립될 수 있는 상황과 감정이 묶인 군집으로 ‘신체기능의 저하로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울 때’, ‘몸이 아파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가족 간의 불화로 왕래가 없을 때’, ‘가족이 그리울 때’,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일 때 혼자라고 느꼈다.
- 감정과 관련해서는 ‘미안함 때문에 가족을 피해야 할 때’, ‘불안한 미래가 걱정될 때’라고 진술했다.

- 군집3. 사회적 관계 단절

-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비관적 견해와 소극적 태도가 드러난 군집으로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지인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때’, ‘알던 사람과 만나기 부담스러울 때’, ‘인간관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만남이 싫을 때’, ‘관계맺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에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 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졌을 때’라고 진술했다.

- 군집4. 사회 구조적 제약

- 주민 연구참여자들은 고연령자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활동이 감소하는 사회상이 담긴 군집으로 ‘갈 곳이 없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직장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이사해서 만날 사람이 없을 때’라고 진술했다.

○ 특징

도출된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사분면은 개인 공간-외적·환경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배우자의 사별과 이혼, 자식의 분가, 미혼으로 나이가 들어서 등, 자의적으로 1인가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겪는 상황, 그에 따른 감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1. ‘1인 생활의 일상경험’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2사분면은 사회 공간-외적·환경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일’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대인관계가 맺기 어려운 상황, 사회활동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현재를 맞닥뜨리는 상황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4. ‘사회 구조적 제약’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3사분면은 사회 공간-내적·감정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가족, 친구, 지인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친밀함을 나누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회적 관계가 없는 상황과 감정이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군집3. ‘사회적 관계 단절’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4사분면은 개인 공간-내적·감정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앞으로 고립의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을 스스로 예상하며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과 감정이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군집4. ‘고립 상황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종합적으로 진술문들의 4개 군집은 4분면상에 고르게 위치하고 있으며, 진술문들도 하나의 차원에 치우치지 않고 1차원과 2차원 상에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즉, 주민 집단은 고립의 요인을 사회 공간-개인 공간, 외적 환경-내적 감정 등의 각각 영역에서 교차하거나, 중첩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나. 복지사·공무원이 생각하는 고립 요인에 대한 최종 진술문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생각하는 주민의 고립 요인’에 대한 최종 진술문은 총 22개로 아래 [표 50]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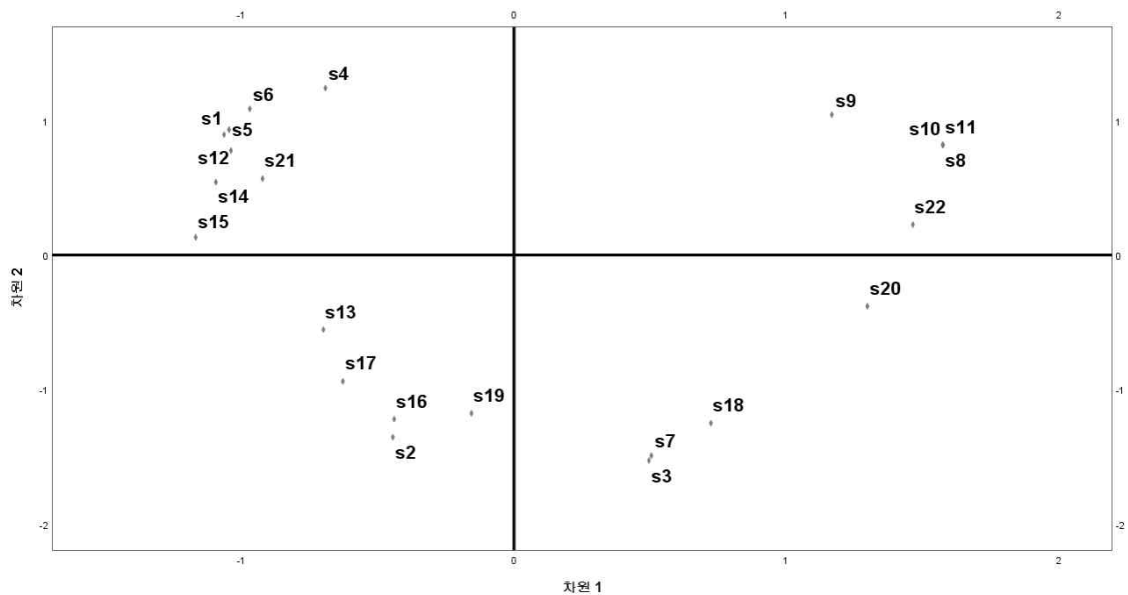
번호	최종 진술문 (총 22개)
01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혼잡할 때이다.
02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일상생활(요리, 청소 등)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할 때이다.
03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가족들이 무시할 때이다.
04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가족들이 그리울 때이다.
05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이다.
06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몸이 아플 때이다.
07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스스로 무기치함을 느낄 때이다.
08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이다.
09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이다.
10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이다.
11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낄 때(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이다.
12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이다.
13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이다.
14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15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때이다.
16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관계 맺기의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이다.
17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만나야 할 지 모를 때이다.
18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이다.
19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이다.
20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때이다.
21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사로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22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는 동네가 낙후(고령화) 되어간다고 느낄 때이다.

[표 50]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종 진술문

① 복지사·공무원의 다차원척도 분석

○ 진술문 분포 및 차원명

복지사·공무원 집단 7명의 유사성 분류 원 자료를 작성한 행렬표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립 상황의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2차원 해법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0.288로서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의 적절한 스트레스 값 범위인 0.205에서 0.365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지표인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인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는 0.604로 중간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림 72]는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도출된 2차원상 좌표값(진술문들의 위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2]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그림 72]에서 표시된 진술문들의 위치는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생각하는 고립 요인에 대한 유사성에 근거한다. 즉, 가까이 위치한 진술문들은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상호 비슷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진술문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분석을 통해 얻은 좌표값을 통해 각 차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원(X축)에서 정적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이다 (좌표값: 1.5736)
11.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낄 때(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이다(좌표값: 1.5736)
8.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이다 (좌표값: 1.5735)
22. 동네가 낙후(고령)화 되어간다고 느낄 때이다 (좌표값: 1.4636)
20.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때이다 (좌표값: 1.2968)
9.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이다 (좌표값: 1.1662)

1차원(X축)의 부정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때이다 (좌표값: -1.1687)
14.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좌표값: -1.0944)
1. 혼밥할 때이다 (좌표값: -1.0643)
5.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이다 (좌표값: -1.0463)
12.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이다 (좌표값: -1.0390)

위와 같은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을 근거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1차원(X축)의 정적 방향은 개인의 금전적·경제적인 곤란함과 그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른 지위의 하락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부정 방향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부담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절된 대인관계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1차원의 이름을 ‘경제적 지원 부재-사회적 지지(관계) 부재’로 명명하였다.

2차원(Y축)에서 정적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가족들이 그리울 때이다 (좌표값: 1.2409)
6. 몸이 아플 때이다 (좌표값: 1.0863)
9.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이다 (좌표값: 1.0423)
5.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이다 (좌표값: 0.9313)
1. 혼밥할 때이다 (좌표값: 0.8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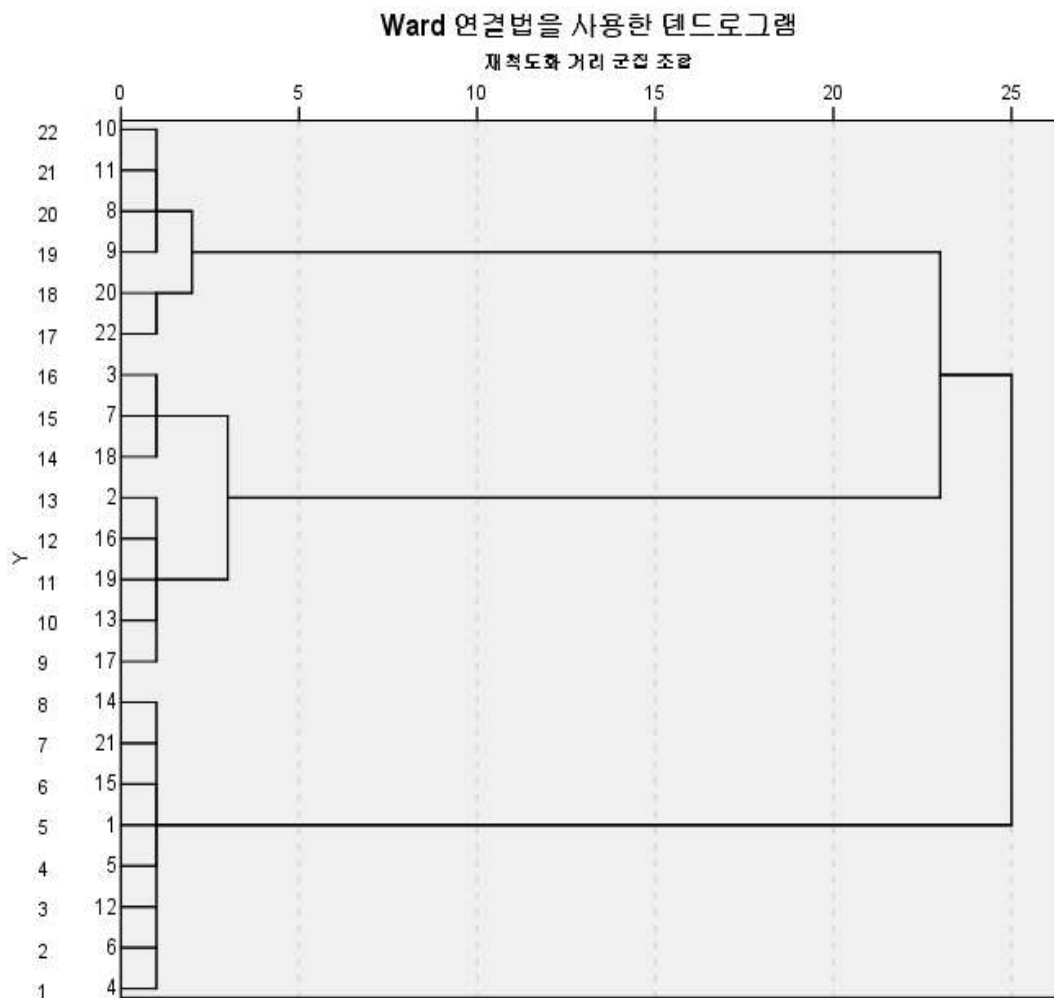
2차원(Y축)에서 부정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가족들이 무시할 때이다 (좌표값: -1.5274)
7.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이다 (좌표값: -1.4909)
2. 일상생활((요리,청소등)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할 때이다 (좌표값: -1.3535)
18.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이다 (좌표값: -1.2491)
16. 관계 맺기의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이다 (좌표값: -1.2202)
19.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이다 (좌표값: -1.1765)

위와 같은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2차원(Y축)의 정적 방향은 1인 생활자의 일상, 고립된 생활 등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부정 방향은 자기 스스로 돌보지 못하거나 사회활동의 중단과 관련하여 자존감 저하와 직결된 상황으로, 내적인 감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2차원의 이름을 ‘외적·환경-내적·감정’으로 명명하였다.

○ 군집의 분포

2차원상에 표시된 각 진술문들의 좌표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여, 아래 [그림 73]의 덴드로그램을 살펴 본 결과, 군집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차원분석의 결과,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관련 전문성과 사전 지식 등에 근거하여 군집 수는 3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고립 상황의 요인은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별로 포함된 진술문들은 [표 51]과 같다. 군집당 포함된 진술문 개수는 최소 6개에서 최대 8개로($M = 5.09$, $SD = 2.245$), 이들의 2차원 좌표값을 선으로 연결하여 각 차원과 군집 이름이 명시된 개념도는 [그림 7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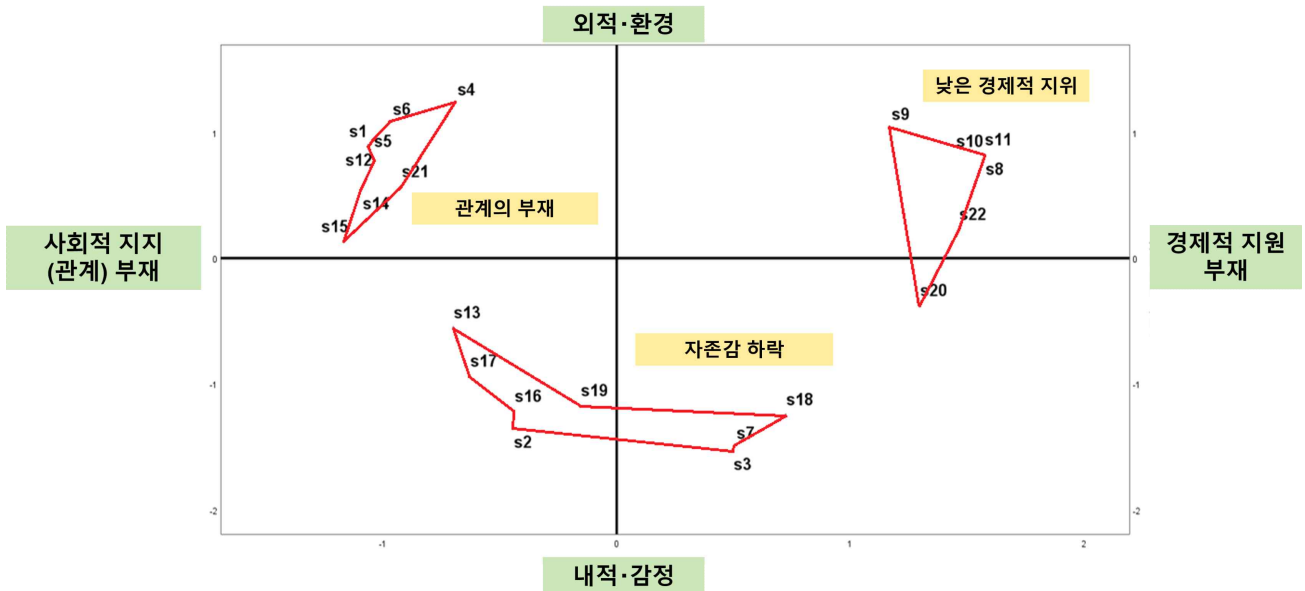


[그림 73]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복지사·공무원 초점 1. 주민들은 언제(어떨 때) 혼자라는 생각을 할까요?		
군집	번호	진술문(총 22개)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군집1 (6개) 낮은 경제적 지위	10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이다.
	11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낄 때(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이다.
	8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이다.
	9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이다.
	20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때이다.
	22	사는 동네가 낙후(고령)화 되어간다고 느낄 때이다.
군집2 (8개) 자존감 하락	3	가족들이 무시할 때이다.
	7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이다.
	18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이다.
	2	일상생활(요리, 청소 등)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할 때이다.
	16	관계 맺기의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이다.
	19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이다.
	13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이다.
	17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를 때이다.
군집3 (8개) 관계의 부재	14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21	이사로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15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때이다.
	1	혼밥할 때이다.
	5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이다.
	12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이다.
	6	몸이 아플 때이다.
	4	가족들이 그리울 때이다.

[표 51]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종 군집별 진술문

②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그림 74]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 군집명

군집명은 1사분면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명명했다. 2개의 차원(X축: 경제적 지원 부재-사회적 지지(관계) 부재, Y축:외적·환경-내적·감정)을 기준으로 할 때 진술문은 4개의 사분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군집1. 낮은 경제적 지위

- 개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낮아진 지위를 체감하는 상황이 묶인 군집으로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때’, ‘사는 동네가 낙후되어 간다고 느낄 때’에 주민들은 혼자라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감정과 관련해서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낄 때’라고 진술했다.

- 군집2. 자존감 하락

-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실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묶인 군집으로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일상생활(요리, 청소 등)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할 때’,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에 주민들은 혼자라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무시할 때’, ‘관계맺기의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를 때’라고 진술했다.

- 군집3. 관계의 부재

- 가족, 친구, 지인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 묶인 군집으로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이사로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때’,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혼밥할 때’, ‘가족이 그리울 때’에 주민들은 혼자라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특징

도출된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사분면은 경제적 지원 부재-외적·환경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사회적으로 낮아진 경제적 지위, 체감하는 상황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1. ‘낮은 경제적 지위’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2사분면은 사회적 지지·관계 부재-외적·환경으로 구분되며, 대인관계의 단절과 낮은 사회지지 체계와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3. ‘관계의 부재’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3사분면, 4사분면은 1차원의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관계 부재와 2차원의 내적·감정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스스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처지가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2. ‘자존감 하락’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종합적으로 진술문들의 3개 군집은 4분면상에 고르게 위치하고 있으나, 주로 많은 진술문들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외적 환경에 해당되는 2차원(Y축) 상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주민들의 고립 요인이 개인의 내적 감정에 비롯되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요인들이 사회적인 조건과 외부환경 때문에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2.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집단별 개념도

가. 주민이 생각하는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최종 진술문

‘주민 집단이 생각하는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최종 진술문은 총 25개로 아래 [표 52]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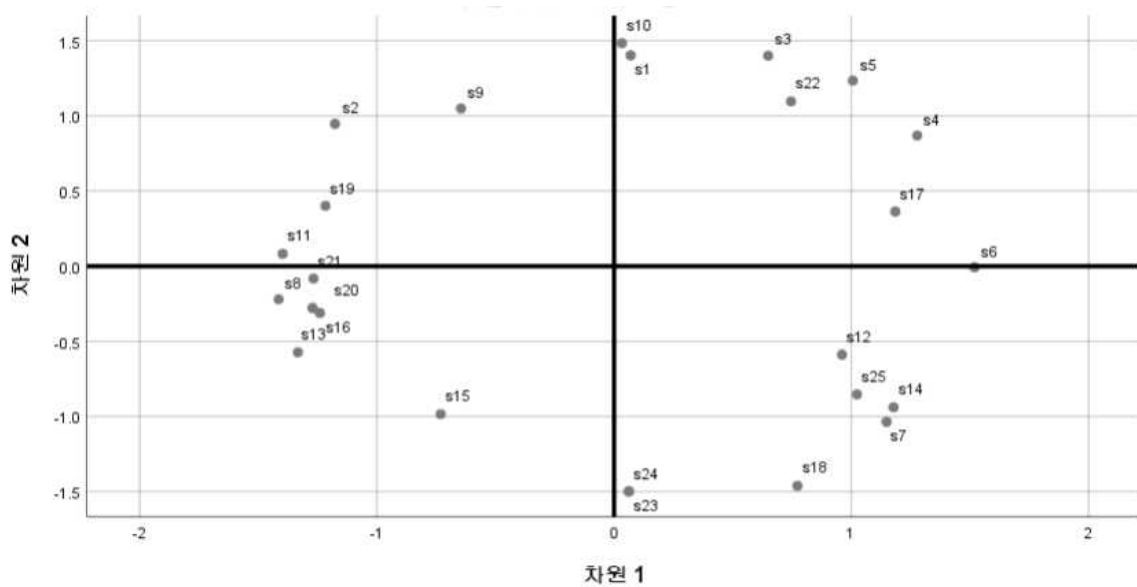
번호	최종 진술문 (25개)
01	드라이브할 때 시간이 잘 간다.
02	문화예술활동(악기, 사진, 그림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03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시간이 잘 간다.
04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이 잘 간다.
05	봉사활동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06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07	종교활동(교회, 성당, 절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08	집안일(청소, 빨래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09	스포츠관람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0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1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 시간이 잘 간다.
12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3	게임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4	쇼핑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5	생활공예(뜨개, 소품, 장식품 등)를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6	요리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7	등산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8	음주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9	TV 볼 때 시간이 잘 간다.
20	핸드폰으로 영상(노래)을 볼 때 시간이 잘 간다.
21	음악을 들을 때 시간이 잘 간다.
22	산책(걷기)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3	아무것도 안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4	잠잘 때 시간이 잘 간다.
25	일(돈벌이)할 때 시간이 잘 간다.

[표 52]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종 진술문

① 주민의 다차원척도 분석

○ 진술문 분포 및 차원명

주민 집단 8명의 유사성 분류 원 자료를 작성한 행렬표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2차원 해법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0.332로서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척도 분석의 적절한 스트레스 값 범위인 0.205에서 0.365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지표인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인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는 0.405로 중간 이하의 설명력을 보였다.[그림 75]는 주민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도출된 2차원상 좌표값(진술문들의 위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5]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그림 75]에서 표시된 진술문들의 위치는 주민 집단이 인식하는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유사성에 근거한다. 즉, 가까이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주민들이 비슷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진술문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주민들이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좌표값을 통해 각 차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원(X축)에서 정적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좌표값: 1.5190)
- 4.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좌표값: 1.2777)
- 17. 등산할 때 (좌표값: 1.1853)
- 14. 쇼핑할 때 (좌표값: 1.1779)
- 7. 종교활동(교회, 성당, 절 등)을 할 때 (좌표값: 1.1484)
- 25. 일(돈벌이)할 때 (좌표값: 1.0240)

1차원(X축)의 부정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 집안일(청소, 빨래 등)을 할 때 (좌표값: -1.4142)
- 11.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 (좌표값: -1.3973)
- 13. 게임할 때 (좌표값: -1.3332)
- 20. 핸드폰으로 영상(노래)을 볼 때 (좌표값: -1.2713)
- 21. 음악을 들을 때 (좌표값: -1.2671)
- 16. 요리할 때 (좌표값: -1.2401)
- 19. TV볼 때 (좌표값: -1.2164)
- 2. 문화예술활동(악기, 사진, 그림 등)을 할 때 (좌표값: -1.1765)

위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을 근거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1차원(X축)의 정적 방향은 등산, 쇼핑, 동호회 모임 등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바깥(실외)에서 할 수 있는 동적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부정 방향은 집안(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가사 일(청소, 빨래, 요리 등)부터 휴식으로 볼 수 있는 TV 시청까지 정적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집단의 1차원의 이름을 ‘실외·동적-실내·정적’으로 명명하였다.

2차원(Y축)에서 정적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좌표값: 1.4831)
- 1. 드라이브할 때 (좌표값: 1.4022)
- 3.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좌표값: 1.3998)
- 5. 봉사활동을 할 때 (좌표값: 1.2340)
- 22. 산책(걷기)할 때 (좌표값: 1.0963)
- 9. 스포츠관람 할 때 (좌표값: 1.0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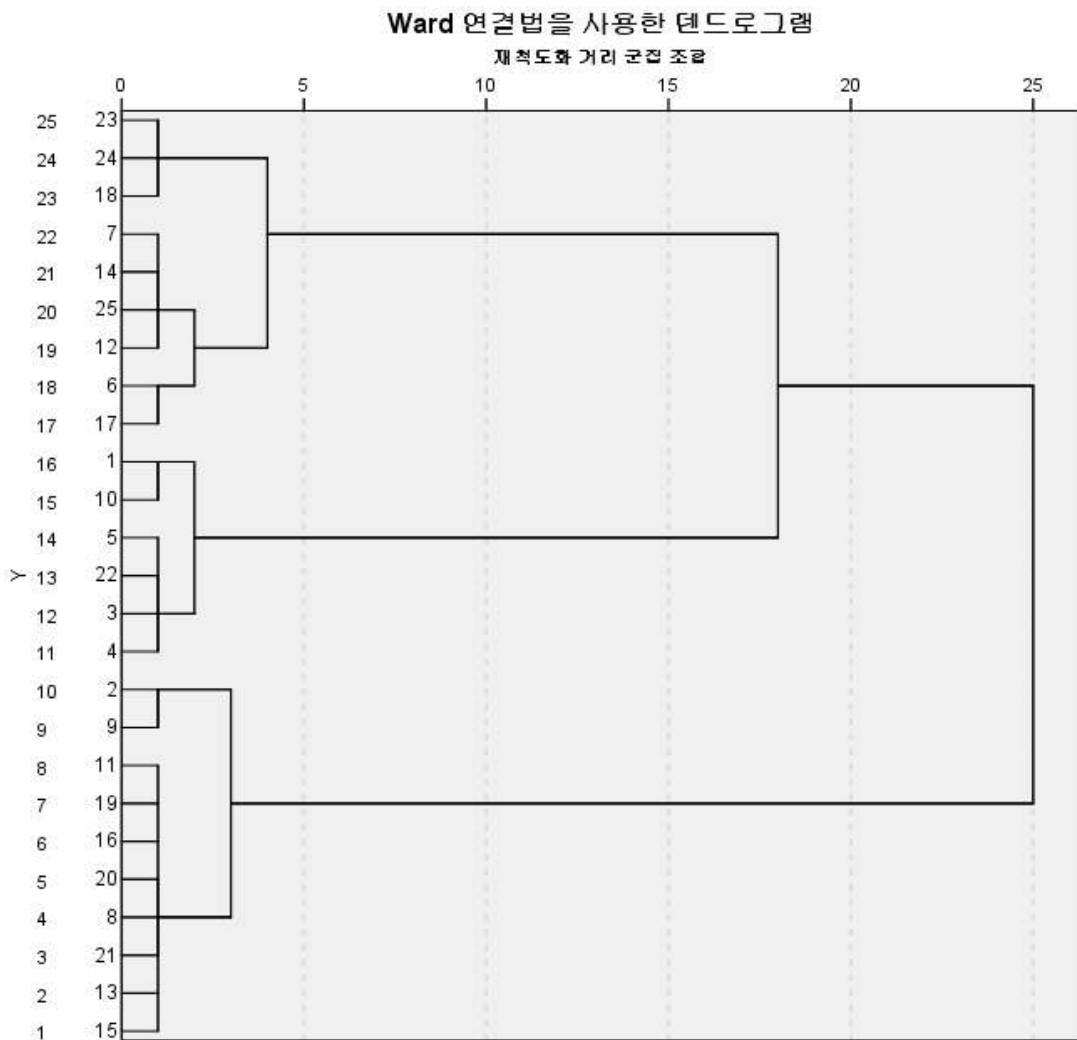
2차원(Y축)에서 부정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3. 아무것도 안할 때 (좌표값: -1.4978)
- 24. 잠잘 때 (좌표값: -1.4978)
- 18. 음주할 때 (좌표값: -1.4603)

위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2차원(Y축)의 정적 방향은 타인과 함께하거나 어울리는 관계 지향 목적의 활동, 일하거나 쇼핑하는 등, 목적 지향 성격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부정 방향은 시간개념이 없어지는 활동을 하거나 혼자 해도 상관없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집단의 2차원의 이름을 ‘타인과 함께 하는 활동-혼자 해도 상관없는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 군집의 분포

2차원상에 표시된 각 진술문들의 좌표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여, 아래 [그림 76]의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군집 수를 2개에서 7개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차원분석의 결과,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관련 전문성과 사전 지식 등에 근거하여 군집 수는 5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민 집단의 고립 완화를 위한 접근 요인은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별로 포함된 진술문들은 [표 53]과 같다. 군집당 포함된 진술문 개수는 최소 2개에서 최대 8개로($M = 6.60$, $SD = 1.658$), 이들의 2차원 좌표값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각 차원과 군집 이름이 명시된 개념도는 [그림 7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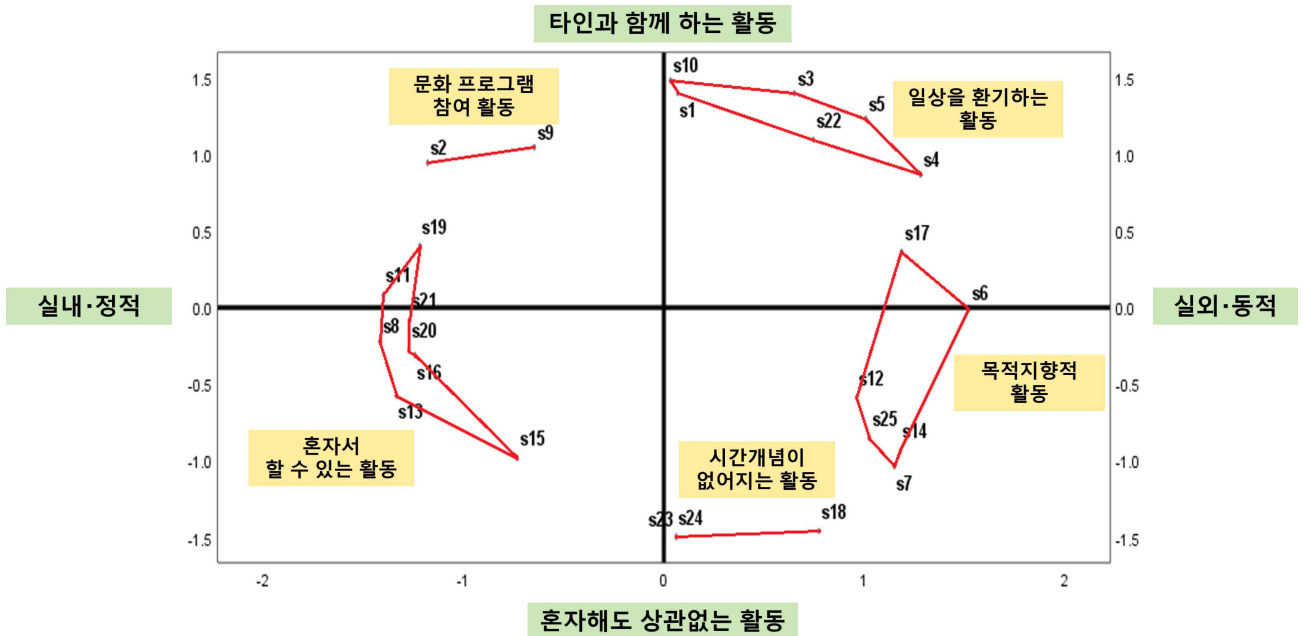


[그림 76]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주민 초점 2.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군집	번호	진술문(25개)
군집1 (6개) 일상을 환기하는 활동	1	드라이브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0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5	봉사활동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2	산책(걷기)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시간이 잘 간다.
	4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이 잘 간다.
군집2 (6개) 목적 지향적 활동	7	종교활동(교회, 성당, 절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4	쇼핑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5	일(돈벌이)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2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6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7	등산할 때 시간이 잘 간다.
군집3 (3개) 시간개념이 없어지는 활동	23	아무것도 안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4	잠잘 때 시간이 잘 간다.
	18	음주할 때 시간이 잘 간다.
군집4 (8개)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	11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 시간이 잘 간다.
	19	TV 볼 때 시간이 잘 간다.
	16	요리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0	핸드폰으로 영상(노래)을 볼 때 시간이 잘 간다.
	8	집안일(청소, 빨래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1	음악을 들을 때 시간이 잘 간다.
	13	게임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5	생활공예(뜨개, 소품, 장식품 등)를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군집5 (2개) 문화 프로그램 참여 활동	2	문화예술활동(악기, 사진, 그림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9	스포츠관람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표 53]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최종 군집별 진술문

②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개념도



[그림 77]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개념도

○ 군집명

군집명은 1사분면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명명했다. 2개의 차원(X축: 실외·동적-실내·정적, Y축:타인과 함께 하는 활동-혼자해도 상관없는 활동)을 기준으로 할 때 진술문은 4개의 사분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군집1. 일상을 환기하는 활동

- 일상생활과는 다소 다른 활동, 장소를 이동하여 행동하는 상황이 묶인 군집으로 ‘드라이브할 때’, ‘가벼운 운동할 때’, ‘봉사활동을 할 때’, ‘산책(걷기)를 할 때’,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진술했다.

- 군집2. 목적 지향적 활동

-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 여가 활동의 상황이 묶인 군집으로 ‘쇼핑할 때’, ‘일(돈벌이)할 때’,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동호회 모임을 할 때’, ‘등산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진술했다.
-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종교활동(교회, 성당, 절 등)을 할 때’, ‘동호회 모임을 할 때’라고 진술했다.

- 군집3. 시간개념이 없어지는 활동

- 혼자 있어도 시간이 가는 것을 잊는 상황이 묶인 군집으로 ‘아무것도 안 할 때’, ‘잠잘 때’, ‘음주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진술했다.

- 군집4.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

- 집안에서 하는 취미활동, 능숙하게 몸에 익힌 가사 활동이 묶인 군집으로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 ‘TV볼 때’, ‘요리할 때’, ‘핸드폰으로 영상(노래)을 볼 때’, ‘집안일(청소, 빨래 등)을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게임을 할 때’, ‘생활공예(뜨개, 소품, 장식품 등)를 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진술했다.

- 군집 5. 문화프로그램 참여 활동

- 문화예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묶인 군집으로 ‘문화예술활동(악기, 사진, 그림 등)을 할 때’, ‘스포츠 관람 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진술했다.

○ 특징

도출된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사분면은 실외·동적-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개인의 집이 아닌 외부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여 행해지는 실외 활동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1. ‘일상을 환기하는 활동’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2사분면은 실내·정적-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문화 프로그램의 직·간접적인 참여 활동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5. ‘문화프로그램 참여 활동’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3사분면은 실내·정적-혼자해도 상관없는 활동으로 구분되며 이곳에서 분류되는 진술들은 주로 집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가사일, 휴식 활동, 취미활동 등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4.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4사분면은 실외·동적-혼자해도 상관없는 활동으로 구분되며 이곳에서 분류되는 진술들은 실제 혼자서도 시간이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상황을 포함하여 생계 활동, 타인과 어울리는 활동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3. ‘시간개념이 없어지는 활동’, 군집2. ‘목적 지향적 활동’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종합적으로 진술문들의 5개 군집은 4분면상에 고르게 위치하고 있으나, 비교적 많은 진술문들이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실외·동적에 해당되는 1차원(X축) 상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주민 집단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활동 또는 함께 활동할 상대방이 있는 실외·동적 활동을 고립의 완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취미 활동 등 여가 활동에 관한 진술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나. 복지사·공무원이 생각하는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최종 진술문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생각하는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최종 진술문은 총 21개로 아래 [표 54]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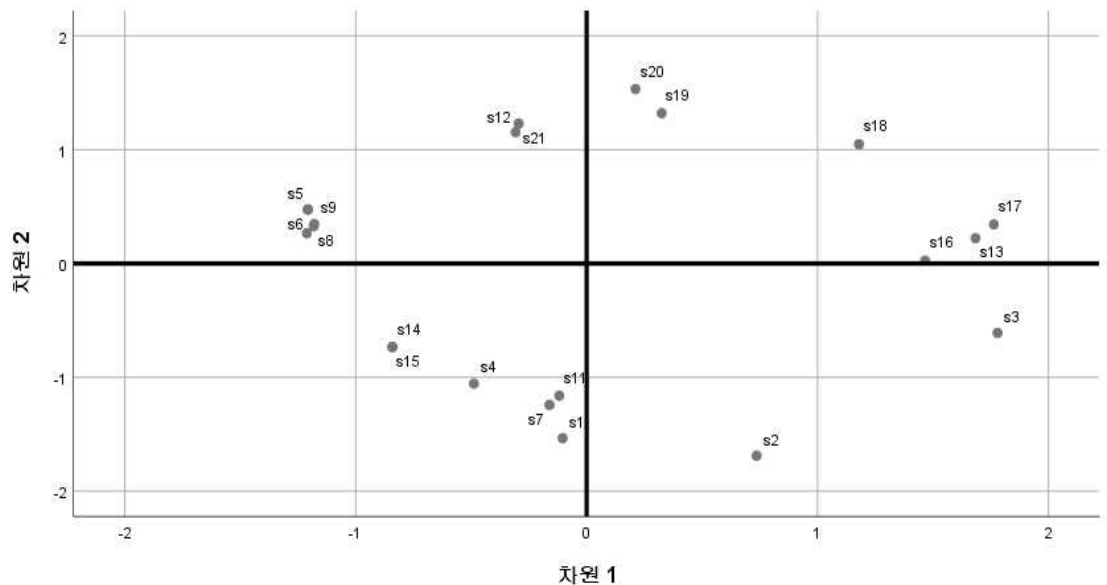
번호	최종 진술문 (총 21개)
01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문화예술 활동(글짓기, 그림 등)을 할 때이다.
02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이다.
03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대화, 공동체 활동 등)이다.
04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가벼운 운동을 할 때이다.
05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이다.
06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식물을 기르고 돌볼 때이다.
07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장기나 바둑을 할 때이다.
08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일기 쓸 때이다.
09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TV를 볼 때이다.
10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이다.
11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산책(걷기)을 할 때이다.
12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잠잘 때이다.
13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외출(병원)할 때이다.
14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음악을 들을 때이다.
15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읽기(신문, 책 등)를 할 때이다.
16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사람 구경할 때이다.
17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이다.
18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일을 할 때이다.
19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평소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이다.
20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옛날 생각을 할 때이다.
21	주민들이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이다.

[표 54]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종 진술문

① 복지사·공무원의 다차원척도 분석

○ 진술문 분포 및 차원명

복지사·공무원 집단 7명의 유사성 분류 원 자료를 작성한 행렬표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2차원 해법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0.247로서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의 적절한 스트레스 값 범위인 0.205에서 0.365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지표인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인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는 0.701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림 78]는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도출된 2차원상 좌표값(진술문들의 위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8]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그림 78]에서 표시된 진술문들의 위치는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인식하는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유사성에 근거한다. 즉, 가까이 위치한 진술문들은 주민들이 비슷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진술문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주민들이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좌표값을 통해 각 차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원(X축)에서 정적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지인이거나 이웃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대화, 공동체 활동 등) (좌표값: 1.7794)
17.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 (좌표값: 1.7636)
13. 외출(병원)할 때 (좌표값: 1.6840)
16. 사람 구경할 때 (좌표값: 1.4659)
18. 일을 할 때 (좌표값: 1.1794)

1차원(X축)의 부정적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 (좌표값: -1.2120)
5.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좌표값: -1.2075)
6.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 (좌표값: -1.2072)
8. 일기 쓸 때 (좌표값: -1.1826)
9. TV를 볼 때 (좌표값: -1.1795)

위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을 근거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1차원(X축)의 정적 방향은 실외에서 하는 다양한 동적 활동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대상이 필요한 외부활동으로, 집을 벗어날 외출의 이유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⁴³⁾ 반면 부정적 방향은 집안(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식물 등을 보살필 때, TV 시청과 모바일 기기 사용까지 휴식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1차원의 이름을 ‘실외·동적-실내·정적’으로 명명하였다.

2차원(Y축)에서 정적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옛날 생각을 할 때 (좌표값: 1.5322)
19. 평소 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좌표값: 1.3199)
21.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좌표값: 1.2281)
18. 일을 할 때 (좌표값: 1.0473)

2차원(Y축)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위치한 요인들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좌표값: -1.6882)
1. 문화예술 활동(글짓기, 그림 등)을 할 때 (좌표값: -1.5344)
7. 장기나 바둑을 할 때 (좌표값: -1.2426)
11. 산책(걷기)을 할 때 (좌표값: -1.1609)
4.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좌표값: -1.0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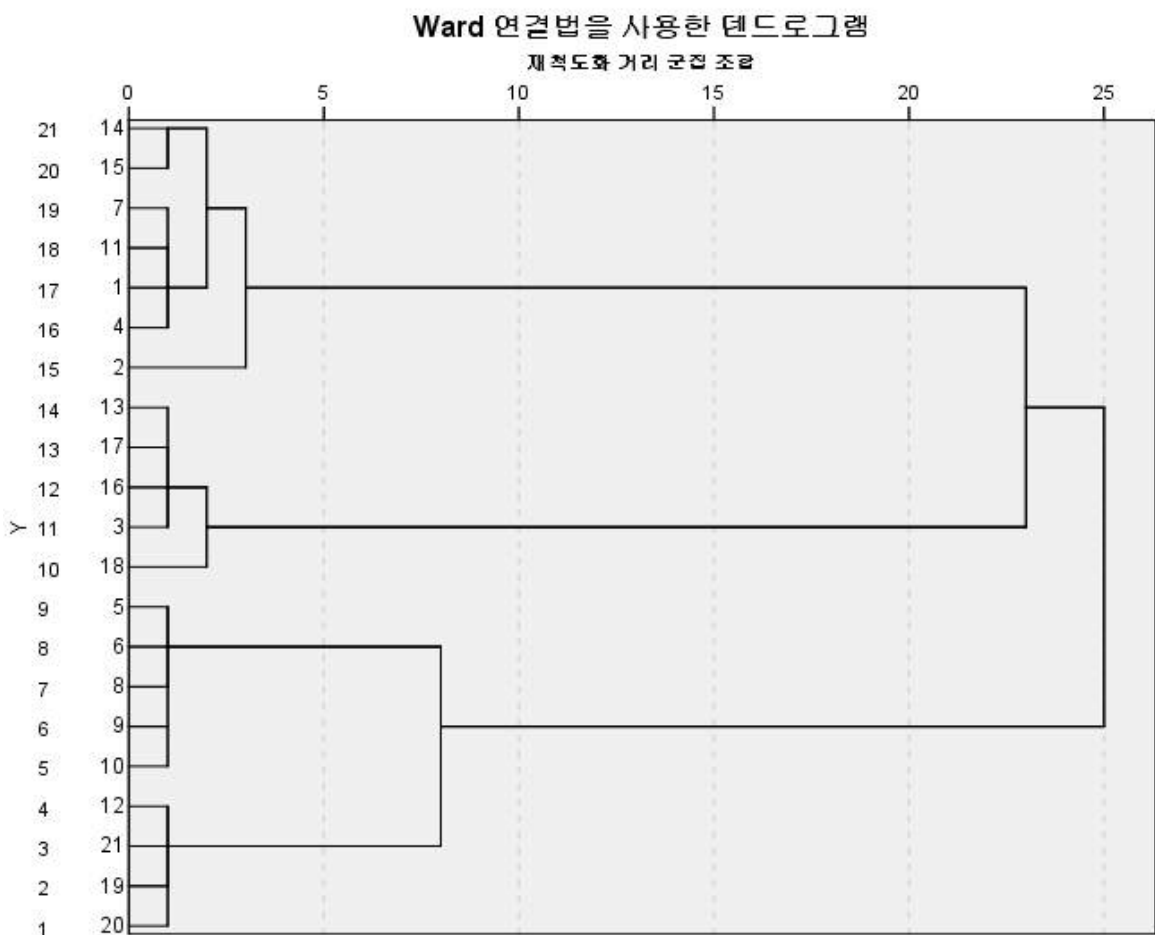
위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2차원(Y축)의 정적 방향은 본인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때를 회상하거나, 현재까지도 일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등의 자기독려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 방향은 복지관 및 문화 관련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동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기관 종사자로서 경험한 주민 대상의 복지서비스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⁴⁴⁾ 이에 따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2차원의 이름을 ‘자기주도 활동-대상화된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43) 2021년 10월 28일에 열린 <사회복지사·간호직 공무원 FGI 워크숍>에서 나왔던 의견 중, 권OO 복지사는 고립 위험에 처한 주민들이 집에만 있다가도 병원 등으로 외출하는 이유는 “밖에 나갈 구실을 찾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44) 같은 날, FGI 논의 중, “기존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장르 기반의 문화프로그램 사례 외에 아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군집의 분포

2차원상에 표시된 각 진술문들의 좌표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여, 아래 [그림 79]의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군집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차원분석의 결과,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관련 전문성과 사전 지식 등에 근거하여 군집 수는 4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고립 완화의 방법은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별로 포함된 진술문들은 [표 55]과 같다. 군집당 포함된 진술문 갯수는 최소 4개에서 최대 7개로($M = 5.29$, $SD = 1.901$), 이들의 2차원 좌표값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각 차원과 군집 이름이 명시된 개념도는 [그림 8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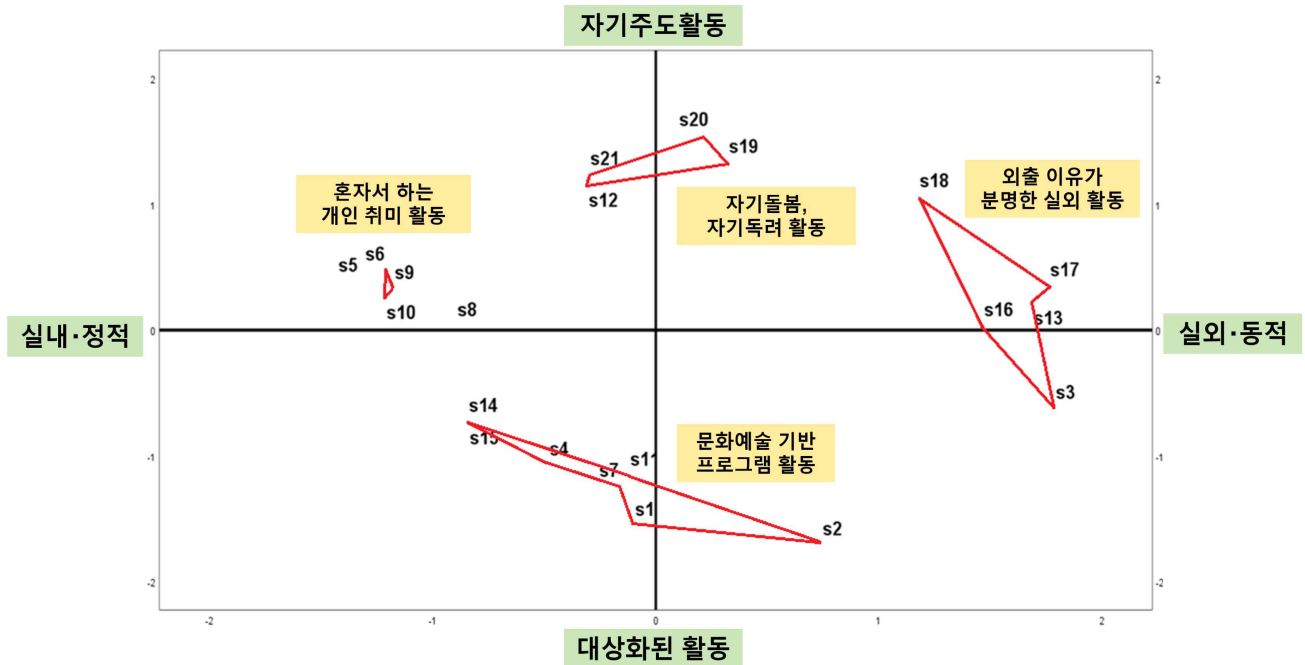


[그림 79]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복지사·공무원 초점 2.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일까요?		
군집	번호	진술문(총 21개)
군집1 (5개) 외출 이유가 분명한 실외 활동	13	외출(병원)할 때이다.
	17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이다.
	16	사람 구경할 때이다.
	3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대화, 공동체 활동 등)이다.
	18	일을 할 때이다.
군집2 (7개)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 활동	14	음악을 들을 때이다.
	15	읽기(신문, 책 등)를 할 때이다.
	7	장기나 비독을 할 때이다.
	11	산책(걷기)을 할 때이다.
	1	문화예술활동(글짓기, 그림 등)을 할 때이다.
	4	가벼운 운동을 할 때이다.
	2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이다.
군집3 (5개) 혼자서 하는 개인 취미 활동	5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이다.
	6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이다.
	8	일기 쓸 때이다.
	9	TV를 볼 때이다.
	10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이다.
군집4 (4개) 자기돌봄, 자기독려활동	12	잠잘 때이다.
	21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이다.
	19	평소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이다.
	20	옛날 생각을 할 때이다.

[표 55]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종 군집별 진술문

②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그림 80]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 군집명

군집명은 1사분면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명명했다. 2개의 차원(X축: 실외·동적-실내·정적, Y축:자기주도활동-대상화된 활동)을 기준으로 할 때 진술문은 4개의 사분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군집1. 외출 이유가 분명한 실외 활동
 - 개인의 집을 벗어나 외출의 이유가 있는 상황을 묶은 군집으로 ‘외출(병원)할 때’,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 ‘사람 구경할 때’, ‘일을 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함께 할 상대방이 있는 실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 (대화, 공동체 활동 등)’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군집2.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 활동
 -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활동과 여가 활동을 묶은 군집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읽기(신문, 책 등)를 할 때’, ‘산책(걷기)을 할 때’, ‘가벼운 운동을 할 때’, ‘문화 예술 활동(글짓기, 그림 등)을 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함께 할 상대방이 있거나 타인과 어울리는 실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장기나 바둑을 할 때’,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군집3. 혼자서 하는 개인 취미 활동

- 집안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상황과 개인 취미 활동을 묶은 군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 ‘일기 쓸 때’, ‘TV를 볼 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군집 4. 자기돌봄, 자기독려 활동

- 활발하게 활동하던 옛 모습을 떠올리거나 현재 생활 속에서 본인 스스로 돌보는 상황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활동을 묶은 군집으로 ‘잠잘 때’,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평소 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옛날 생각을 할 때’에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특징

도출된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사분면은 자기주도활동-실외·동적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개인의 집이 아닌 외부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여 행해지는 실외 활동이면서 스스로 나가야 할 이유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1. ‘외출 이유가 분명한 실외 활동’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2사분면은 자기주도 활동-실내·정적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되는 진술들은 실내에서 행하는 휴식 활동, 여가 및 취미 활동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 군집3. ‘혼자서 하는 개인 취미 활동’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1사분면과 2사분면은 자기주도활동-실외·동적, 실내·정적으로 구분되며 이곳에 분류된 진술들은 활동 장소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본인을 돌보고 의욕을 북돋는 활동과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군집4. ‘자기돌봄, 자기독려활동’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3사분면은 대상화된 활동-실내·정적으로 구분되며 이곳에서 분류되는 진술들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활동, 여가 활동과 관련성을 가진다. 4사분면은 대상화된 활동-실외·동적으로 구분되며 이곳에서 분류되는 진술들은 문화복지 기관의 프로그램화된 활동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집2.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 활동’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종합적으로 진술문들의 4개 군집은 4분면상에 고르게 위치하고 있으나, 비교적 많은 진술문들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활동에 해당되는 2차원(Y축)의 정적 방향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고립 완화의 방법을 활동 조건을 포함한 내적 동기와 외적 자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내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고립 요인의 개념도에 나타난 집단별 인식 비교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를 비교하면 아래 [표 56]로 정리된다.

고립 요인		주민	복지사·공무원
차원 구분	1차원	개인 공간-사회 공간	경제적 지원 부재-사회적 지지(관계) 부재
	2차원	외적·환경-내적·감정	외적·환경-내적·감정
군집 수		4개	3개
분포의 특징	군집	4분면상 고르게 위치	4분면상 고르게 위치
	진술	4분면상 고르게 분포	외적 환경에 해당하는 2차원(Y축) 정적(+) 방향에 많이 분포됨
종합		고립 요인을 사회 활동의 감소, 대인 관계의 단절, 개인의 감정 상태까지 포함하여 인식	고립 요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대인관계의 단절 등의 외적 환경에 비롯된다고 인식

[표 56]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비교

○ 시사점

- 당사자성에 기인하여 고립에 처한 감정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 고립의 요인에 대해, 주민 집단은 고립에 처할 위험이 있는 당사자로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몸이 아플 때 등의 신체적 증상은 물론, 고독하고 외로운 현재의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라는 감정 상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진술하였다.
 - 반면에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과 그에 따른 가족 간의 불화, 대인관계의 단절 등의 외부적 환경에 비롯된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 특히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외부적 환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이유는 현재 커뮤니케이션 등 복지정책의 방향에 맞춰 고립의 상황을 간헐적·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병원 동행, 단기 가사, 방문 진료, 주거환경 개선 등)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감정 상태에 대한 주민 집단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때’, ‘알던 사람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 ‘불안한 미래가 걱정될 때’와 같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 것을 고립의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와 상응할 수 있는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진술은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 ‘사는 동네가 낙후(고령)화 되어간다고 느낄 때’로 인지하고 있었다.
 - 따라서, 고립 상황에서 위축되는 심리는 물론,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인 이유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 갈 곳이 없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더욱 고립된다.
 -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 모두, 물리적 환경의 단절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인지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 물리적 환경의 단절에 대한 주민 집단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이사해서 만날 사람이 없을 때’와 같이 실제 만날 상대가 없거나 물리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을 고립의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복지사·공무원 집단 역시, ‘이사로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로 인지하고 있었다.
 -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관련하여 주민 집단은 경제활동인구로서 활발하게 돈을 벌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은퇴했거나 건강상·여건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또는 일거리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었을 때, 대인관계가 부담스러워진다고 했다.
 - 그 외,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집안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 혼자 있는 게 더욱 잘 느껴진다고도 했다.
 - 따라서, 외출의 이유와 구실을 만들고,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자리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사자들의 정해진 일상, 라이프스타일, 활동 반경 등을 존중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계 형성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주민 집단은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인, 친구 사이가 변하거나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때의 어려움을 진술하였고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단절되어 고립되는 상황이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 세부적인 진술을 살펴보면, 주민 집단은 ‘지인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알던 사람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 ‘인간관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만남이 싫을 때’, ‘관계맺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와 같이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자신감의 하락 등이 고립의 요인과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때’,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라는 상황과 함께,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를 때’, ‘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때’로 위축되는 감정과 고립의 요인이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고립의 책임과 의무를 가족에게만 지우지 말아야 하며, 주민과 복지사와의 관계는 ‘관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상호돌봄의 공동체와 사회적 가족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 그 외,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ex.기초생활수급자 아님, 부양가족 있음. 질병 있음, 개인연금 없음, 소유 주택 없음, 전문 기술 없음, 부양의무자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음 등)들을 어떻게 흡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4.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개념도에 나타난 집단별 인식 비교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를 비교하면 아래 [표 57]로 정리된다.

고립 완화의 방법		주민	복지사·공무원
차원 구분	1차원	실외·동적·실내·정적	실외·동적·실내·정적
	2차원	타인과 함께 하는 활동 -혼자 해도 상관없는 활동	자기주도활동-대상화된 활동
군집 수		5개	4개
분포의 특징	군집	4분면상 고르게 위치	4분면상 고르게 위치
	진술	실외 활동에 해당하는 1차원(X축) 정적(+) 방향에 많이 분포됨	자기주도활동에 해당하는 2차원(Y축) 정적(+) 방향에 많이 분포됨
종합		고립을 완화하려면 실외로 공간 이동, 상대방이 있는 동적 활동 필요	고립을 완화하려면 개인의 내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

[표 57]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개념도 비교

○ 시사점

- 주민들은 활동 상대가 있고, 실외에서 하는 동적 활동을 선호한다.
 -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해, 주민 집단은 일상생활의 연장 측면인 집안일부터 가벼운 외출, 여가 휴식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진술하였고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외출 목적이 분명한 실외 활동, 혼자서 하는 개인 취미활동, 활발했던 옛 시절을 회상하거나 스스로 돌보는 현재 상황의 자기돌봄과 자기격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 주민 집단의 전반적인 진술을 살펴보면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종교활동(교회, 성당, 절 등)을 할 때 등, 함께 활동할 상대방이 필요하거나 실외 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적 활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복지사·공무원 집단 역시, ‘외출(병원)할 때’,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 ‘일을 할 때’ 등, 외출 이유가 분명한 실외 활동이라고 진술하였고, ‘사람구경 할 때’,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대화, 공동체 활동 등)’의 상황을 진술하여 주민 집단과 유사한 내용을 답변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공통으로 인식한 고립 완화의 방법은 외출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나가서 어울리거나 만날 수 있는 상대와 공동체가 있을 것, 동적 활동에 주목할 것이다.

- 고립을 벗어나려고 하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 의지가 중요하다.
 - 주민 집단은 집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가사 활동 및 취미와 휴식 활동을 고립 완화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 측면의 활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주민 집단의 최초 진술문을 살펴보면 활동 이유와 방식에 대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반나절 이상 시간이 잘 가는’, ‘가능한 집에 있지 않으려’, ‘땀 흘릴 정도’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스스로 고립감을 떨쳐내기 위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이와 상응하여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최초 진술문을 살펴보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공통의 거리를 찾아내고’, ‘처해 있는 환경, 걱정을 다 잊고’, ‘꿈에 대한 이야기와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관찰자의 시선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동기부여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찰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주민 집단은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지를 북돋고 동기를 부여하는 자기들만의 방법을 쓰고 있으며,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주민들의 고립감 완화를 위해서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주민들이 스스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개입이 필요하다.
 - 주민 집단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환기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곳에 가거나, 관심사와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본인이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며 타인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립감을 완화한다고 진술하였다.
 - 또, 취미와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적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드러내었으며, 그에 따라 본인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해소하거나 완화하고 있었다.
 -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외출 이유가 분명한 실외 활동,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 활동, 취미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고립감을 완화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유지를 위한 안전망은 사적 모임, 복지관, 지역공동체 등을 예시로 들었다.
 - 두 집단의 진술 내용을 비교하면 당사자인 주민 집단에 비해,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동적 활동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배움 활동이나 사람을 직접 만나는 상황을 통해 고립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이는 재직 중인 기관의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중 실제 사례를 접했고, 기관 담당자이자 복지사로서 관할지역의 주민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인다.
 -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참여 또는 모임, 외부활동 등의 계획된 일정 외에, 고립의 위험에 처한 주민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걱정선의 개입이 필요하다.

4-5. 고립의 요인,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중요도

가. 고립 요인의 내용별 중요도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고립 요인에 대해 주민 집단의 진술문 28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진술문 22개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로 평가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고립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한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주민 집단

○ 진술문 평정

주민 집단의 28개의 진술문 목록을 중요도의 평균(표준편차의 범위 0.925-1.767)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 58]에 제시하였다. 주민들은 28개의 진술문 중, 평균 중요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중요, 5점: 매우 중요)를 보통 이상(3.0)으로 평가한 진술문은 23개이고, 보통 이하로 평가한 진술문은 5개이다. 이는 주민 집단이 23개 진술문에 대해서 보통 수준 이상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진술문 28개 중 중요도의 평균에 가장 높은 진술문은 ‘9. 몸이 아파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4.250)’ 이고, 가장 낮은 진술문은 ‘15.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2.375)’ 로 나타났다.

주민 초점 1. 나는 언제(어떨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드나요?					
진술문(총 28개)		합계	평균	표준편차	순위
9	몸이 아파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34	4.250	1.488	1
19	인간관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만남이 싫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30	3.750	1.388	2
5	가족이 그리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30	3.750	1.752	3
10	몸이 아플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9	3.625	1.302	4
14	불안한 미래가 걱정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9	3.625	1.302	4
22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9	3.625	1.767	6
20	관계맺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8	3.500	0.925	7
11	혼자인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8	3.500	1.603	8
28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8	3.500	1.690	9
8	신체기능 저하(장애, 질병, 운동기능 저하)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3.375	1.505	10

6	가족 간의 불화로 왕래가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3.375	1.685	11
26	직장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3.375	1.685	11
27	이사해서 만날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3.375	1.685	11
16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3.250	1.281	14
4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진 내 모습을 볼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3.250	1.388	15
18	알던 사람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3.250	1.581	16
21	만날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3.250	1.752	17
7	미안함 때문에 가족을 피해야 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3.125	1.125	18
1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3.125	1.552	19
25	할 일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3.125	1.552	19
12	내 처지가 서글플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3.125	1.642	21
3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혼자 밥을 먹을 때이다.	24	3.000	1.603	22
24	갈 곳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4	3.000	1.690	23
17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3	2.875	1.552	24
23	지인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2	2.750	1.281	25
2	집에 혼자있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2	2.750	1.581	26
13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1	2.625	1.302	27
15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9	2.375	1.187	28

[표 58]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중요도

○ 군집 평정

고립 개념을 중요성으로 평정한 값은 [표 59]과 같다. 각 군집별 중요성을 비교해보면 ‘군집2. 고립 상황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3.536)’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집4. 사회 구조적 제약(3.275)’ > ‘군집3. 사회적 관계 단절(3.171)’ > ‘군집1. 1인 생활의 일상경험(3.125)’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 집단은 군집2. ‘고립상황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고립 요인의 중요도에 있어 평균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몸이 아프거나 신체기능 저하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의지하거나 도움을 줄 만한 가족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고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민 초점 1. 나는 언제(어떨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드나요?					
진술문(총 28개)		합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군집1. 1인 생활의 일상경험 (8개)			3.125		IV
2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2	2.750	1.581	26
4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진 내 모습을 볼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3.250	1.388	15
12	내 처지가 서글플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3.125	1.642	21
1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3.125	1.552	19
10	몸이 아플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9	3.625	1.302	4
3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혼자 밥을 먹을 때이다.	24	3.000	1.603	22
13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1	2.625	1.302	27
11	혼자인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8	3.500	1.603	8
군집2. 고립상황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7개)			3.536		I
8	신체기능 저하(장애, 질병, 운동기능 저하)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3.375	1.505	10
9	몸이 아파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34	4.250	1.488	1
6	가족 간의 불화로 왕래가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3.375	1.685	11
7	미안함 때문에 가족을 피해야 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3.125	1.125	18
5	가족이 그리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30	3.750	1.752	3
21	만날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3.250	1.752	17
14	불안한 미래가 걱정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9	3.625	1.302	4
군집3. 사회적 관계 단절 (8개)			3.171		III
22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9	3.625	1.767	6
23	지인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2	2.750	1.281	25
17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3	2.875	1.552	24
15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9	2.375	1.187	28
18	알던 사람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3.250	1.581	16
19	인간관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만남이 싫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30	3.750	1.388	2
20	관계맺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8	3.500	0.925	7
16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6	3.250	1.281	14
군집4. 사회 구조적 제약 (5개)			3.275		II
24	갈 곳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4	3.000	1.690	23
25	할 일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	3.125	1.552	19
28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8	3.500	1.690	9
26	직장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3.375	1.685	11
27	이사해서 만날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7	3.375	1.685	11

[표 59] 고립 요인에 대한 주민 집단의 군집별 중요도

② 복지사·공무원 집단

○ 진술문 평정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22개의 진술문 목록을 중요도의 평균(표준편차의 범위 0.378-1.134)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 60]에 제시하였다. 복지사·공무원들은 22개의 진술문 모두를 평균 중요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중요, 5점: 매우 중요)의 보통 이상(3.0)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22개 진술문에 대해서 보통 수준 이상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진술문 22개 중 중요도의 평균에 가장 높은 진술문은 ‘5.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이다.(4.857), 12.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이다.(4.857)’ 이고, 가장 낮은 진술문은 ‘22. 주민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는 동네가 낙후(고령화)화 되어간다고 느낄 때이다.(3.143)’ 로 나타났다.

복지사·공무원 초점 1. 주민들은 언제(어떨 때) 혼자라는 생각을 할까요?					
진술문 (총 22개)		합계	평균	표준편차	순위
5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이다.	34	4.857	0.378	1
12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이다.	34	4.857	0.378	1
4	가족들이 그리울 때이다.	31	4.429	0.535	3
6	몸이 아플 때이다.	31	4.429	0.535	3
8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이다.	31	4.429	0.787	5
13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이다.	30	4.286	0.756	6
19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이다.	30	4.286	0.756	6
7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이다.	30	4.286	0.951	8
14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29	4.143	0.690	9
2	일상생활(요리, 청소등)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할 때이다.	27	3.857	0.378	10
9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이다.	27	3.857	0.690	11
1	혼밥할 때이다.	27	3.857	0.900	12
3	가족들이 무시할 때이다.	26	3.714	0.756	13
11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낄 때(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이다.	26	3.714	0.756	13
15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때이다.	26	3.714	0.756	13
10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이다.	26	3.714	0.951	16
16	관계맺기의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이다.	25	3.571	0.787	17
17	어떻게 만나야할지 모를 때이다.	25	3.571	0.787	17
18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이다.	25	3.571	0.976	19
21	이사로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24	3.429	0.535	20
20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때이다.	24	3.429	1.134	21
22	사는 동네가 낙후(고령화) 되어간다고 느낄 때이다.	22	3.143	0.900	22

[표 60]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중요도

○ 군집 평정

고립 개념을 중요성으로 평정한 값은 [표 61]과 같다. 각 군집별 중요성을 비교해보면 ‘군집1. 관계의 부재(4.21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집2. 자존감 하락(3.893)’ > ‘군집1. 낮은 경제적 지위(3.714)’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군집2. ‘관계의 부재’가 고립 요인의 중요도에 있어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가족 또는 사람이 없거나 주변에도 만날 사람이 없을 때 고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복지사·공무원 초점 1. 주민들은 언제(어떨 때) 혼자라는 생각을 할까요?					
진술문(총 22개)		합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군집1. 낮은 경제적 지위 (6개)			3.714		III
10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이다.	26	3.714	0.951	16
11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낄 때(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이다.	26	3.714	0.756	13
8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이다.	31	4.429	0.787	5
9	돈 빌릴 사람이 없을 때이다.	27	3.857	0.690	11
20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인식되었을 때이다.	24	3.429	1.134	21
22	사는 동네가 낙후(고령)화 되어간다고 느낄 때이다.	22	3.143	0.900	22
군집2. 자존감 하락 (8개)			3.893		II
3	가족들이 무시할 때이다.	26	3.714	0.756	13
7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이다.	30	4.286	0.951	8
18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이다.	25	3.571	0.976	19
2	일상생활(요리, 청소등)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할 때이다.	27	3.857	0.378	10
16	관계맺기의 부담감으로 만남이 싫을 때이다.	25	3.571	0.787	17
19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이다.	30	4.286	0.756	6
13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이다.	30	4.286	0.756	6
17	어떻게 만나야할지 모를 때이다.	25	3.571	0.787	17
군집3. 관계의 부재 (8개)			4.214		I
14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29	4.143	0.690	9
21	이사로 만날 사람이 없을 때이다.	24	3.429	0.535	20
15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때이다.	26	3.714	0.756	13
1	혼밥할 때이다.	27	3.857	0.900	12
5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이다.	34	4.857	0.378	1
12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이다.	34	4.857	0.378	1
6	몸이 아플 때이다.	31	4.429	0.535	3
4	가족들이 그리울 때이다.	31	4.429	0.535	3

[표 61] 고립 요인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군집별 중요도

나.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내용별 중요도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해 주민 집단의 진술문 25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진술문 21개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로 평가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고립 완화의 접근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주민 집단

○ 진술문 평정

주민 집단의 25개의 진술문 목록을 중요도의 평균(표준편차의 범위 0.518-1.847)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 62]에 제시하였다. 주민들은 25개의 진술문 중, 평균 중요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중요, 5점: 매우 중요)를 보통 이상(3.0)으로 평가한 진술문은 22개이고, 보통 이하로 평가한 진술문은 3개이다. 이는 주민 집단이 22개 진술문에 대해서 보통 수준 이상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진술문 25개 중 중요도의 평균에 가장 높은 진술문은 ‘1. 드라이브할 때 시간이 잘 간다.(4.500)’ 이고, 가장 낮은 진술문은 ‘23. 아무것도 안 할 때 시간이 잘 간다.(2.125)’ 로 나타났다.

주민 초점 2.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진술문 (총 25개)		합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드라이브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6	4.500	0.756	1
17	등산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5	4.375	1.061	2
16	요리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4	4.250	0.707	3
14	쇼핑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3	4.125	0.835	4
25	일(돈벌이)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3	4.125	1.458	5
19	TV 볼 때 시간이 잘 간다.	32	4.000	1.069	6
22	산책(걷기)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0.641	7
11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1.126	8
12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1.126	8
21	음악을 들을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1.126	8
9	스포츠관람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1.553	11
6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0	3.750	0.707	12
8	집안일(청소, 빨래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0	3.750	0.707	12
13	게임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0	3.750	1.282	14

10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9	3.625	0.518	15
3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9	3.625	1.302	16
5	봉사활동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9	3.625	1.302	16
15	생활공예(뜨개, 소품, 장식품 등)를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8	3.500	0.756	18
4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이 잘 간다.	27	3.375	0.744	19
24	잠잘 때 시간이 잘 간다.	27	3.375	1.408	20
2	문화예술활동(악기, 사진, 그림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6	3.250	1.488	21
20	핸드폰으로 영상(노래)을 볼 때 시간이 잘 간다.	24	3.000	1.414	22
18	음주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3	2.875	1.246	23
7	종교활동(교회, 성당, 절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1	2.625	1.847	24
23	아무것도 안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7	2.125	1.553	25

[표 62]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중요도

○ 군집 평정

고립 완화의 방법을 중요성으로 평정한 값은 [표 63]과 같다. 각 군집별 중요성을 비교해보면 ‘군집 2. 목적 지향적 활동(3.81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집1. 일상을 환기하는 활동(3.771)’ > ‘군집4.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3.750)’ > ‘군집5. 문화프로그램 참여 활동(3.562)’ > ‘군집3. 시간개념이 없어지는 활동(2.792)’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 집단은 군집2. ‘목적 지향적 활동’이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동의 목적이 분명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몰입하거나, 사적인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여 시간을 보내기 등이 고립 완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민 초점 2.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진술문(25개)		합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군집1. 일상을 환기하는 활동 (6개)			3.771		II
1	드라이브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6	4.500	0.756	1
10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9	3.625	0.518	15
5	봉사활동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9	3.625	1.302	16
22	산책(걷기)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0.641	7
3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9	3.625	1.302	16
4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이 잘 간다.	27	3.375	0.744	19

군집2. 목적 지향적 활동 (6개)			3.813		I
7	종교활동(교회, 성당, 절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1	2.625	1.847	24
14	쇼핑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3	4.125	0.835	4
25	일(돈벌이)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3	4.125	1.458	5
12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1.126	8
6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0	3.750	0.707	12
17	등산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5	4.375	1.061	2
군집3. 시간개념이 없어지는 활동 (3개)			2.792		V
23	아무것도 안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7	2.125	1.553	25
24	잠잘 때 시간이 잘 간다.	27	3.375	1.408	20
18	음주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3	2.875	1.246	23
군집4.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 (8개)			3.750		III
11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1.126	8
19	TV 볼 때 시간이 잘 간다.	32	4.000	1.069	6
16	요리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4	4.250	0.707	3
20	핸드폰으로 영상(노래)을 볼 때 시간이 잘 간다.	24	3.000	1.414	22
8	집안일(청소, 빨래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0	3.750	0.707	12
21	음악을 들을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1.126	8
13	게임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0	3.750	1.282	14
15	생활공예(뜨개, 소품, 장식품 등)를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8	3.500	0.756	18
군집5. 문화프로그램 참여 활동 (2개)			3.562		IV
2	문화예술활동(악기, 사진, 그림 등)을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6	3.250	1.488	21
9	스포츠관람 할 때 시간이 잘 간다.	31	3.875	1.553	11

[표 63]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주민 집단의 군집별 중요도

② 복지사·공무원 집단

○ 진술문 평정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21개의 진술문 목록을 중요도의 평균(표준편차의 범위 0.378-1.134)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 64]에 제시하였다. 복지사·공무원들은 21개의 진술문 중 평균 중요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중요, 5점: 매우 중요)의 보통 이상(3.0)으로 평가한 진술문은 19개이다. 이는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19개 진술문에 대해서 보통 수준 이상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진술문 21개 중 중요도의 평균에 가장 높은 진술문은 ‘3.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대화, 모임, 공동체 활동 등)이다.(4.429)’ , ‘18. 일을 할 때이다.(4.429)’ 이고, 가장 낮은 진술문은 ‘20. 옛날 생각을 할 때이다.(2.857)’ 로 나타났다.

복지사·공무원 초점 2.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일까요?					
진술문 (총 21개)		합계	평균	표준편차	순위
3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 (대화,모임,공동체 활동 등)이다.	31	4.429	0.787	1
18	일을 할 때이다.	31	4.429	0.787	1
2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이다.	29	4.143	0.378	3
19	평소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이다.	29	4.143	0.690	4
1	문화예술활동(글짓기, 그림 등)을 할 때이다.	28	4.000	0.577	5
5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이다.	28	4.000	0.816	6
21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이다.	28	4.000	0.816	6
11	산책(걷기)을 할 때이다.	27	3.857	0.378	8
6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이다.	27	3.857	0.900	9
4	가벼운 운동을 할 때이다.	26	3.714	0.488	10
13	외출(병원)할 때이다.	26	3.714	0.488	10
7	장기나 바둑을 할 때이다.	26	3.714	0.756	12
9	TV를 볼 때이다.	26	3.714	0.951	13
14	음악을 들을 때이다.	23	3.286	0.756	14
15	읽기(신문, 책 등)를 할 때이다.	23	3.286	0.756	14
10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이다.	23	3.286	1.113	16
16	사람구경할 때이다.	22	3.143	0.690	17
12	잠잘 때이다.	21	3.000	0.816	18
17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이다.	21	3.000	0.577	18
8	일기 쓸 때이다.	20	2.857	0.378	20
20	옛날 생각을 할 때이다.	20	2.857	1.215	21

[표 64]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중요도

○ 군집 평정

고립 완화의 방법을 중요성으로 평정한 값은 [표 65]과 같다. 각 군집별 중요성을 비교해보면 ‘군집 1. 상대방이 필요한 외부활동(3.7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집2.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 활동(3.714)’ > ‘군집3. 개인 활동, 혼자하는 취미(3.543)’ > ‘군집4. 자기돌봄, 자기독려활동(3.50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공무원 집단은 군집1. ‘외출 이유가 분명한 실외 활동’가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실외로 이동하는 활동 자체가 고립 완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복지사·공무원 초점 2. 주민들은 혼자서도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일까요?					
진술문(총 21개)		합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군집1. 외출 이유가 분명한 실외 활동 (5개)			3.743		I
13	외출(병원)할 때이다.	26	3.714	0.488	10
17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이다.	21	3.000	0.577	18
16	사람구경할 때이다.	22	3.143	0.690	17
3	지인이나 이웃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 (대화, 공동체 활동 등)이다.	31	4.429	0.787	1
18	일을 할 때이다.	31	4.429	0.787	1
군집2.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 활동 (7개)			3.714		II
14	음악을 들을 때이다.	23	3.286	0.756	14
15	읽기(신문, 책 등)를 할 때이다.	23	3.286	0.756	14
7	장기나 바둑을 할 때이다.	26	3.714	0.756	12
11	산책(걷기)을 할 때이다.	27	3.857	0.378	8
1	문화예술활동(글짓기, 그림 등)을 할 때이다.	28	4.000	0.577	5
4	가벼운 운동을 할 때이다.	26	3.714	0.488	10
2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이다.	29	4.143	0.378	3
군집3. 혼자서 하는 개인 취미 활동 (5개)			3.543		III
5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이다.	28	4.000	0.816	6
6	식물을 가꾸고 돌볼 때이다.	27	3.857	0.900	9
8	일기 쓸 때이다.	20	2.857	0.378	20
9	TV를 볼 때이다.	26	3.714	0.951	13
10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이다.	23	3.286	1.113	16
군집4. 자기돌봄, 자기독려활동 (4개)			3.500		IV
12	잠잘 때이다.	21	3.000	0.816	18
21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이다.	28	4.000	0.816	6
19	평소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이다.	29	4.143	0.690	4
20	옛날 생각을 할 때이다.	20	2.857	1.215	21

[표 65]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한 복지사·공무원 집단의 군집별 중요도

5. 시사점

본 절에서는 주민 집단과 복지사·공무원 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고립 요인과 고립 완화의 방법에 대하여 개념도를 그리고, 분석하였다. 또 직접 진술한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고립감의 해소 또는 완화 내용을 우선순위로 따져서 향후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에 반영하려고 한다.

가. 당사자성에 기인하여 고립감을 완화·해소하는 직·간접적 개입 필요

주민들은 고립의 요인을 코로나로 인한 고립,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물리적 단절과 본인의 미래에 다가올 불안감 등의 심리적 불안을 말하고 있으나, 복지사·공무원들은 신체의 약화와 더불어 파생되는 결과인 자기돌봄 역량의 부족, 경제적 지원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집에서 혼자 해야 하는 1인 생활과 홀로 남겨진 상황에 대해 고립감을 느끼지만, 일상을 보내는 집안일을 통하여 완화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는 동물과 식물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다. 즉 개인공간에서는 본인의 생활상과 그에 따른 감정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사회의 공간에서는 대인관계의 부재와 단절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고립의 상황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조건과 상황, 개인적 상태와 행동 양상을 개인의 입장과 사회적 문제로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동시에 고립 요인으로 꼽았으나, 고립의 위험에 처한 주민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더욱 방점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제도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의 유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가족 간 관계가 돈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의 역할과 만이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본인의 사후에도 남겨질 가족의 걱정 등의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고립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이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개입이 안팎으로 필요하다.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상황을 다소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도움이 될만한 복지제도를 소개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유발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까지 진전될 수 있기에, 심리 건강의 측면에서는 불안과 우울에 대한 상담이 선행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보일 때 의료 시스템과 연계한다면 유효할 것이다.

나. 스스로 고립을 벗어나는 의지가 생길 때는 할 일, 갈 곳, 활동 상대가 있을 때

주민들은 활동 상대가 있고, 실외에서 하는 동적 활동을 선호하며 할 일이 있거나 갈 곳이 있는 경우 스스로 고립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생긴다고 보았다. 복지사·공무원들 역시, 고립의 완화 방법 중 하나로 외출 이유가 분명한 실외 활동이라고 진술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활동 상대, 할 일, 갈 곳이라는 세 가지 요소이다. 이 요소가 충족될 때 외출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코로나 장기화와 모르는 동네로 간 이사는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갈 곳’을 없게 만들었고, 은퇴했거나 신체기능의 약화로 일하기 힘든 상황은 ‘할 일’을 현저히 줄여 들게 하였다. 두 가지 원인은, 타인(활동 상대)과의 만남을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복지사·공무원들은 고립의 위험에 처한 주민들이 할 일과 갈 곳, 만날(대화할)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복지관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결하였다.

따라서, 물리적 단절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 주목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유대감과 호혜를 쌓을 수 있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공 공간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북구의 ‘어울락센터’, 사하구의 ‘복지정거장’ 등을 사례로 볼 수 있다.

『돌봄선언』을 쓴 ‘더 케어 컬렉티브’는 돌보는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네 가지 핵심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호지원, 공공 공간, 공유 자원, 지역민주주의다.⁴⁵⁾ 이 중 공공 공간에 대한 설명에 대입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고립을 살피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공간들이 필요하다.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마을자치회관 등, 특정 용도의 지정 공간 외에도 고립의 위험에 처한 주민들의 돌봄을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지역 내 독립서점, 북카페 등의 문화공간부터 다양한 상업공간까지 모든 공간이 ‘인소싱’을 통한 돌봄의 개념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공간들이 늘어나는 자체가 지역 내 돌봄의 공유 인프라가 형성되는 과정이며,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과 같다.⁴⁶⁾

다.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내적 동기를 파악하여 일상생활을 연장하는 측면으로 접근

고립 완화의 방법으로 주민들은 혼자 또는 다수가 해도 상관없는 개인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의 정적·동적 활동을 모두 진술했다. 특히 각자의 생활 주기와 방식에 맞춰 일상의 일부, 또는 연장 측면으로 여기며 고립감을 떨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복지사·공무원들은 동적 활동 위주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민 개인의 내적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건과 상태, 행동의 주요 양상을 실내·실외, 능동적·수동적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개인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정적·동적 활동을 병행할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의 형성까지도 일상생활의 연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의 꽃밭·텃밭을 가꾸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길에서 들르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유사한 관심과 취미를 가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향후 혹시라도 겪게 될 고립감을 다양한 활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45) 더 케어 컬렉티브는 네 가지 핵심 특성인 상호지원, 공공 공간, 공유 자원, 지역민주주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공동체는 이웃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생겨난 상호원조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호지원을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에 기반을 둔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그와 같은 형태의 지원은 대개 자발적이고 아래로부터 위로 진행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돌보는 공동체는 공공 공간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공동의 소유하고 공공재로 유지되고 개인의 이익에 따라 유용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공공 공간 확장은 모든 것을 사유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강박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돌보는 공동체는 자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을 우선시한다. 도구 같은 물질적 자원과 온라인 정보 같은 ‘무형’ 자원 모두 마찬가지이며, 소수에 의한 자원의 축적이나 일회성 자원을 지양한다. 마지막으로, 돌보는 공동체는 민주적이다. 돌보는 공동체는 지역에 걸맞은 활동과 통치를 진보적인 지방자치와 협동조합을 통해 확장해야 하고 돌봄과 복지 활동의 민영화를 수반하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의 확대와 ‘인소싱’을 통해 공공 부문을 재건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여준다. 돌보는 공동체는 이 네 가지 특성을 쌓아가며 강화되어야 하고, 더 많아져야 하며, 당연해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공유 인프라’가 형성된다. (돌봄선언, 90-91p)

46)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99p 내용을 본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재구성. 2021. 니케박스.

VI.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본 절은 영도문화도시센터가 2022년 비전 중 핵심 가치로 내세운 ‘연결’과 ‘성장’을 중심으로, 영도구 도시 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를 제시한다. 주요사업 중 ‘예술로 마을’, ‘예술로 자람’을 통해 고립감을 완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목표 안에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측면, 보건복지 측면, 문화예술 측면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보건복지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마을복지계획을 통한 접근을 살핀다.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돌봄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알아볼 것이다.

VISION

사람-자연-역사가 문화로 이어지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MISSION

도시 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합니다



[그림 81] 문화도시 영도 2025 추진전략 및 핵심 가치

1. 지역사회 측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30년이 흘렀으나 2018년 기준, 국가 대 지방사무의 비율이 7:3,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6:24로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의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관 중심의 주민자치로 인해 주민들은 정책 수립 과정부터 지역 내 행정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부터 결정, 집행까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을 시행하고자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기반 아래, 지방 자치가 실현되려면 지방사무, 자치권, 자주 재원 등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이 필수이다.⁴⁷⁾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약칭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2020년 1월에 제정하였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2022년 1월에 의결되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방이양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화의 시작으로, 지역의 일은 지역 내에서 권한, 책임, 재원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의미이다.⁴⁸⁾ 즉,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직·간접적으로 지역 정책의 계획 및 예산 수립, 집행 등의 과정에 주민 참여의 과정이 포함되어 민간에 예산편성 권한이 주어지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 권한을 위한 제도, 기초와 광역의 역할 분담, 지역 정책의 재구성, 주민 참여 과정과 협치 등, 모두가 고려대상이 된다.

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의 자치(마을)계획 내 ‘고령감 완화를 위한 돌봄’ 계획 수립

부산 자치구 중 65세 고령 인구 비율이 27.6%(2020년 통계청 기준)로 제일 높고, 인구소멸 위험도가 가장 큰 영도구는 2·30대의 전출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부산시 기준 31%인 반면에 영도구는 35%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영도구는 이에 대한 대비로 2019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다.⁴⁹⁾

부산광역시는 2020년 1월 기준, 16개구·군 20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자치회원은 총 4,777명, 프로그램 운영 수는 총 5,880개(주민자치회당 29개 프로그램)가 진행되었으며 연간 이용 인원은 2,446천명(주민자치회당 11,874명)으로 집계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체로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7)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지역 자체의 정치 및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주민 친화적인 행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과 주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 참여,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을 구성요소로 갖는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지방자치’ 설명 참조.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450.php)

48)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포럼 시리즈] 지역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 1차 (2021.07.13.) 자료집, 손경년 발제요약 p14.

49) 영도문화도시센터, 「2022년 영도문화도시센터 비전보고서」 참고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⁵⁰⁾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의 2019년, 2020년 주요 추진사업은 ‘부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 및 활성화 지원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운영기반 강화’, ‘주민자치회 평가 추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1년 7월에 열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 토론회에 의하면, 부산시는 2019년부터 14개의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세부 사업의 내용이 적고 실제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공유할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에 따르는 권한 및 범위의 문제, 사업 수행 중 실현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의 상황에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주민자치와 지방 분권이 중요시되는 흐름에 맞춰 안전한 지역 기반의 돌봄과 로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자치 공동체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⁵¹⁾

따라서 고립감 완화를 위한 돌봄 기능 계획의 수립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은, 부산시의 조례에 명시된 ‘부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 및 활성화 지원 강화’, ‘주민자치회 운영기반 강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5조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행사, 교육, 편의, 여가 기능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한층 폭을 넓혀 코로나 상황에서 영도형 고립감 완화를 위한 돌봄 모델의 구축과 정착을 위한 시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고립 위험도가 높아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래에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관련 법안과 조항을 정리하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의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의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위탁받을 수 있으며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위의 『지방분권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설치, 시범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 기능 중 자치(마을)계획 수립의 업무 수행이 나타나 있다. 제5조(기능)의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50) 부산광역시 > 부산소개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현황 <https://www.busan.go.kr/jumin03>

51) “부산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연내 건립돼야” (2021.07.07. 부산제일경제) 2022.03.22. 검색. <http://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1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14조3의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에 자치(마을)계획안의 수립 내용의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5조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행사, 교육, 편의, 여가 기능으로 정리되어 있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표 66]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정리

영도구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2013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5항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영도구는 별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진 않지만 이처럼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주민 주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16조에서 지칭하는 ‘주민협의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모두 마을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두 합산하면 2020년 기준으로 부산 전역에 446개로 나타난다.⁵²⁾

2022년 3월 현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되어 최종의결을 기다리고 있다.⁵³⁾ 개정안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 제출하고 시장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3조3.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로 명칭을 정확하게 명시하였고 사업의 위탁조항을 삭제하여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마을공동체

52) 2020년 기준으로 부산의 마을공동체는 446개로 나타난다. 풀뿌리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 복지관 조직 주민 공동체, 건강도시 공동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다양한 공동체의 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 토론회 중 김종건 발제내용)

53) 부산광역시의회 의회록 > 의안정보 중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업의 범위에 4.주민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측면에서는 마을종합발전계획 내에 고립의 위험에 처한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측면에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 행복마을 만들기 등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서도 중복 진행하고 있어서 이미 참여하는 주민들은 피로감이 높은 편이다. 이에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타 주민들의 환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실제 해결하고픈 문제, 관심 있는 영역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과정 또한 실제 협치 당사자인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견인 역할은 마을공동체가 맡아서 주민 주도성과 사업추진 역량을 높이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촘촘한 안전망으로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위험 가구를 발굴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425개동에서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을 추진 중이다. 취약 계층과 사각지대 주민들을 상시 돌보고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진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은 50+보람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하여 약 800여 명이 활동을 앞두고 있다. 돌봄단 1인은 1일 2~3가구의 정기 방문 및 안부 확인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월 48시간(주3일, 1일 4시간 이내)을 활동한다. 1인당 활동비로 22만원이 지급되고 상해보험의 가입과 교육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우리동네 돌봄단’ 사례와 같이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웃을 살피는 주민 모임 등을 구성하여 늘 가까운 주민을 살피고, 주민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이라도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복지·보건 측면

복지·보건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마을복지계획 등의 접근을 고려하였으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안에서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돌봄의 체계와 환경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화예술 분야 실무분과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방분권과 지역사회의 주체적 참여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스스로 욕구를 진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의 민관협력 기반 협의체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시작했다가 사회복지의 영역을 사회보장영역(주거, 교육, 일자리 등)으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금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초기의 설계대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과 함께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까지 구체화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실무분과는 지역사회의 형편과 전략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아동청소년 분과처럼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자 차원의 분과를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대상 분과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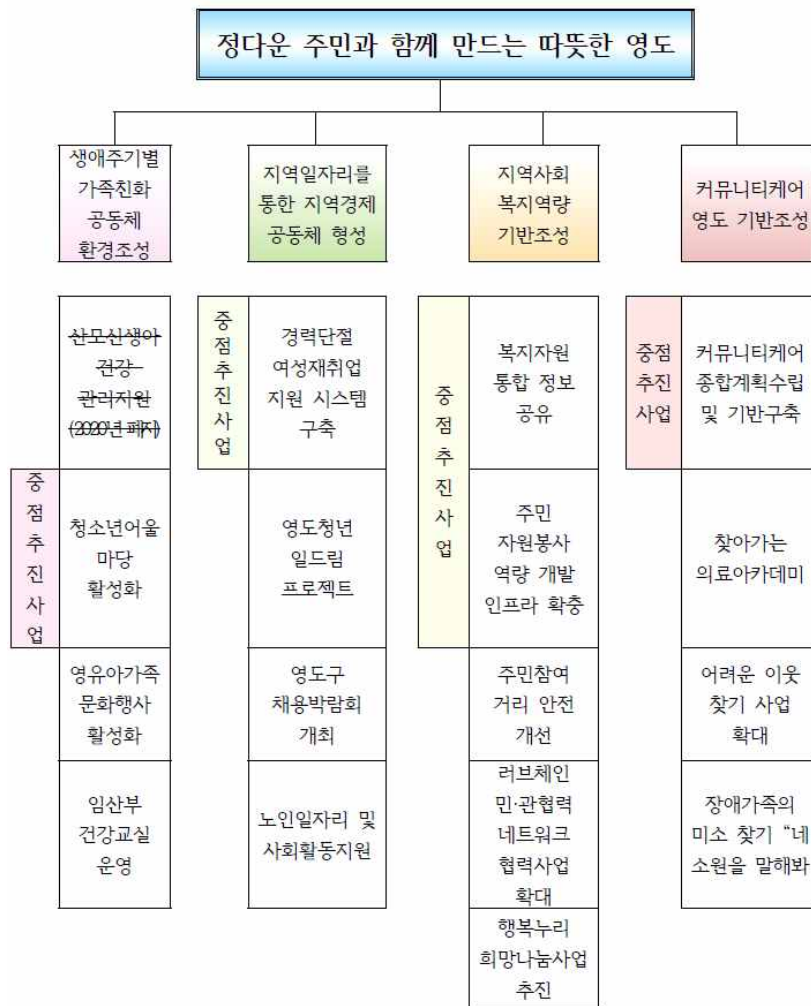
하지만 여기서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영도도시문화센터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분과 구성이 가능하다. 물론 그들로만 구성하기 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하여 문화예술 차원의 접근전략을 모색하고, 활동하는 성격의 분과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기관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협의기구에서 포함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 방안 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초기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된 계획은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보살피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책임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방정부차원의 복지전략 또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최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통적인 복지부서의 사업계획에서 자치단체의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 방안을 범(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림 82] 영도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구성 체계

다. 마을복지계획을 통한 주민주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회적 고립감 완화는 결국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개인이 그 장에서 능동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일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역주민은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주요한 매개체이다. 또한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고립의 환경은 지역주민 당사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주민 주도의 계획으로 이러한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치이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0)에 따르면 ‘마을복지계획이란 이웃 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하는 복지계획이지만 수립 범위와 과정 등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읍면동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주도의 ‘마을’ 복지계획이지만 ‘마을’의 범위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체와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⁵⁴⁾

54) 오민수·김주연,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과 쟁점, 「복지이슈 FOCUS」 2021-01호, 경기복지재단.

특히 마을복지계획은 지역성을 가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전문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다. 개인의 삶에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고립감이 높은 대상자들을 위한 고민을 마을복지계획에 담을 수 있다. 현재 도시락 배달, 환경 개선과 같이 일반화된 마을 단위 사업들의 확장성을 문화예술을 통해 시도할 수 있다.

과정	준비단계 (계획단 구성)	수립1단계 (욕구/환경분석)	수립2단계 (복지과제 선정)	수립3단계 (계획수립)	공유단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계획추진지원단 구성 -읍면동 계획단 구성 -주민 참여역량 강화 교육(1~4회기) -주민욕구조사 준비 -주민 대상 계획수립 공표 -계획수립 모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환경분석 -주민대상 설문조사 -각 사회단체 등 활동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생활과제 검토 -마을 복지이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및 전략체계도 구성 -세부사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청회 시행 -주민리더 대상 공유(이장단, 각 사회단체 정례회의 등)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물 게시
주체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추진지원단 구성, 설문조사 설계, 주민교육지원 -읍면동: 마을계획단 구성, 설문조사 협조, 주민교육실시 -시군협의체: 조사 설계 협조, 교육 추진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계획단: 설문조사 홍보, 마을 환경 분석 -읍면동: 사회단체 현황 및 사업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계획단: 복지과제 도출 -시군 추진지원단: 중간점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계획단: 전략체계도 구성 -읍면동: 세부사업 수행체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계획단: 계획 공유 -읍면동: 주민공청회, 이장단, 협의체 등 공유

[그림 83]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
출처: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과 쟁점, 「복지이슈 FOCUS」 2021-01호

[그림 84]는 마을복지계획과 자치(마을)계획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⁵⁵⁾ 두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립 단위로 마을복지계획은 행정구역(읍면동)을 단위로 하고, 마을계획은 생활 구역(행정리)을 단위로 하고 있다. 물론 계획의 내용도 복지과제와 생활과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둘의 차이는 크지 않다. 지리적 범위가 넓을수록 복지과제와 생활과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이 둘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계획은 담당부처가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계가 분명하나 읍면동 단위 이하의 계획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모호한 경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도구와 같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그 안에서도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진 동은 생활과제와 복지과제는 거의 동일시된다.

55) 오민수·김주연,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과 쟁점, 「복지이슈 FOCUS」 2021-01호, 경기복지재단.

구분	마을복지계획	마을계획
계획수립 영역	복지과제 (돌봄, 나눔, 봉사, 사각지대발굴 등)	생활 과제 (주민총회, 입주주민 환영, 마을안길, 마을사업 등)
수립 단위	읍면동(행정구역)	마을(생활구역, 행정리)
수립 사례	<div> <div>비전</div> <div>행복한 복지마을 "옥천면"</div> <div>전략목표</div> <div> <div>옥천면 행복나눔 활성화</div> <div>옥천면 행복돌봄 확대</div> <div>옥천면 참여복지 확대</div> <div>옥천면 인적안전망 활성화</div> </div> <div>9개 세부사업</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면 방장고(협의회) - 계경 특화 사업 (김장나눔) - 안부특목사업 - 우리집 할금데이 (협의회-단체 연계) - 사랑의 거리모금 & 나눔 캠페인 - 어르신공동체 사업(마을사업) - 우리동네반찬 나눔 (8개단체연합) - (신규)옥천면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 (신규)신규주택 단지 네트워크 형성 </div> </div>	<div> <div>비전</div> <div> </div> <div>목표</div> <div> <div>1. 마을구성원 모두의 생활 및 공동체 실현</div> <div>2. 주민 모두 참여하는 마을환경 개선</div> <div>3. 즐겁고 놀면서 하는 경제가치 창출</div> </div> <div>추진전략</div> <div> <div> 니들이 상상프로젝트 "마을 안길 만들기" 1. 골단, 오곡안, 마을주민 축제개최 2. 초록마을 서부나눔 프로젝트 3. 신규 입주인 환영 프로젝트 </div> <div> 이른스런 민생프로젝트 "마을 안길 가꾸기" 1. 마을 안길 가꾸기 2. 마을공동체 환경정제 3. 초록마을 돌봄길 조성 </div> <div> 다들스런 경제프로젝트 "즐거워하는 마을" 1. 농산물부담금 및 두레농장 2. 초록마을 장터 프로젝트 3. 고육농장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 </div> </div> </div>

[그림 84] 마을복지계획과 마을계획의 차이
출처: 「복지이슈 FOCUS」 2021-01호, 경기복지재단

따라서, 문화예술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해당 지역이 가지는 특성과 역량에 따라 마을복지계획 또는 앞으로 시행·수립될 마을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선택 또는 연계가 필요할 뿐 특정 부처의 계획이어야 되는 당위성은 높지 않다. 계획 수립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커뮤니티케어에서 돌봄활동가의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인의 돌봄활동 지원

부산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주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활동가들의 돌봄활동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지원이 익숙치 않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매개자이자 서비스 이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주요한 참여주체로서 돌봄활동가와 문화예술이 접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적 역할 공유이다. 기존의 돌봄활동가가 최초 연계된 지역주민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도구로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인들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초 학습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또는 서비스 연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두 가지 차원의 주체를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본래 역할에 상대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 지역사회 통합돌봄 생태계(공유공간)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상호소통의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물리적 공간은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거주지일수도 있고, 공유공간일 수도 있다. 현재 부산시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은 통합돌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성격으로 지역사회에 내에 다양한 공유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물리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공유공간 등의 물리적 공간에서는 접근성 제고 차원의 간단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다 확장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하는 사례가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사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정거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체로 1인가구 대상 은둔하고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시설(기관)이 아닌 동네 한켠에 정거장 부스를 24시간 운영하여,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방문하여 간단한 보건의료 진단과 문화예술활동 성격의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3. 문화예술 측면

앞서 지역사회 측면과 복지·보건 측면은 주민들이 실제 활동하는 주체와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 구성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절에서는 영도문화도시센터가 발견하고 축적한 커뮤니티, 커뮤니티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 체계와 역할을 정리하고 지역적 특색과 맥락을 고려하여 동네에 함께 거주하는 주민,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까지 포함한 문화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고립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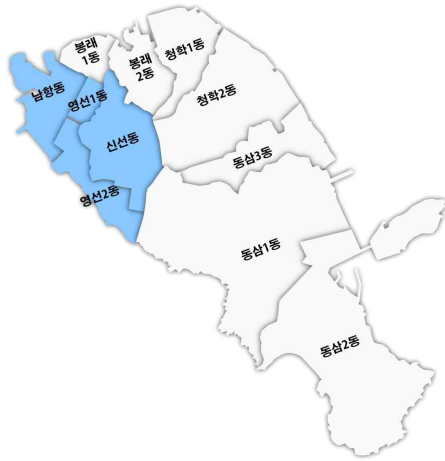
가. 지역 매핑을 통한 커뮤니티 자원의 지속적 연결로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

본 연구는 ‘고립의 위험에 처한 주민들은 의지할 대상이 있는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즉, 복지정책 서비스 대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마을 안에서 건강하게 의존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관리 대상에 처한 고립된 주민들은 구체적인 안전의 확인, 건강관리, 정보제공은 복지정책 내의 일상 지원체제로 해결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지원체계에 속하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례관리, 직접 방문, 연락과 통화 등으로 힘쓰고 있으나, 사례관리 대상이지만 고독사를 피해갈 수 없었던 매스컴의 보도를 간혹 들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의 일상 활동(식사, 외출)의 동향을 살펴줄 이웃과 주변 사람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공간 등의 연결고리가 마을 안에 있다면 한결 안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나의 외로움과 약해진 마음을 다소 내보여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서히 나의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가고 싶어진다. 현재 영도구에서 주민공동체 공간을 운영 중이거나 관리하는 주민들은 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어느 특정인이나 관청이 운영을 주도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발견을 위해선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진 활동가, 기획자, 예술가 등이 필요하며 일자리 차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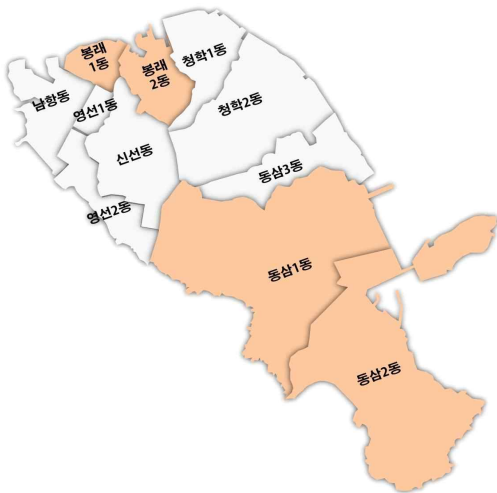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한 지역 매핑으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지구별 사례관리에 따라서 제1, 2, 3지구를 기준으로 하여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조사」에서 주제별, 규모별, 권역별 커뮤니티 분포도를 재구성한 지도와 커뮤니티 자원을 모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1지구 (남향동, 영선1·2동, 신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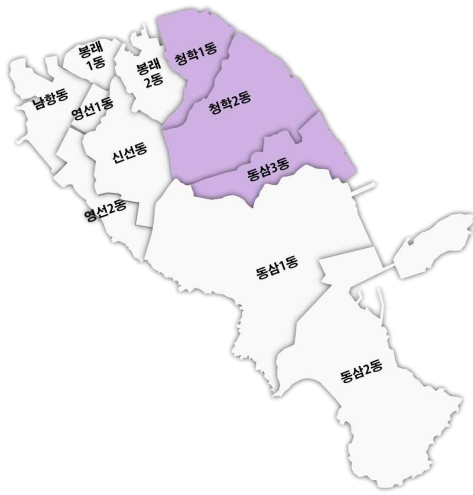
구분	남향동	영선1,2동	신선동
복지관	영도구노인복지관	-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문화기반 시설	영도어린이영어 도서관 강강이생활문화 센터	-	-
커뮤니티 공간	강강이마을공작소	원도심청년놀이터사업 선정공간, 흰여울오픈마켓, 녹색광산, 손목서가, 두레박센터	신선행복나눔밥상
커뮤니티	남향동주민자치회 사)대평동마을회	영선1동주민자치회, 영선2동주민자치회, 레트로덕천, 꿈놀터, 다행복월드맵, 풀잎시낭송회, 영피스, 흰여울문화마을공동체, 영도판람협동조합, 함께키움	신선동주민자치회, 신선글샘, 도래샘사랑방, 수작
커뮤니티 -주체	배00, 안00	이00, 서00, 민00, 양00, 김00, 윤00, 한00, 황00	-

제 2 지구 (봉래1·2동, 동삼1·2동)



구분	봉래1,2동	동삼1동	동삼2동
복지관	영도구노인복지관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
문화기반 시설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강강이생활문화센터	영도도서관, 영도문화원, 영도문화예술회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 박물관, 동삼동패총전시 관
커뮤니티 공간	이사토채방, 담쟁이작은도서관, 무명일기, 아레아식스, 대통전수방전수창업교 육장, 디ONE연습실, 분홍집, 봉산적산가옥(목선)공방, 우리동네공작소목금토, 청마가옥, 일인다색, 알로하그린, 암암복스	영도해녀문화전시관, 리케이온, 평생교육학습놀이 마루	-
커뮤니티	봉래1동주민자치회, 봉래2동주민자치회, 다시부산, 봉산마을마을관리사회 적협동조합, 우리동네든지기미단, 해피아트, 나무배의꿈, 라보드, 주디, 봉산캠퍼스, 봉산휴쟁이, 나도쫄쫄기자	영도희망21, 동삼1동향토문화동호 회, 동감, 그린게릴라, 위하리통기타, 동삼1동주민자치회, 강그린, 예모팩토리(에코맘그 린리더협의체), YES그린, 영도를더파도, 남달리봉시동아리, 씨드볼트, 영도낭사랑, UDT구조단	동삼2동주민자치 회, 동삼어촌계
커뮤니티 -주체	윤00	유00, 김00, 김00, 성00, 한00, 김00, 조00	-

제 3 지구 (청학1·2동, 동삼3동)



구분	청학1동	청학2동	동삼3동
복지관	-	-	상리종합복지관 동삼종합복지관
문화기반 시설	-	-	-
커뮤니티 공간	해돋이행복센터(영도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심오한진, 해돋이행복나눔터, 와치홈바	신기카페, 신기잡화점, 불로초공원, 작은도서관모두, 플랫폼135, 꼬티,	-
커뮤니티	해돋이마을주민협의체, 청학1동주민자치회, 아트N크래프트,	태종대인형극단, 스마일एको, 청학2동주민자치회	동삼3동주민자치 회, 국화마을, 비디오품은국화 협동조합
커뮤니티 -주체	황00, 김00	채00, 한00, 한00, 김00	윤00

[표 67] 지구별 사례관리에 따른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 구분

지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이유는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다년간의 협력이 축적되어 있다. 협의체 내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 공간, 커뮤니티,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보완한다면 실제 복지·보건·문화예술이 통합된 돌봄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다. 이때 플랫폼 주체, 플랫폼 공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생태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역할을 제안한다.

① 플랫폼 주체 : 커뮤니티, 커뮤니티 주체

- 매개자 또는 돌봄활동가에 준하는 역할을 의미, 고립 위험을 감지하고 최초 발견하는 역할
- 사회 참여적 예술의 개념을 동의하는 예술가가 참여, 기존「똑똑똑 예술가」유지

② 플랫폼 공간 : 커뮤니티 공간, 문화기반시설

- 마을 내 쉼터, 고립 위험 주민을 발견하면 돌봄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하는 거점 역할 부여
-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자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생태계 : 커뮤니티, 커뮤니티 주체+커뮤니티 공간, 문화기반시설이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와 유사하게 각 주체와 공간들이 참여하여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측면의 접근을 위한 사례관리팀 역할을 부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 논의 테이블에서 문화예술 측면에 대한 의견 제시
-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을 이어가는 통합돌봄 생태계를 통해 돌봄의 문화를 서서히 정착

나. ‘문화적 프로브’ 접근으로 실제 고립의 위험을 대처하고 일상 활동을 디자인

연구에 참여한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의 사례관리에 속하는 주민들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1

인 생활은 늘 익숙하지만, 문득 ‘혼자다’ 고 인지하는 순간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가 있다고 답했다.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주기적으로 다녔던 공공기관은 모두 문을 닫았고 고령의 친구들은 만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향후 참여 의사를 동시에 질문하였는데 본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거나 관심사 또는 취향에 맞는 경우에만 관심을 보였다. 반면에 관심이 없거나 가지 않았다는 내용 중에는 공공일자리의 참여 시간과 겹치거나, 관심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① 문화적 프로브(Cultural Probes) 방식을 활용하여 고령 위험의 주관적 경험 파악

프로브(Probes)란,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 의견, 감정, 바람 등을 그들의 실제 생활 공간에서 생각해보고 직접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다이어리, 사진 촬영 도구, 이미지 콜라주를 위한 도구, 엽서, 스티커 등으로 프로브 패키지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일정 기간 자신의 일상 안에서 프로브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기록한다. 작성 기간이 끝나면 프로브를 회수하여 디자이너가 해석한다. 프로브를 하는 이유는 사용자 관찰 방법에서 더 나아가,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에 접근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디자인적인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문화적 프로브가 나타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존 사용자 관찰 방법에 회의를 느낀 90년대 후반, 인간의 감정, 주관적 경험, 가치, 즐거움 등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던 시기에, 유럽위원회 연구 프로젝트였던 ‘프레젠스(Presence, 1997~1999에서 빌 게이머를 비롯한 RCA(영국왕립 예술대학교)의 디자이너들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한 디자인 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느린 기술 디자인을 주창하고 컴퓨터 정보기술이 가진 가능성을 활용하면서 일상생활 속 상상력과 감성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는 게 목표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인생 경험과 걱정,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에 더욱 주목하여 사용자 조사 자료의 초기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노인의 인생과 일상의 풍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거리가 담긴 소책자와 일회용 카메라, 지도, 엽서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배달했다. 이후 모인 결과물들을 절대 분석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들이 작성한 내용들은 매우 시각적이고 상징적이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RCA디자이너들은 세 나라의 노인들이 보낸 내용물에 대해서 주관적 해석을 공유하고 상상력을 보냈다. 노인들은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지만, 도시에 외부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는 현상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마을 벤치의 등받이 부분에 마을 노인들이 공유하고 싶은 삶의 지혜나 경험을 보여주는 ‘슬로건 벤치(slogan bench)’ 등의 전자 가구들을 곳곳에 설치했다. 이 사례는 과학적 분석을 배제하고 사용자가 작성한 기록물에 따라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기 위한 도구로 문화적 프로브를 활용한 예시이다. 예술적 성격이 강하고 비교의 관점을 제시하는 비평적 디자인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⁵⁶⁾

개념도 연구 결과에서 ‘시간이 잘 간다’는 활동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주민들은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이 섞인 일상생활을 진술하였고 복지사·공무원들은 동적 활동과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 언급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 ‘외출’에 대한 진술을 분석하면 주민들은 본인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외출을 하는데 반해, 복지사·공무원들은 지인이나 공동체를 통해 대화하고 일하는 등의 관계

56) 이정주, 이승호 「새로운 디자인 도구들」. 제2장 대화 도구 프로브 p.105~111. 인사이트.

맺기의 외출을 언급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당사자와 외부자의 관점,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확히 알려준다.

따라서 ‘문화적 프로브’를 통해 1인 가구의 주민들이 시간이 잘 간다고 느낄 때, 실제 외출하고 싶을 때 또는 외출이 필요할 때의 무의식적인 행동, 잠재동기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동시에 다양한 1인 가구의 주관적 경험(영도에서 사는 만족, 일상생활의 걱정 등)을 수집하여 영도의 삶에서 만족하는 점, 요구하고 싶은 점, 바꾸고 싶은 점, 기여하고 싶은 점 등을 밝혀야 한다. 이 데이터는 고립 위험에 처한 주민들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는지, 관계의 지속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영도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동기는 무엇인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 결과는 플랫폼 주체, 플랫폼 공간 등의 통합돌봄 생태계의 속성과 구성요소를 파악할 때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

② 개인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필요

문화적 프로브를 통해서 나타난 개인의 성향, 특징에 따라서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접근에서의 복지관 프로그램은 해당 시간과 장소에 가야 하고 대인관계에 부담감이 있는 경우에 계속 어울리는 것을 강요받거나 집단생활을 하게 되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민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사람들과 만나거나, 만나고 싶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장르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주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생활패턴을 관찰하여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찾고 접근할 것인지 플랫폼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공통의 지역 조건을 지녀도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개인의 삶과 그에 따른 욕구는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영도 주민이자 개별자로 각자의 다름을 인식하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맞닿은 정적·동적 활동에서는 혼자서/여럿이, 함께하는/전문가가 필요한 활동이 있으며, 이 활동 콘텐츠는 플랫폼 공간인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기반시설로 재연결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공간은 일반 상업시설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성격이 매우 다양한 만큼 참여 정도와 개입 정도를 매우 다양하게 기획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 예술의 치유적 속성을 담은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① 예술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필요

이희인(2021)은 예술치료와 예술치유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치료와 치유의 개념상 각각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두 가지 개념 모두 건강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치료는 과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질병의 진단 및 처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치유는 객관화될 수 없는 주관적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며 심리적 안정, 예방, 회복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개인적 차원의 효과성(긍정적 자아 강화, 개인의 회복)과 사회적 차원의 효과성(소통 능력, 공감 능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찰했다.⁵⁷⁾

57) 이희인. (2021). 암환자 대상 온라인 예술치유 프로그램 효과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예술의 치유·보건적 측면을 탐구하는 커뮤니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사례는 독일의 피나 바우쉬 재단Pina Bausch Foundation과 콘페티 카페Konfettie Cafe를 들 수 있다. 두 사례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내에서 처한 환경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지닌 대상이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점, 예술 매체를 통해 이야기할 때 다른 매체보다 더욱 전달력이 강력하다는 점, 예술은 마음의 안정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요시해야 하고 미학적 예술 활동으로 접근하여 창조의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특히 피나 바우쉬 재단은 프로젝트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을 참여자의 자발성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답했다.⁵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한 <2021 찾아가는 예술처방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심리적 우울감 극복과 해소,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예술치유 지원을 위하여 전문 예술치유단체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술체험 키트와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전국 9개 시·도 2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예술체험 키트는 미술, 음악, 무용키트로 개발하여 참여자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직접 배달하여 온라인 줌을 통해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희망자를 모아 집단상담과 기타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비대면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과 여럿이 하는 집단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 실제 치료 목적의 전문 상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위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예술치유는 문화예술의 치유적 속성을 토대로, 다양한 예술 기법을 활용하여 본인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심리 안정과 사회관계의 회복을 도우며 필요할 때 치료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예술프로그램을 구성·기획·진행하는 가운데 예술과 건강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예술 활동의 과정 자체를 치유의 과정으로 보며 촉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중심에 두고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초기 단계부터 심리 건강에 대한 전문적 개입 필요

2017년 발행된 웹진 아르떼365의 <예술, 예술치유의 힘> 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치유 사업 대상을 회복, 재활, 경미, 증진, 예방의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이를 정상에 가까운 예방적 유형, 실제 극복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역동적 유형, 장기적 심리 치료형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⁹⁾

사회적 고립의 차원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크게 실망하여 집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바깥출입에 자신감을 잃은 주민들이 있다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인의 감정 및 정서적 돌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담당 복지관에서 가정방문을 할 때 반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심리치료사(상담 자격, 센터 순회)와 동행하는 절차를 만들고, 고립감 또는 외로움의 전문 테스트 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예술가와 예술치료사가 치유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58) 아르떼365, ‘예술, 예술치유의 힘’, 2017.03.20. 발행

59) 아르떼365, ‘예술, 예술치유의 힘’, 2017.03.20. 발행

③ 돌봄 인력의 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및 예술가의 재교육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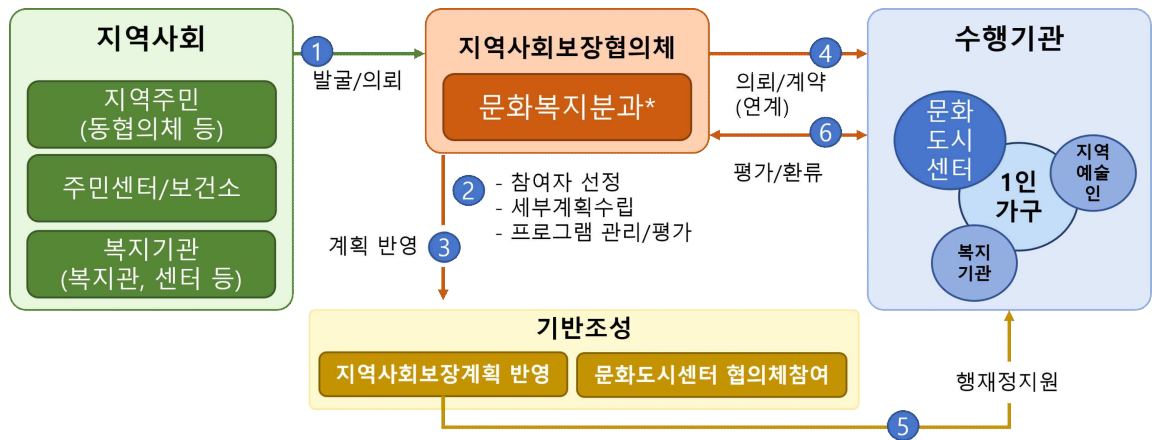
돌봄 인력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기능하도록 실제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으로 기획하여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의 관점과 그에 따른 태도의 정립, 예술 활동을 통한 긍정 효과를 직접 경험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예술치유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예술 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인지하는 교육내용을 시작으로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본인이 직접 느낀 감정에 대해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돌봄 대상을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예술가들의 재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예술가들 스스로 고립감에 처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특성을 파악해야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경우, 각 영역에 대해서 예술가와 복지사가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을 상호 진행하는 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

4.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 제안

가. 문화예술형 민관 돌봄 통합시스템

① 1안. 민관협력형 문화예술 돌봄

첫 번째 공공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체계는 다른 모형과 절대적 배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형, 민간주도형일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공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 1안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고립된 가구에 문화예술 차원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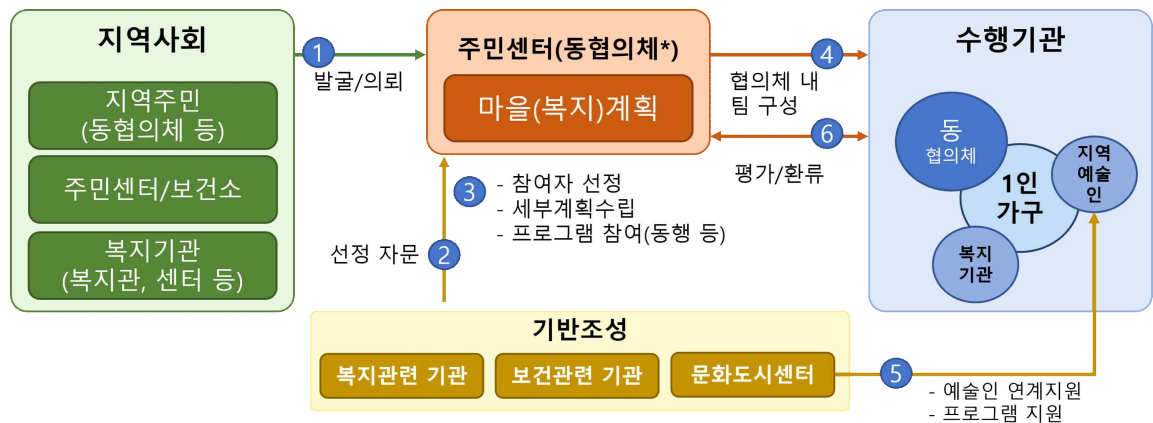
[그림 85] 공공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체계

하지만 협의체가 중심이 된다고 해서 협의체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련 실무분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실무분과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신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사업에 따른 관련 실무분과 구성은 적절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화도시센터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신설이 아닌 기존의 사례관리분과, 노인분과 등이 이 역할을 함께 할 수도 있다. 둘째,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수립된 세부 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협의체는 민관협의기구이기는 하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반영될 때 공공중심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안정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수행기관은 문화도시센터 혹은 관련 기관이 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기관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고립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기관이 핵심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는 사회적 고립을 완화 또는 예방하는 차원으로 문화도시센터가 핵심기관이 될 수 있다.

② 2안.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체계이다. 공공과 민간의 전문기관이 주도하기보다 지역사회의 주민이 중심이 되는 모형으로 동협의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취약계층 주민을 이해하거나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낮은 가능성이 있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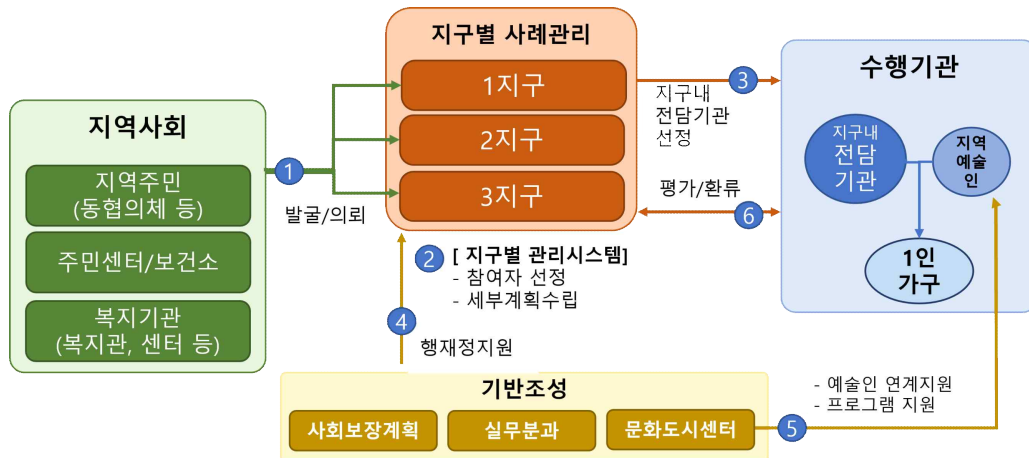
[그림 86]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체계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차원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중심은 동단위의 주민협의기구가 된다. 여기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마을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자 수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기존의 전문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사정 기준에서 발견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 협의체 내 관련 사업의 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팀에는 문화도시센터 전문가나 지역 문화예술인, 사회복지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은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기관(복지관 등), 보건관련 기관(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문화도시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 수행과정과 평가과정에까지 전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주된 수행기관은 협의체 또는 자치위원회가 되며, 지역예술인과 복지기관은 필요한 자원으로써 협력한다. 지역예술인에 대한 연계는 문화도시센터에서 지원하며, 필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 역시 자문·지원할 수 있다.

③ 3안. 민간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세 번째는 민간주도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도구 내 지구별 사례관리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모형은 사회적 고립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취약계층에 유리할 수 있다. 문화예술 차원의 돌봄서비스가 지구 내에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이 전담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림 87] 민간주도형 문화예술 돌봄 체계

이 모델의 경우,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1인가구 대상 서비스 혹은 문화프로그램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다.

세 번째 제안 역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러한 전달체계가 반영되어야 하고, 실무분과를 통해 영도구 전체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복지영역에서의 문화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센터에서는 예술인 연계지원과 함께 지구별 사례관리 차원에서의 참여자 선정과 세부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개인별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된 문화돌봄 공간 필요

다수의 노인복지관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취미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체계가 구축된다면 주민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 돌봄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공간의 위치는 지역매핑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사하구 복지정거장 등의 비대면 공유공간처럼 근린생활권 안에 자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 생활 SOC 내 특정 공간 등을 통합돌봄 체계의 예술활동 공간으로 지정하고 예술가가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무르며 예술 처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때, 주민들에게는 놀이터, 쉼터, 돌봄 공간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금은 바우처와 연계하여 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처음으로 공간을 이용하기 시작한 단계부터 활동의 전체 과정이 예술적 접근을 통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주민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사회적 고립의 완화를 위한 자조 모임의 결성을 지지하고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 부산시 외로움 조례 내 예술 처방 프로그램을 명시

영국은 2018년에 고독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정책의제로 간주하여 고독차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하고 총 3천만 파운드(한화 기준 약 292억) 규모의 정부예산 투입이 공식화되었다. 같은 해 10월,

이런 정책 방향과 비전을 담은 중장기 계획서인 『연결된 사회: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부 정책의 세 가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독을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그 영향을 측정하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투자할 것, 둘째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 영역에서 고독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 고독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을 입안할 것, 셋째 고독 문제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논의와 담론을 형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을 담고 있다(DCMS 2018, 7).

고독을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배경에서, 고독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전략으로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하여 ‘예술과 박물관, 창의적 활동에의 참여가 개인의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성’을 가질 뿐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간 소통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성 회복과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DCMS 2018, 54)⁶⁰⁾.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내 23개 지역의 사회적 처방 시스템 지원,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의 국가의료보장시스템(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시스템 공식 편제, 국립 사회적 처방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for Social Prescribing)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고독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되었던 292억 규모 예산 중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고독 전략 중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이 가장 주요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⁶¹⁾

국내에 「2019년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첫 제정·시행되었다.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제정 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로움을 부산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해결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였고, 전방위적 치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외로움 지표의 개발, 관련 지원사업, 외로움 치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 체계 구축과 협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외로움에 수반되는 문제에 관한 예술적 접근, 의료적 접근 등의 대응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에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을 연계하여 상담과 치료, 예술 처방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의 모든 참여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 필요

‘통합형’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 보건, 문화예술의 영역을 교차한 상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예술가들은 복지와 보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참여 당사자와 관계 맺기를 고민할 수 있으며, 복지 및 보건 계열 종사자는 예술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참여에 더욱 적합한 주민들을 추천할 수 있다. 아울러 돌봄활동가, 고립 위험군의 가족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 for Change. London: DCMS.

61) 최보연. 2019. 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1), 233-268. 인용.

5. 마무리

코로나의 장기화 가운데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은 더욱 주요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영도구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비해 20·30대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구소멸의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으로 지역 내 비자발적 고립, 그에 따른 돌봄의 이슈가 대두된 지 오래다. 이에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사회적 고립을 문화예술로 대응하여 해결할 도시 의제로 제시하고 ‘예술로 마을’, ‘예술로 자람’이라는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영도구는 2020년부터 문화예술은 도시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집중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면서 꾸준히 전진 중이다. 특히 고립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으로 예술기반의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똑똑똑 예술가>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한 예술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복지와 보건의료 시스템과 연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영도구의 고립 요인과 완화 방법을 찾아내,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의 결합을 통한 영도만의 모델을 구상하는데 초점을 가졌다. 문화예술은 홀로 사는, 또는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집중했고, 돌봄이 작동하는 영도구가 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확산하는 체계와 방식을 상상하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영도구 내 고립 위험에 처한 주민들의 실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유 속성을 지닌 예술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작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예술적 처방을 통해 신체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서로가 돌보는 일상생활의 실현은 요원한 미래가 아니다. 영도에서는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발제문]

- 감정기 · 최복언 · 송정문. 201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인식 및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적책 37. 7-48.
- 김민주 · 이아라. 2021. 대학생의 객관적 · 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대처양식의 군집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및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8(9). 89-114.
- 김은정 · 백혜정 · 김희진. 2019.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2). 113-144.
- 김정연 · 하지선 · 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여성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 김주영. 2020. 홍콩식 사회주택의 정치학: 책임감 있는 시민과 의존-자립의 공동체 만들기. 아세아연구. 63(2). 75-106.
- 류재윤 · 이재민.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협력관계 분석: 사회복지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1). 한국지방정부학회.
- 민소영.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지원. 월간 복지동향. 269. 11-17.
- 박선미 · 홍재봉 · 김재현 · 이정기 · 태운재. 2021. 커뮤니티케어 실행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향: 공동체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3). 1-27.
- 손경년. 2021.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포럼 시리즈] 지역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 1차 (2021.07.13.) 자료집.
- 신유리.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지역의 통합돌봄선도사업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이가옥 · 우국희 · 최성재. 2004.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5-22.
- 이기주.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과 주거지원의 방향성.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2021). 한국노인복지학회.
- 이윤희. 2015.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증상: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현 · 정하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시설 분포에 기초한 생활권역 구축 연구: 부산시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1).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태현 · 정하영 · 김정석.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관련기관 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 북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이희인. 2021. 암환자 대상 온라인 예술치유 프로그램 효과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장연진 · 하은솔. 2018. 주민주도성에 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 사회복지연구. Vol. 49(1). 2018 봄. 163-190.
- 전준희.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부문의 성과와 한계: 화성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641-1,658.
- 조예지. 2015.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관계 및 고립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하. 2019. 개념도 방법을 활용한 중년기 자기이해에 대한 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보연. 2019. 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1), 233-268.
- 하태영 · 손정혁 · 오지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2호. 3-42.

- 형희경 외. 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Vol. 20 No. 4, 394-404, September 2014
- Ben-Ami, N., Baker, A. J. 2012. The long-term correlates of childhood exposure to parental alienation on adult self-sufficiency and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 169-183.
- Child, S. T., & Lawton, L. 2019.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mong young and late middle-age adults: Association with personal networks and social participation. *Aging and Mental Health*, 23(2). 196-204.
- Georgi A.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Georgi A editors.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1985. p. 12-18.
- Hämmig, O., 2019,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Social Isolation in General and in Young, Middle and Old Age” , *PLoS ONE*, 14(7), e021966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9663>.
- Kane M.,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 Ranjan, S. and Yadav, R. S., 2019, “Social Isola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 *An International Journal*,26(6), 1905-1920.
- Stewart, M., Reutter, L., Veenstra G., Love, R., and Raphael, D., 2007, “Left Out: Perspectives o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solation in Low-income Population” ,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9(3), 209-212.
- Taylor, R. J., Taylor, H. O., Nguyen, A. W., and Chatters, L. M., 2020, “Social Isolation from Family and Friends and Mental Health among African Americans and Black Caribbeans” ,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37/ort0000448>.
- Step toe, A., Shankar, A., Demakakos, P., and Wardle, J., 2013,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All-Cause Mortality in Older Men and Women” , *Proceedings of the John W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10(15), 5797-5801.
- Townsend, P. 1973. Sociological explanations fo the lonely. In P. Townsend(Ed.). *The Social Minority*. 240-266. London:Allen Lane

[보고서 및 자료집]

- 경기복지재단, 2020. 2020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 경기복지재단. 2021. 복지이슈 FOCUS 제1호.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과 쟁점.
- 부산광역시 북구.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 부산 시민의 외로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1.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사업 성과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9. 「서울,예술치유를 상상하다.」: 2019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콜로키움 결과자료집
- 서울시복지재단.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 제1차 ‘서울,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대응’ 자료집
- 서울시복지재단.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 제2차 ‘익명의 도시, 고립을 넘어 연결로’ 자료집
- 영도문화도시센터. 2022. 문화도시 영도 2025.

- 김춘남 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 송인주.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서울복지재단.
- 서지혜. 2021. 코로나19는 예술기획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 468호.
- 왕은자. 2009. 기업상당 효과에 대한 세 관련 주체(내담자,관리자,상담자)의 인식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소영 외. 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동연.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책기획위원회, 열린정책 제6호.
 이수진. 2021. 영도 커뮤니티형 문화자원조사. 영도문화도시센터.
 이신혜 외. 2020. 서울시 대중교통시설 교통약자 접근성 평가지표 개발:도시철도와 역사 중심으로.서울연구원.
 장현선 외. 2021. 영도구민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영도문화도시센터.

[서적]

곽호완 외.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2008. 시그마프레스
 김중운. 「인간관계 심리학」. 2017. 학지사
 더 케어 콜렉티브. 「돌봄선언」. 2021. 니케북스
 박광배, 「측정·평가8 다차원척도법」. 2000. 교육과학사
 이학식. 「제4판 마케팅조사」. 2017. 집현재
 이정주, 이승호 「새로운 디자인 도구들」. 2018. 인사이트

[법령 및 지자체 문서]

강남구청·(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 「2020 Annual Report: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첫 1년의 기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20. 6. 발표자료. 따뜻한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
 보건복지부. 2018.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2022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 8. 30.] [부산광역시조례 제5925호, 2019. 5. 29., 제정]
 영도구청. 2022년 예산서
 영도구청. 2021년 재정공시
 영도구청. 2021 구정백서
 영도구청. 2020. 통계연보
 영도구청. 201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영도구청. 202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15호)(20160107)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1331호)(2020010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6855호)(20210101)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행정안전부. 2020 문화기반시설 총람

[통계문서]

통계청. 전국 인구 현황. 2017~2021년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2021년
 통계청. 국내인구 이동통계. 2017~2020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 2016~2020년
 행정안전부. 2020 연령별 인구현황

[웹사이트]

부산시청

부산광역시의회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노인복지관

영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스타그램

경기문화재단 지지씨

나비남 프로젝트 - 나는 혼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명랑컴퍼니

서울예술치유허브 네이버카페

아현동쓰리룸

웹진 아르떼365

인천in-인천문화재단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영도 모델 개발

